

한국문학연구소 제46차 학술대회

한국어문학 신진연구자 초청학술대회

- 주최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준비단
- 일시 2021년 12월 4일 (토) 12:30 ~ 18:30
- 방식 온라인화상회의 WEBEX | 미팅룸코드 2643 246 1500 | 비밀번호 211204

학술대회 프로그램

한국문학연구소 제46차 학술대회 <한국어문학 신진연구자 학술대회>		
시간	순서	내용
12:30	개회사	한국문학연구소 소장
12:40 발표시간 25분 지정토론 15분 청중질의 10분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은 동국대학교 장용학의 『圓形의 傳說』에 나타난 냉전기의 주체 분열 양상 토론 김민선 가천대학교
13:30		현대문학
14:20	사회 이평전 서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수빈 성신여자대학교 『조선어독본』 수록 제재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초등교육의 의의 : 피식민 주체의 정체성 수립과정을 중심으로 토론 박치범 경인교육대학교
15:10	휴식	
15:30	2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지아 안동대학교 조선 중·후기 지역 문학장 전개 양상과 강호가사의 의미 지향 토론 박수진 한양대학교
16:20		고전문학
17:10	사회 김일환 동국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진영 동국대학교 『신단공안』을 통해 본 여성범죄서사의 양상과 성격 토론 유춘동 강원대학교
18:00	휴식	
18:10	연구윤리교육	
18:20	폐회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준비단 단장

목차

- 장용학의 『圓形의 傳說』에 나타난 냉전기의 주체 분열 양상 | 김성은 ■ 7
토론문 ■ 34
- 김구용의 「소인淸印」(1957)에 나타난 제3세계 모더니즘 연구 | 남현지 ■ 37
토론문 ■ 57
- 『조선어독본』 수록 제재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초등교육의 의의
: 피식민 주체의 정체성 수립과정을 중심으로 | 박수빈 ■ 61
토론문 ■ 85
- 조선 중·후기 지역 문학장의 변모 양상과 강호가사의 의미 지향 | 윤지아 ■ 89
토론문 ■ 115
- 심노승의 ‘情’의 의미와 문학적 구현 양상 연구 | 민희주 ■ 117
토론문 ■ 136
- 『신단공안』을 통해 본 여성범죄서사의 양상과 성격 | 홍진영 ■ 139
토론문 ■ 160
- 한국문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 163

장용학의 『圓形的 傳說』에 나타난 냉전기의 주체 분열 양상

김 성 은
동국대학교

1. 서론
2. 히스테리 담론적 서사와 주체 분열
3. 인간이 되는 길
 - 3.1. 인간 재배와 거세
 - 3.2. 최후의 심판과 자유
4. 결론

1. 서론

제2차 세계 대전 종식 이후 이어진 미소 중심의 냉전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열전의 형태로 격화되었다. 한국전쟁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명칭으로 인해 내전적 성격이 강조되기 쉬우나 미국을 비롯한 유엔 16개국과 중국, 소련 등이 참전한 국제전이자 열강의 대리전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각국이 냉전의 한 진영에 속해 동맹 및 지원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동아시아의 질서는 더욱 양극화된 냉전 구도로 재편되었다. 주권을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반도의 근대 국가 형성은 그러한 냉전적 질서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한반도의 분단은 ‘반공’과 ‘반미’ 이데올로기로 요약되는 동아시아의 양극적 대응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각 이데올로기는 남북한에서 물리적 권력뿐 아니라 인간 주체를 억압하고 주체의 욕망을 생산하는 심리적 권력으로서 작동하며 ‘국민’의 형성에 기여했다.¹⁾

1) ‘냉전, 냉전 체제, 냉전 구조’란 ‘정치 체제의 구별에 따라 구획된 국제 정치의 공간 편성’을 지칭하며, 외재화된 거시적인 물리적 권력인 동시에 내재화된 미시적인 심리적 권력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미시 권력으로서의 냉전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국민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백원담, 『한국전쟁과 동아시아 상(像)의 연쇄』, 백원담·임우경 편,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그러나 당대의 국민을 국가적 틀에 수렴된 단일한 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한국 전쟁이 남긴 정신적 외상이 실제 국민들에게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재화시키는 방식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전쟁은 정치적 차원에서 냉전 구도를 기반으로 하는 이분법적 담론을 절대적 사유 체계로 작동시켰으나, 한편으로는 낙관적 세계 인식을 좌절시키며 인간 이성과 합리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회의(懷疑)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대의 국민들은 국가가 강제한 ‘국민’ 표상으로 편입되고 동화되려는 체제 순응적 주체와, 이를 거부하고 의심하며 체제 밖의 잉여로 남으려는 분열적 주체로 나뉘었다. 후자가 경험하는 ‘분열’이란 자아라고 생각했던 것, 즉 실제로는 지배 담론에 의해 생산되고 고안된 주체가 실재하는 자신과 괴리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데서 느끼는 분열을 의미한다. 실재하는 대상으로서의 분열적 주체는 체제 밖을 지향하는 동시에 체제 내적 인과 질서를 교란하며 균열을 일으킨다. 그리고 일부 문학 작품은 정사(正史)에 드러나지 않는 이 같은 균열을 포착하여 다양한 시대적 해석을 가능케 했다. 1962년 『사상계』에 연재된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圓形의 傳說)』이 바로 그러한 경우다.

대표적인 전후 신세대 작가인 장용학이 반전(反戰)주의자에 그치지 않고, “메카니즘 - 合理的 「人間性」에서 「人間」을 救援해내는 意慾”²⁾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대 문명의 메카니즘을 비판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장용학은 “현대 작가 중 가장 난해한 신인”³⁾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래, 전후 사회의 문제를 구체적 현실이 아닌 추상적 차원에서 서사화하는 한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으며 ‘관념적이고 난해한 작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의 소설의 난해함은 상당 부분이 미숙한 한글 사용 능력에 기인한 것일 뿐 아니라,⁴⁾ 그 자체로 고정된 해석을 요하지 않는 중층성을 지녔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독자에 따라 “노이로제 환자의 병상 일지”처럼 보이는 장용학의 소설에서 “인간의 숨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⁵⁾ 그 때문이다. 또한 문학 작품

한국전쟁』, 문화과학사, 2013, 16쪽 참조.)

2) 장용학, 「감상적 발언」, 『문학예술』, 1956.9, 178쪽.

3) 백철, 「신인과 현실인식」, 『조선일보』, 1955.10.22.

4) 일본 소설 및 잡지를 탐독하며 문학적 안목을 형성했던 장용학이 독학으로 한글을 익혀 처녀작 「肉囚」를 탈고한 것은 월남 후 1947년의 일이었다. 그는 당시 의식적으로 한 작가 수업은 한글 낱말 공부 정도였다고 회고한다. (장용학, 「나의 작가수업」, 『현대문학』, 1956.1, 154-155쪽 참조.)

5) 김현, 「에피메니드의 역설」, 『김현 문학전집 2: 현대 한국 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

으로 드러나는 작가의 포즈 역시 당대의 산물이라 할 때, 사회 현실의 꺾어진 묘사와 전망 제시 여부를 기준으로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식은 도리어 당대에 대한 이해의 외연을 좁힐 수 있다. 장용학의 소설에서 지향되는 관념적 세계는 오히려 전쟁의 참화 앞에서 합리적 이성을 신뢰하는 데카르트식 사고 체계가 처참히 무너져 내린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의 지배하에 있었던 전후 한국 사회에서의 문학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원형의 전설』은 냉전으로 인한 한국전쟁과 한반도 내 이념 대립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소설이다. 여기에는 전쟁 체험 세대로서 느끼는 개인적 불안과 허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작가의 현실 인식과 정치적 이해가 존재한다.

『원형의 전설』은 “自由와 平等”이 일으킨 “核戰爭”⁶⁾으로 인류가 멸망한 후의 시점에서 화자가 과거 ‘이장’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화자의 이야기는 ‘이장’의 개인사가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었던 ‘자유’와 ‘평등’이 제2차 세계 대전 후 어찌하여 생면부지의 땅인 조선으로 가 충돌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독자에게 한국전쟁을 비단 민족 내 갈등이 아니라 자유주의-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이라는 세계사적 요인의 결과, 즉 ‘냉전의 산물’로서 설명하고, ‘이장’의 비극적 삶이 그러한 냉전기 한반도의 현실을 들여다보기 위한 장치임을 짐작케 하기 위함이다.

『원형의 전설』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장용학의 실존주의적 경향과 더불어 논의되었으나,⁷⁾ 실존주의의 적용에 대한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작품의 내밀한 의도는 놓치고 말았다는 비판과⁸⁾ 더불어 점차 원형 비평 또는 신화 비평적 관점을 채용하거나 형식적 측면에서 서술 원리 및 구조를 다룬 연구가 주를

사, 1991, 321쪽.

6) 장용학, 『원형의 전설』, 사상계사, 1962, 5쪽. 이후 이 책에서 인용 시 본문에 쪽수만 표기.

7) 장용학은 사르트르의 『구토』를 읽은 후 “「實存」의 洗禮를 받”고 “거기서 意識되어진 눈으로 쓴 것이 「요한詩集」”이라고 밝힌다.(장용학, 「나의 작가수업」, 156쪽.) 이러한 회고에 의거해 이후 장용학 소설에 대한 연구 다수가 실존주의의 적용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원형의 전설』에 나타난 실존주의에 대해서는 권기호, 「두 주제의 충돌(1) -소설 『圓形의 傳說』에서」, 『어문론총』 제8권 0호, 한국문학언어학회, 1973을 참조.

8) 장혜경, 「『원형의 전설』에 나타난 원형적 심상과 그 비극적 세계관」, 『문창어문논집』 제16권 0호, 문창어문학회, 1979; 조정래, 「〈원형(圓形)의 전설〉 연구」, 『국제어문』 제16권 0호, 국제어문학회, 1995; 한점돌, 「장용학 소설 연구 -장용학 문학의 생태 아나키즘적 특성-」,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3권 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이루었다. 또한 작가의 현실 인식과 작품의 시대적 의미를 규명하려 한 연구의 경우, 『원형의 전설』이 한국전쟁기 및 전후를 묘사하는 방식이나 근대 문명을 폭력적 메커니즘으로서 제시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연구는 작품에 나타난 남·북한 이데올로기 및 체제 비판,⁹⁾ 탈근대성,¹⁰⁾ 과학기술,¹¹⁾ 사회윤리의식,¹²⁾ 아나키즘¹³⁾ 등의 요소에 주목하는 반영론적 관점에서 『원형의 전설』에 담긴 현실 비판적 문제의식을 통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원형의 전설』의 사생아 모티프가 분열 증적 주체의 심화된 양상을 드러낸다고 본 정신분석학적 연구의 경우, 주체의 분열을 사생아로서의 자기 근원을 알고자 하는 주체와 이를 회피하려는 주체로 분열되는 것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장용학 소설의 주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하나, 『원형의 전설』에서 주체가 경험하는 상징계적 질서를 부모와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있다.¹⁴⁾

본고에서는 『원형의 전설』에 포착된 당대 현실과 주체의 문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장’이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냉전 체제 하 한국 사회의 주체 유형이 어떠한 분열 양상을 보였는지 확인하려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라캉의 주체 이론을 경유해 『원형의 전설』에 나타난 주체의 개념과 양상을 분석하고, 작품에 드러난 냉전기 한반도의 현실과 ‘이장’의 삶이 함의하는 바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3장에서는 그러한 분열에 대응하는 ‘이장’의 선택과 지향점이 『원형의 전설』의 궁극적 의미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3장 1절에서는 인간적 요소를 규정하는 근대 문명이 인간 주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억압하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부조리한 현실과의 불화 속에서 ‘이장’의 여정이 가시화하고 있는 욕망을 다룬 것이다. 2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추구되는 ‘4차원의 세계’의 의미를

9) 최용석, 「장용학의 『圓形의 傳說』 고찰 -작가의 현실의 인식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15집, 우리문학회, 2002.

10) 류희식, 「장용학 소설 『원형의 전설』에 나타난 탈근대성」, 『한민족어문학』 제49권 0호, 한민족어문학회, 2006.

11) 권보드래, 「과학의 영도(零度), 원자탄과 전쟁 - 『원형의 전설』과 『시대의 탄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43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2.

12) 박중홍, 「현대소설의 사회윤리의식 -〈원형의 전설〉과 〈시장과 전장〉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13) 최성실, 「한국현대소설의 아나키즘적 특성 연구 -〈용과 용의 대결전〉, 〈원형의 전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7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05; 한점돌, 앞의 논문.

14) 김세나, 「장용학 소설의 주체 분열 양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분석할 것이다. 이로써 전쟁과 냉전의 억압 구조 하에서 새로이 인식될 필요성에 직면한 주체의 문제를 『원형의 전설』이 어떻게 형상화했는지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히스테리 담론적 서사와 주체 분열

『원형의 전설』에서 화자가 들려주는 ‘이장’의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한국전쟁의 발발로부터 『원형의 전설』이 연재되기까지의 1950~1962년경으로 추정된다. 화자는 세계가 동서 양 진영의 대립과 이에 따른 핵전쟁으로 멸망한 후 등장한 신인류다. 일관되게 경어체를 사용하며 한국전쟁기와 전후의 사건들을 과거의 전설처럼 들려주는 화자의 태도는 일면 『원형의 전설』의 관념성과 추상성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당대의 사건들을 ‘인류전사(人類前史)’라는 전설의 위치에 두어 화자와 시차적 거리를 뒀으로써, 소설 전체에 걸쳐 시도되는 현실 비판의 당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화자는 소설 초반에 “人類前史에 終焉”을 고한 핵전쟁의 전초전이 조선의 “六·二五動亂”이었으며, 그 원인은 서양 문명에서 발원한 “自由와 平等”의 물결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조선의 북위 38도선에서 충돌한 데 있다는 사실부터 직접적으로 언급한다.(5) 이러한 설명은 한국전쟁이 세계사적 사건이며, 뒤이어 전개될 ‘이장’의 이야기가 한 개인의 삶일 뿐 아니라 당대 현실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는 것을 암시한다. ‘李章’이라는 이름의 의미 또한 ‘현 국면’으로 해석 가능하다.

화자는 “內陸的”이고 “輪迴的”인 “동양사”와, “流動性”과 “終末觀”을 지닌 “西洋史”를 대비시키며 ‘자유’와 ‘평등’의 발상지가 서구임을 분명히 한다.(5) 그에 따르면 서구 문명은 프랑스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하나는 “아메리카”로, 다른 하나는 “도이취랜드에 들렀다가 러시아로” 흘러든다. 그리고 아메리카로 흘러든 것은 태평양을 넘어 “필립핀”에, 러시아로 흘러든 것은 “우라디보스톡”에 당도했다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조선땅”에서 서로 만난다.(6) 한편 이질적인 사상의 유입에 대한 조선 내 반작용 또는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서술에는 아시아의 냉전화는 아시아에서 추구된 것이 아니라 미소를 필두로 한 서구 강국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확장된 것이며, 서양의 냉전 종주국과 동양의 피(被)냉전 국가가 각기 냉

전 구도에서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이 시각은 “이 땅”에 “‘民主 堡壘’니 ‘두 개의 世界’니 ‘萬國 平和 아필 運動’이니 하는 따위의 ‘레알리즘’이 네이팜탄의 세례와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며 “내 살이 뜯겨나가고 내 피가 흘러내린 이 전쟁은 과연 내 전쟁이었던가?”¹⁵⁾라 자문하는 「요한 시집」(1955)의 문제의식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것이었다.

『원형의 전설』에서 문제시하는 냉전 구도의 부조리는 그것의 기반이 되는 ‘자유’와 ‘평등’이 학자들에 의해 서로 모순되는 개념으로 정의 내려진 데서 기인한다. 화자는 이것을 “戰爭에 가장 精力의”인 자들이 “싸움을 붙여 놓은 것”(8)으로 이해한다. ‘자유’와 ‘평등’은 본디 상호 보완적 개념이며 “自由陣營에도 階級이”, “平等陣營에도 民族이”(11) 존재했으나, 이러한 개념들이 정치적으로 재맥락화되면서 인간의 패권 전략에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화자는 ‘자유’와 ‘평등’, ‘민족’과 ‘계급’을 두고 다투는 것이 실상 “圓形이 더 크다”, “四角形이 더 크다”(11) 식의 무의미한 언쟁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

화자는 그러한 이분법적 정치를 일삼는 이들과 ‘이장’을 구분 짓는다. ‘이장’의 삶은 “正史에는 기록되지 못”한 “野史의 한 토막”(12)으로 표현된다. 그가 기존의 사회 질서 밖에 놓이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사생아라는 설정 때문이다. ‘근친상간’의¹⁶⁾ 결과로서 친부모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라난 ‘이장’은 출생부터 기성 가치 체계와 “戶籍이라는 制度”(12)에서 벗어나 있다. 자신이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장’이 친부를 찾고 그 친부로 하여금 ‘이장’의 아버지임을 시인하게 하는 과정은 『원형의 전설』의 서사를 관통한다. 그런데 이때 친부의 의미는 생물학적 아버지뿐 아니라 진정한 ‘인간’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한반도의 ‘대타자’¹⁷⁾로까지 확장해 이해할 수 있다. 대타자

15) 장용학, 「요한 시집」, 홍용희 편, 『장용학 소설전』, 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38-39쪽.

16) 장용학은 “현대는 하나의 人間悲劇”이며 그 비극은 “윤리”, 즉 “합리”의 벽에 부딪친 데서 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러한 현대 상황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테마가 ‘근친상간’이었다고 밝힌다.(장용학, 「圓形의 傳説」, 그 후, 『문학사상』, 1973.11, 329-330쪽.) 근친상간은 동족상간의 비극을 낳은 한국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전쟁 역사의 병리적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17) 라캉의 용어 ‘대타자(Autre)’는 여러 의미를 지닌다. 우선적으로는 ‘다른 주체’를 뜻하나, 무엇보다 언어가 구성되는 장소 즉 상징계 자체를 의미한다. 주체의 무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타자, 즉 어머니나 신 등도 특정한 무의식의 주체에게 무의식적 행위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경우에 대타자가 될 수 있다. (문장수, 「증상(symptom)의 존재론적 의미와 ‘의식’(ritual)」, 『칸트연구』 제37권 0호, 한국칸트학회, 2016, 228쪽 참조.)

는 ‘나’로 환원되지 않는 상징적 타자로서, 모든 주체의 필연적 상관항이다. 라캉은 인간 주체란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타자와의 동일시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결과물, 즉 구성되는 존재라 보았다. 『원형의 전설』의 화자는 이와 매우 유사한 시각에서, 인간은 언어와 문화로 형성된 보편적 세계인 상징적 질서로 진입함으로써 비로소 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체를 구성한다는 논지를 펼친다.

내가 먼저 이렇게 있고 다음에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이렇게 나인 것입니다. 애초에야 먼저 내가 있고 다음에 남의 눈이 나를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일단 「남의 눈」을 意識하게 된 다음부터는 「남의 눈」이 나를 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각이 먼저 있고 다음에 말이 생겨나는 것이지만, 일단 말이 생긴 다음에는 말이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과 그 順序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이나 「남의 눈」은 人間半島를 政治的으로 二分하는 三八線과 같은 것이어서, 以北의 法은 以南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236-237)

화자는 현실의 상징적 질서를 “남의 눈”으로 표현하고, 인간을 “남의 눈”의 “塑像”(237), 즉 타자에 의한 구성체로 규정한다. 요컨대 “나의 「人間性」”은 “태어난 나라는 「人間」” “그 이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285) 라캉은 인간이 상상적 질서에서 상징적 질서로 진입하는 기점을 ‘아버지의 존재’, 즉 아버지의 언어 및 법칙의 등장으로 설명한다.¹⁸⁾ 상징적 질서는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질서로서, 우선적으로는 아버지에 의해, 나아가 타인들의 금지와 명령, 욕망과 기대, 의무와 가치 판단 등의 체계에 의해 구성된다. 즉 아버지의 질서는 곧 타자의 언술을 대표하며, 자아는 이 질서를 토대로 삶과 욕망을 조정한다. 그러나 ‘이장’에게 아버지는 부재하는 기표다. ‘이도무’가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던 ‘이장’은 자신을 둘러싼 상징적 질서들에 회의를 느끼며 분열된 주체로서 나타난다. 그가 느끼는 “羞恥와 嘔吐症이 뒤섞인 乖離感”(28)은 ‘이

18) 라캉은 인간의 주체가 생성되는 과정을 상상계에서 상징계로의 이행으로 설명한다. 아이는 상상계에서 타자, 특히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통해 자아의 통일성을 구성한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일체 상태는 상징계로 진입하며 아버지가 등장함에 따라 깨지고, 아이는 문화가 설정해둔 명령과 금지의 체계 아래 종속된다. 상상계의 질서에서 상징계의 질서로 이행함으로써 인간은 성숙한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라캉의 주체 구성 이론에 대해서는 강영안, 「자크 라캉: 언어와 욕망」, 김육동 편,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현암사, 1991, 199-206쪽을 참조.

도무'의 가정에서 자신이 자아로서 구성해온 것이 실재하는 자신과 괴리되어 있음을 알게 된 데서 비롯되며, 이러한 감정은 “나는 나인가? 나는 나의 主人인가? 나의 머슴인가?”(67)라는 의문으로 발전된다. 타자의 언술에 따라 상징적 질서 속에 배정된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자아가 실은 실재하는 자신과의 근원적인 소외를 통해 성립되었다는 의심 속에서 주체의 자기 동일성은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이장’의 양부모가 사망하고 ‘이장’이 의용군에 동원되면서부터 ‘이장’의 삶을 억압하고 조종하게 되는 대 타자의 존재 또한 드러난다. 그것은 무엇보다 한반도를 정치적으로 이분한 “말”과 “남의 눈”, 즉 서구 문명의 ‘자유’와 ‘평등’에서 각기 배태된 남한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다.

냉전기를 살아가는 인간 주체의 자명성이 문제시된 것은 당대의 국민을 주체로서 구성했던 지배 이데올로기의 자명성이 문제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으로 양극화된 냉전 질서가 강화됨에 따라, 한반도의 개인들은 이념 대립에 의거한 집단적 정체성에 종속된 주체 의식을 지닐 것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원형의 전설』에서 남한이 표방하는 ‘자유’와 북한이 표방하는 ‘평등’은 기만적이고 허위적인 이념으로 묘사된다. 이 같은 상징적 질서가 배정해준 자리에서 자기 동일성을 획득하지 못한 주체들은 지배적 규범에 불만을 느끼고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해야만 했다.

『원형의 전설』에서 남한 사회를 작동시키는 이데올로기는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보다 자본주의의 물신화에 지배되는 ‘이도무’ 부부, ‘오택부’, ‘안지야(마담 바타플라이)’, ‘P 읍 순경’ 등의 작중인물들을 통해 구현된다. 이러한 교묘한 방식은 국가와 자본 간의 연합을 꾀해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몰두했던 당대 정권하에서,¹⁹⁾ 반국가 활동으로 인식되지 않으면서도 독자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장’은 계급을 없애고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은 “獨裁가 아니라 生産”(177)이라

19) 서구의 자본가 계급은 봉건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며 사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면서 사회의 주도적 위치를 점해나갔다. 그러나 한국에서 1960년대의 초기 자본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되기보다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를 거치며 독재 권력에 예속된 형태를 띠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 정권은 은행을 국유화하고 국내외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며 특정 산업과 기업을 경제 개발의 중추 세력으로 육성했고, 자본가들은 국가 권력에 통합되어 정부 정책에 순응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그러한 경제적 실적을 통해 국가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구현우, 「박정희는 시장주의자였는가?: 한국 보수주의의 정치적 기원과 그 한계」, 『행정논총』 제57권 제4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9, 146-157쪽; 김용복,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관료」, 『역사비평』 여름호, 역사비평사, 1998, 136쪽 참조.)

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자본주의에 대한 옹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가 약속하는 “自由”든 공산주의가 약속하는 “뽕”이든 결국 “正義”나 “合理”라는 이름으로써 “人間的 意識生活”을 구속하게 되므로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176)

‘이장’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야 ‘이도무’에게서 친아들이 아니라는 진실을 듣는다. 이러한 시기 설정은 근대 지식인이 전쟁 체험 이후, 본디 당연시되어온 본질주의적 사고를 불신하기 시작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도무’는 일제 강점기에는 경방단(警防團) 지부장, 해방 후에는 민보단(民保團)의 분단장이었으나, 북한의 남침 후에는 공산당원을 자처하는 등 지배 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야합해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철저한 자본주의적 인물로 등장한다. ‘이도무’ 부부는 ‘이장’의 친부인 ‘오택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이장’을 입양했으나 ‘이장’에게 몰정한 모습을 보인다. ‘이장’이 그러한 양부모를 의심하기보다 아들로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한 까닭은 오로지 양부모가 “용돈을 넉넉히 주었기 때문”(18)으로, 이 시점에서 ‘이장’ 역시 자본 배분을 바탕으로 공동체 내 이해관계를 받아들이는 자본주의 논리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러나 ‘이도무’는 민보단 분단장을 맡은 이력 탓에 공산당 보안서원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자 바로 ‘이장’을 의용군에 넘기려 한다. ‘이도무’ 부부와 ‘이장’으로 구성된 가정은 철저히 ‘오택부’의 경제적 대가로 유지되어 온 것이었다. 가정이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국가적 장치로 기능한다고 할 때, ‘이도무’의 가정은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체를 운영하며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오택부’ 역시 돈과 권력만을 중시하는 배금주의적 인물로서 자본주의를 상징한다. ‘오택부’는 ‘맹팔’에게 ‘이장’의 친모 ‘오기미’를 강간했다는 누명을 씌운 후 대금을 주어 입막음하고, ‘이도무’에게는 양육비를 주어 ‘이장’을 맡김으로써 아들과의 인연을 끊고자 한다. 또한 그는 ‘이장’이 자신의 딸 ‘안지야’와 동침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장’에게 일백만 환씩 제공하겠다는 협정을 제안하고, ‘이장’이 이를 거부하자 계속 금액을 올리며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한다. ‘오택부’가 고관을 매수하기 위해 ‘안지야’를 상납하려 한 일화에서는 ‘오택부’가 딸을 돈과 권력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안지야’ 자신조차 돈을 위해 못 남성을 상대로 자신의 몸을 “生

存資本”(201)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모든 가치가 경제 자본과 권력 자본으로 환산되는 자본주의적 질서 하에서 ‘오택부’를 견제하는 자는 없으며, P읍의 순경들조차 ‘오택부’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택부’가 P읍 일대의 “生殺與奪之權”을 쥐고 있는 “덴노헤이까”(천황 폐하)로, 순경이 그의 “私兵長”으로 묘사되는 장면은(231) 자본을 토대로 형성되는 계급 간 지배 관계를 보여준다. 순경은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이나, 그들이 상징하는 국가 권력과 사회 제도가 따르는 것은 자본의 논리다. 친부와 양부, 순경 등이 신봉하는 자본 중심의 체제 속에서 ‘이장’은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거래의 대상으로 존재할 뿐이다.

‘이장’은 월남 후, 한국전쟁 이전에는 “좌익 一色”이었던 대학의 환경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한다. “社會가 부패하면 人民은 공산주의로 쏠리는” 법임에도 전쟁을 겪은 남한에서는 오히려 공산주의가 “사회를 부패시키”는 사상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129) “굵어서 피골이 상접한 노동자까지 공산주의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슬슬 피해 버리는”(130)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남한 사회가 한국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감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국민을 통제하는 삼엄한 반공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장’에게 “오늘날의 공산주의”는 “資本主義의 모순 부패를 牽制하는 의미”에서 “善을 일깨우고 善을 강요하는 것 같은 否定的인 「惡」的存在”(130-131)로서만 가치 있다. 휴전이 성립되어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후에도 북한에 남기를 선택한 ‘이장’에게 공산주의가 “하나의 悲願”이자 “現實逃避”(131)였던 까닭은 공산주의를 긍정해서가 아니라 “이때까지의 世界가 아닌 世界를 살고 싶기 때문”(98)이었다. 자신이 살아온 남한에서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자 도피적 차원에서 새로운 체제에 잔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장’이 북한에서 접한 탄광의 현실과 의용군, 인민군, ‘정교수’ 등의 인물들은 북한 사회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노출시키고, 화자는 ‘공산주의’ 및 ‘마르크시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이장’이 처음 공산주의적 질서에 편입된 것은 보안서원과 동인민위원회의 강압에 의해 의용군으로 동원되면서부터다. 의(義)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군대를 뜻하는 의용군은 의를 실천하는 대신 사람을 사냥하듯 “노획물”(29)로 삼아 전쟁 도구로 활용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의용군 내에서 실천되는 ‘평등’은 죽음 앞에서만 강요되는 선택적 평등이다. ‘이장’과 같이 무기가 없는 위병(僞兵)은 전투지에서는 무기를 지닌 고등관과 함께 돌격하되, 전투가 없을 때는 고등관을 위해 허드렛일을 해야 했던 것이다. 소설에서 이러한 이중성은 마르크스에 의해 뒷받침된 “거짓말”(32)을 의식적으로 활용한 소비에트의 계획으로 묘사된다. 공산주의의 허위성은 어느 인민군이 “자본주의 국가에만 있는 봉건시대의 유물”(90)로 표현했던 포로가 인민군대에 버젓이 존재하는 장면, “인민공화국에서는 노동자가 배고플 리 없”음에도 탄광의 광부들이 굶주리는 장면(99) 등에서 희화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장’이 “인민공화국에 인민이 어디 있습니까?”라 반문하자, ‘정교수’는 공산주의의 존재 의의를 ‘모든 사고는 소련이 미국에 절대 지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출발시켜야’(103) 하며 “이북의 진리가 이북에서 통하게 되면 이북은 없어진다”는(104) 기제로써 설명한다. 이 장면은 남한의 반공주의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공산주의가 평등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반미와 반공이 대립하는 냉전 논리를 기반으로 통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화자는 따라서 “맑시즘”은 “資本主義”와 더불어 “샤마니즘”이나 “封建制度”와 마찬가지로 “「核分裂」 이전의 福音”(177)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실재가 아닌 환상이며 오히려 기만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장’이 의용군으로서 월북한 후 탄광 노무 관리자, 농업학교 교사로 일하다 간첩 교육을 받고 남파되어 대학 교수가 되는 일련의 과정은 모두 국가 권력에 의해 강요된다. ‘이장’은 공산주의를 내면화하지 못하면서도 표면적으로 그에 순응해 간첩 활동을 수행하나, 발각될 위기에 몰려 당원에게 자결을 강요받자 이에 저항하고 끝내 공산주의적 질서에서 이탈한다.

“나는 나인가?”(34)라는 ‘이장’의 의구심은 그가 남북한의 체제 내에서 주체를 정립하는 데 실패하고 이방인으로 남음으로써 해결된다. 이 과정은 낙오가 아니라, “너무나 손쉽고 情이 들어서 오히려 그것에 기대어 사는 것이 여러 모로 安穩한 것을 <군바이>하는 사람” 즉 “落第生”이자, “現代의 英雄”이 되는 여정으로 서술된다.(379-380) 이는 냉전기 주체가 경험한 분열이 시대적 필연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장’이 자신을 둘러싼 이념과 제도의 부조리를 직면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근친상간의 결과물이자 사생아임을 인식한 후부터다. 그의 여정은 장용학이 『圓형의 전설』에서 냉전기 주체의 분열을 이분법적 냉전 담론에 의해 발생한 한국전쟁의 결과

로서 파악하고, 인간을 규정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 나아가 서구로부터 온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한국전쟁은 ‘합리성에 기반을 둔 근대적 세계’라는 상상적 허구를 깨트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원형의 전설』에서 포착된 것은 이 같은 사상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담지해 지배 담론에 동화되지 못했던 개별자들의 영역, 즉 냉전 체제의 잉여 지대였다. 『원형의 전설』은 국가에 의해 반공과 반미 이데올로기라는 이분법적 냉전 질서에 조응할 것으로 기대되어 온 ‘국민’ 표상을 의심하고, 냉전 체제의 자명성에 균열을 일으키며 체제 밖을 지향하는 분열적 주체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형의 전설』은 국가에 의해 안정화되고 정교화되는 패러다임을 불신하고 그 기원과 바탕에 물음을 던지는 히스테리 담론 형식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라캉은 사회의 지배적 규범 또는 표준에 불만을 느낀 주체가 기존 질서의 기원과 바탕을 되묻고 질문과 회의의 상황을 그리는 것을 히스테리 담론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가 생산해내는 지식, 설명, 진단 등은 분열된 주체의 욕망과 환상 앞에서 무력하며, 분열된 주체로 하여금 계속된 의문과 환멸을 낳게 한다.²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로 표상되는 근대 문명이 개개의 주체를 대상화하고 하나의 인위적 질서로 환원시켰다면, 히스테리 담론은 기존의 질서를 벗어나는 실재적 잉여를 오히려 현실을 사유하는 원동력으로 삼는다. 그러한 점에서 히스테리 담론적 서사로서의 『원형의 전설』은 반공 체제를 수립해 국민을 동질적인 민족 주체로 통합하고자 했던 냉전기 한국 사회의 균열을 노출하고 있다. 이 시도를 세계의 합리화와 탈주술화에 반대하여 언제나 흔들림 없는 정신과 감정, 주체에 대한 믿음을 고수하려는 반근대주의로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원형의 전설』의 목적은 근대 냉전 이데올로기를 뒤집는 또 하나의 대립적 패러다임의 구축이 아니라, 의문과 환멸의 체스처

20) 라캉은 담론의 형식을 ‘주인의 담론’, ‘대학의 담론’, ‘히스테리 담론’, ‘분석자 담론’의 네 가지 유형으로 설명한다. 주인의 담론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지식과 기표 체계를 형성하는 1세대 담론이라면, 대학의 담론은 그러한 패러다임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확장되고 정교화되는 과정을 뜻하는 2세대 담론이다. 이 과정에서 체제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며 질문과 회의를 계속하고 역리(逆理)를 수용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질서 추구를 추구하는 것이 히스테리 담론이다. 그리고 정신분석의 경우처럼, 분석자가 그러한 분열된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무의식적 사유를 언어로 표현하고 욕망의 원인을 자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분석자 담론이다. (김상환, 「라캉과 데리다: 기표의 힘, 실재의 귀환」, 김상환·홍준기 편, 『라캉의 재탄생』, 창비, 2002, 543-550쪽 참조.)

자체를 뺏긴하게 그려내는 데 있기에 오히려 탈근대적이다.²¹⁾ 이것이 『원형의 전설』이 유토피아에서의 화자의 삶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부유하는 ‘이장’의 여정을 기본 서사로 삼은 까닭이다.

3. 인간이 되는 길

3.1. 인간 재배와 거세

“共產主義에서 脫落”(214)한 ‘이장’은 꿈속에서 “產出之地”(215)라는 비가 준비하게 늘어선 인간 재배 밭을 목격한다. ‘이장’은 인간의 “五列”이 인간을 재배해왔으며, 그 오열이 “「多數決」이니 「左側通行」이니 「自由 아니면 죽음」 등의 “流言蜚語”를 퍼뜨려 인간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217) 그러한 유언비어가 “世界政策에 이바지”하여 “世界는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63) 그리고 자신 또한 그러한 이념들에 세뇌되어 지금껏 “「自我」에게 속은”(217) 채 살아왔음을 깨닫는다. 내가 나오서 산 것은 나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다른 내가 나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간 재배 밭의 환상은 불완전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상징적 질서 속에 고정되어 주체를 통합하고 사회에 기여하게끔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자유”, “평등”과 같은 이념을 포함해 “인간적”인 것을 규정하는 모든 근대 문명적 요소들은 인간을 재배하는 것으로서, 인간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구성한다. 대타자가 만들어내는 주체의 이미지 속에서 개인은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고 이데올로기적 자아를 형성한다. 이 자아를 기반으로 자의식이 생겨난다. 따라서 타자의 언술에 의해 호명되었던 주체가 자신의 분열을 감지하는 데서 나아가 기성 질서로부터 탈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상징적 질서에 일시적으로 저항하는 서사라 할지라도 그러한 질서가 회복되는 결말로 끝나는 오이디푸스 서사 형태를 띠기 쉽다. ‘이장’이 사회적 제도 밖에서 ‘안지야’와의 결합을 욕망하여 결국 과거 자신의 부모가 행한 근친상간의 비극을 반복하게 되었듯, 새로운 질서는 균열을 드러내는 질서

21) 이러한 태도는 화자의 의식 서사에서 집행된 “최후의 심판”에서, 재판장이 4대 성인들을 향해 “마땅히 被告席에 앉아야 할 것이로되 (중략) 젊었을 때 그때까지의 世界觀에 反抗하여 그것을 破壞한 叛逆兒로서의 前功에 鑑하여 그 以後에 저지른 人間去勢罪는 不問에 붙이게 한 것”(280)이라 말하며 그들을 피고석이 아닌 증인석에 앉혀주는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를 대체할 것처럼 보이면서도 원래의 질서로 회귀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근대의 분열적 주체가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야기하는 요소, 즉 인간을 제약하는 ‘인간적’인 것을 소거해야만 했다. 이에 장용학은 “人間”을 지향하는 “四次元”(401)의 세계로 비약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의 條件을 清算하기 위한 豫定調和”(10)로서의 인류의 종말은 『원형의 전설』의 필연적인 결말이었다.

히스테리 담론에 따르면 히스테리를 경험하는 주체는 자신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을 향해 여러 형태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같다. 나는 진실로 ‘누구’이며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그러나 지배적 패러다임은 인간이 상징적 질서로 이행하며 이미 상실한 것들에 관해서는 답해줄 수 없는데, 그것이 제시하는 진실이 이미 상징계의 기표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신 그 반응으로서 더욱 많은 중심 기표들을 생산해내며, 주체는 보다 극심한 소외와 욕망의 불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원형의 전설』에서 히스테리 주체인 ‘이장’은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禁止>와 <罪>와 <神> 그 三位一體”(403)로 표현되는 합리적 질서에 편입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한 편입은 “知情意”에 맞추어 낸 “永遠不變”과 “普遍妥當性”의 생을 보장해주는 것이지만, 『원형의 전설』에서 합리성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偶像”으로 묘사될 뿐이다.(272) 합리성은 본디 원형의 형태로 “서로 돌고 도는” “森羅萬象”(259)을 인간의 이성으로 분절시킴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피투성이가 돼서 서로 물고 뜯”(258)도록 한 원흉인 것이다. 『원형의 전설』에 지속되는 긴장과 갈등은 이렇듯 기성 질서에 저항하는 분열된 주체와, 그러한 체제 밖의 잉여가 체제 안으로 편입되고 동화되기를 원하는 시도 간에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화자의 의식 서사 속에서 시행되는 “最後의 審判”(278) 장면으로 형상화된다. “인간”은 재판장으로 등장하나, “인간적” 모습으로 대체되어 왔기에 “따지고 보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280)는 존재다. “인간”은 인간 재배라는 죄목을 “人間去勢”로 명명하고, 시간을 분절하는 “스물 네 時間”을 필두로 성직자,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 정치가 등의 사람들과 “眞·善·美”, “信義」「勤勉」「端雅」 등의 덕목들을 피고로 기소한다.(278-279) 베드로, 성프란시스코, 단테, 플라톤, 코페르니쿠스, 카이사르 등 피고석에 앉은 상당수가 근대 시기의 인물이 아니라는 점은 사뭇

아이러니한데, 여기에는 근대 사회로의 이행을 중세와의 단절이 아닌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내인론적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전 인류의 조건을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심판에서, “인간”은 피고들이 지금까지 엮어 낸 세계상에 저항하는 것이 “人間이 人間이 되는 길”(280)임을 분명히 선고한다.

‘이장’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던지는 무수한 질문은 거세당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래적 욕망을 마주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가 질문을 던지는 대상은 우선 ‘아버지’라는 기표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완전한 일체를 이루고 있던 아이를 최초로 상징적 질서로 진입시키는 한편, 상징계에서 아이의 계보를 확인시켜주는 존재다. 그러나 ‘이장’을 양육한 ‘이도무’, ‘이장’의 친부라는 누명을 쓴 ‘맹팔’, ‘이장’이 자신의 친부이기를 원했던 ‘현만우’ 모두 ‘이장’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친부인 ‘오택부’는 ‘이장’과의 부자 관계를 계속해서 부정한다. ‘이장’은 친부로부터 남한에서 고향된 채 살거나 다시 월북할 것을 강요받으며, 자신을 둘러싼 상징적 질서에서 자기 동일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장’의 저항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금지와 명령의 체계를 형성하는 상징적 질서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래의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모습이 투영되는 이복동생 ‘안지야’와의 결합을 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것은 ‘아버지’의 등장으로 깨진 ‘어머니’와의 일체 상태로 복귀하려는 행위이면서, 지배 이데올로기에의 종속의 거부라는 의미로까지 확장된다.

‘이장’은 ‘오기미’를 타락한 신식 여성으로 상상하며 원망하나, ‘현만우’의 집에 있던 ‘오기미’의 초상화에서 “罪에 떨고 있는 가련한 少女”(162)의 모습을 보게 된다. ‘탕녀이자 성녀’라는 이중적 여성상은 ‘안지야’에게서도 발견되며, 이러한 특징은 ‘안지야’가 ‘오택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부터 ‘이장’이 ‘안지야’를 욕망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장’에게 친부를 찾는 것이 “過去를 더듬”는 일이라면, ‘안지야’는 자신의 “感覺의 門을 가리고 있던 帳幕을 휘몰아 버리는 바람”이다.(144) 그런데 간첩으로서 남한에 밀파된 상황이었던 ‘이장’은 “「마담·바타플라이」와 共產主義는 양립되지 않는 것”이며, “「마담·바타플라이」에 끌려간다는 것은 공산주의에서 그만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저한다.(144) 그것은 ‘이장’이 어머니의 묘 앞에서 “解脫”하고 “女子를 가까이하지 않겠다”(124)는 두 가지 맹세를 했기 때문이다. ‘정교수’가 가르쳐준 ‘해탈’이란 “거짓말을 보고 아주 그것이 되어 버리”는(103)

것, 즉 소련의 승리를 확신하며 공산주의가 되는 길을 뜻한다. ‘이장’에게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하는 것’과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을 인식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직시하는 것’과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서로 대치된다. 소설 결말에 가까워질수록 ‘이장’은 전자에서 후자로 이행한다. 그것은 곧 타자의 욕망에서 자신의 욕망으로의 이행이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상징적 질서로 진입함으로써 비로소 욕망의 주체가 된다. 인간이 느끼는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토대로 설정되며, 이때 타자란 부모뿐만 아니라 “금지”, “죄”, “신”(403) 등 허용과 제한을 설정하는 모든 타자의 언술을 포괄하는 것이다. 상징적 질서 속에서 인간은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함으로써 인정받고자 하지만,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과 완전히 일치되지 않으므로 타자의 욕망이 자신에게 가해 오는 제한을 끊임없이 체험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라캉이 인간에게 본래의 자아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동일성은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해 있다고 본다면, 『원형의 전설』은 “인간”과 “인간적”을 개념적으로 분리하여 인간이 타자의 언술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구상한다. 그것은 곧 “인간”이라는 재판장이 강조한 “인간의 길”이다.

3.2. 최후의 심판과 자유

“인간의 길”을 도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최후의 심판”은 ‘이장’의 서사에서 핵전쟁으로 집행되며, 그것의 당위성은 ‘이장’이 역설하는 ‘4차원의 세계’의 필요성으로 설명된다. 그는 언어와 이념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인간적”을 폐기하고 본래의 “인간”을 지향하는 “4차원”의 세계로 비약하는 것, 즉 상징적 질서로부터의 탈주를 추구한다.

「<人間>이 人間四次元의 方向이었다! <人間>과 <人間的>이 서로 敵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日常生活에서 늘 당하고 있는 事實이 아닌가! 그럴 때 人間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 아까 芝夜는 나와 함께 <人間>의 편을 들었다, 反<人間的>일수록 人間은 人間이다!」

「아 저는……」

「芝夜, 우리는 人間으로 還俗한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人間>을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못 살아요!」

「거기가 來世다!

無數한 圓의 交響, 萬象은 圓周의 一部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 對立이 없다! 量的인 差만 있고, 質的인 差가 거기에는 없다!

거기엔 教育이 없다! (409)

‘이장’은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4차원이란 3차원의 공간에 시간을 가해 ‘공간을 시간의 방향으로 이동시킨 것’이라 설명한다. 반대되는 속성을 지닌 듯 보이는 ‘공간’과 ‘시간’이 “對立되는 것이 아니라 한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착안하여, ‘이장’은 사람들이 아직 “卑怯해서 보려고 하지 않”는 방향으로 “<禁止> <罪> <神>”을 유목시킬 것을 주장한다.(383) 그 방향이란 합리를 중시하는 근대적 사고로써 서로 이질적인 것들로 분절된 개념들을 다시 한 줄로 이어진 원형의 형태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도래하게 될 “4차원”의 세계에는 지배 체제가 유도하는 “대립”도 “교육”도 없으며, 근대적 주체를 구성하는 “인간적” 대신 본래적인 “인간”만이 남는다. “4차원”은 근대와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초현실적인 세계이면서도, 이분법으로 왜곡되지 않은 본래의 인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미 인간 존재에게 잠재되어 있는 실현 가능태다.

‘이장’과 ‘안지야’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실행한다. “落第生”(380)이자 더 이상 “이쪽 땅에서는 살 수 없게 된 者”(383)로서, 세상에서 상징적 질서를 유목시키는 대신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한 것이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오택부’의 별장 동굴로 향하는데, 이는 “인간적인 자유가 없”(252)는 바깥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人間의 郊外”(372)로의 이탈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결혼을 약속하며 동침한 후 입구를 여닫는 문의 열쇠를 창살 밖으로 던져 세상과 격리되고, 결국 동굴이 무너져 죽음을 맞음으로써 세상의 질서로부터 상징적으로 해방된다. ‘이장’과 ‘안지야’의 결합과 죽음은 근친상간과 같은 원죄가 반복되는 현 세계에서 상징적 질서의 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現代人」이라면, 現代가 洞窟時代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했을 것”(147)이라 말하는 화자의 시점에서, 근대의 인간인 ‘이장’과 ‘안지야’의 죽음은 근대라는 지나간 시대의 인류의 벽화감에 걸맞은 비극적 유산에 다름

아닐 것이다. 한편으로 ‘이장’이 자신을 “바이론의 카인”의 “弟子”(356)에 비유한 순간부터 이러한 죽음은 예고된 것일 터였다. 바이론의 「카인」(1821)에 등장하는 카인은 악인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신과 기존의 가치관에 대항하는 개인주의적 영웅이자 낭만주의적 반항아다. 그는 원죄를 저지른 아담과 이브를 원망하며 인간의 부조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식을 추구하지만, 그 자신도 인간이었기에 결국 현 세상에 서 인간적 조건을 뛰어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²²⁾ 그러나 『원형의 전설』의 결말을 허무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까닭은 ‘이장’과 ‘안지야’의 죽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지는 것”(411)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꽃이 진다는 것은 곧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근친상간이라는 원죄를 반복하는 근대의 이브 ‘안지야’가 근대 비극의 “元兇”(389)으로 표현하며 동굴로 가지고 왔던 복숭아는 핵전쟁에 이은 빙하시대가 끝난 후 복숭아나무로 자라난다. 이는 “자기의 條件을 清算”(10)하고 난 인류, 즉 “인간적”에서 해방된 “인간”이 새로운 방식으로 존속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4차원”의 출현은 화자와 같은 신인류의 등장으로 현실화된다. 화자는 ‘이장’의 개인사와 한국전쟁기로부터 십여 년간 일어난 한반도의 사건들을 들려주며, 이 이야기를 “傳說”(11, 413)이라 명명한다. 이는 근대 인류와 핵전쟁 이후의 신인류 간에 존재하는 거리감을 보여주는 장치다. 이러한 거리감은 이 이야기가 먼 과거의 일일 뿐 아니라 신인류인 화자가 핵전쟁 이전의 세계관에 공감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즉 그가 살아가는 핵전쟁 이후의 시대에는 “세계가 自由와 平等, 이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던 시절”을 “人類前史”(5)로 구분하고 비판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만큼 달라진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장용학은 자유-평등, 자본주의-공산주의 간의 견고한 대립, 나아가 인간을 구속하는 합리성의 세계가 ‘근대’와 함께 종식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인류가 “자기의 條件을 清算”(10)하는 방식으로서 동서 양 진영의 핵전쟁으로 인한 세계 멸망과 신인류의 등장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한국전쟁을 경험한 남한에서는 당시 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어, 이

22) 이해경, 「연극적 인물로서의 카인 -중세 순환극 아벨의 살해와 바이론의 카인:신비극의 비교-, 『한국연극학』 제8권 0호, 한국연극학회, 1996, 259-284쪽 참조.

승만 정부가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1959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원자력원(原子力院)을 설치하는 등 원자력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²³⁾ 그러나 『원형의 전설』은 원자력 기술 도입을 국방의 차원에서 낙관하는 냉전적 이해를 전복시키고, 핵무기를 오히려 근대 인류의 종말을 야기하는 장치로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냉전 담론의 쟁투가 인류의 평화가 아닌 자멸을 가져오리라는 비판적 시선을 보여준다.

핵전쟁으로 말미암은 근대 세계의 종말로써 냉전을 종식시키는 『원형의 전설』의 결말은 냉전의 궁극적 원인을 미소의 패권 전략과 각국의 이해관계의 문제로 보아 치밀하게 분석하기보다, 근대 인간성의 문제로 소급해 이해하려 한 결과다. 『원형의 전설』 연재 후 장용학은 한 좌담에서 “새로운 인간형이란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으며 “이 작품에서 내세의 사람, 내세의 세계 같은 것을 가능한 대로 비”치고자 했다고 밝힌다.²⁴⁾ 화자가 작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 해도, 실제 작가는 근대적 언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근대의 사람이므로 화자가 위치한 탈근대적 미래 세계를 적확하게 구상할 수 없는 모순적인 입장에 있다. 그렇기에 화자가 살아가는 세상은 3차원의 인물이 4차원을 상상하듯 모호한 유토피아로 구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대 안에서 근대 밖을 상상하는 이러한 시도는 불분명한 전망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사고의 한계를 노출시킨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세계와의 분열 속에서 자기 동일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주체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작가가 무한한 시공간적 영역을 형상화할 수 있는 문학을 수단으로 삼아 근대를 사유한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작업이었다. 이는 반공을 제일의 국시로 삼는 경직된 이데올로기의 지배하에 있었던 당대의 상황 속에서 정치적 현실을 관념적 서사로 위장해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장용학 자신이 『원형의 전설』에서 “合理” 대신 “유일한 道德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想像力”, 그 “想像力이라는 羅針盤”을 가지고 근대 문학의 가능성을 “航海”(176)한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냉전의 한 진영에 속해 대립적 담론으로써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상황에서,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것은 곧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23) 이동원, 「1950년대 한국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기술 도입과 냉전적 변용」, 『역사문제연구』 제 43권 제0호, 역사문제연구소, 2020, 165쪽 참조.

24) 장용학 외, 「좌담」 뛰어 넘었느냐 못 뛰어 넘었느냐, 『사상계』, 1962.11, 282-284쪽 참조.

입힐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4차원”으로의 비약이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작가의 정치적 의도를 표면상 일부 희석해준다. 이러한 효과가 작가의 전략 또는 자기 검열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원형의 전설』의 난해한 결말이 지닌 현실적 함의와 전망에 대한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원형의 전설』에서 ‘자유’와 ‘평등’ 진영은 핵전쟁을 터뜨려 자멸함으로써 비로소 억압적인 “인간적” 조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냉전적 갈등이 근대 문명에서 초래되었다고 본 장용학에게, 인간 이성으로 분절된 개념들을 무효화하여 근대 문명의 병리적 문제를 초극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대 세계의 종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근대 세계의 종말에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국민적’ 조건으로서 강요하며 인간의 ‘자유’를 억압해온 국가 제도의 철폐가 포함되어 있다.

『원형의 전설』에서 ‘자유’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자유주의 또는 반공주의 진영에서 기치로 내거는 ‘자유’와, “인간”을 규정하는 근대 이성에 지배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다. 이때 전자는 자아의 자율성이 아니라 자유주의 체제가 보장하는 ‘자유로운 시민’ 계급을 성립시키는 공허한 수단일 뿐이다. 전자가 후자를 위협하므로 곧 “自由(전자)에의 길이란 奴隸化的의 길”(271)이라는 문제의식 위에서, 화자는 사회적 동물을 자처한 인간이 만들어낸 “制度”란 “하나의 자유를 위해서 百의 자유를 癡醉시키는 것”, “즉 自由를 위해서 자유를 죽이”는 처방이라 설명한다.(55) 이는 자유주의 진영의 표어로 굳어진 “自由”가 제도화되어 국가 체제의 형성과 작동에 기여함으로써 도리어 인류를 위협하게 된 데 대한 비판이다. 즉 냉전 체제하에서 남한 사회는 인간의 자유정신을 지배 담론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공산주의를 비인간적인 전체주의라 공격했으나, 그러한 자유정신은 반공주의적 맥락에서 활용되며 담론적 쟁투와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고 도리어 국민에게 고정된 합리와 이성을 강요했던 것이다. “現代人”은 “자유인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라는 “決斷 앞에 自由人으로 섰”다는(286) 『원형의 전설』의 핵심적 주장은, 이 소설에 포착된 냉전기 주체의 분열이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필연적인 단계임을 시사한다. 주체는 선형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성립에 타자의 언술이 작용한다는 사실, 국민을 국민으로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특정한 지배 담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나인가?”라는 질문이 가능해지며, 자유의 추구는 그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형의 세계』가 주장하는 “인간의 세계”를 자유라는 이름의 이념적 표어와 제도로부터 벗어나 인간 본연의 자유를 추구하는 아나키즘적 세계로 이해할 경우, 장용학을 정치적으로 아나키스트라 평가하는 선행 연구들의²⁵⁾ 견해는 타당해 보인다. 실제로 해방 이후 한국의 아나키즘 운동이 민중을 억압하는 국가 장치를 거부하고 미소의 제국주의와 한반도 침탈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은²⁶⁾ 『원형의 전설』의 제도 비판과 맥락을 같이한다. 인간을 억압하는 국가의 권위 및 제도적 장치와, 바람직한 인간상을 규정하는 전체주의적 거대 담론에 반대한다는 점, 자유와 평등 개념의 대립을 의문시한다는 점²⁷⁾ 등은 『원형의 전설』의 아나키즘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아나키즘을 ‘무질서’를 추구하는 사상 또는 ‘무정부주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아나키즘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강권과 억압에 반대하는 사상이다. 화자는 “秩序는 救濟와 對立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이르려는 한 階段”이며, “秩序가 굳어져서 拘束이 될 때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救濟”가 될 뿐 “救濟를 위해서는 無秩序와도 同盟을 맺겠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한다.(220-221) 이렇듯 인간의 자유를 ‘무질서’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사회는 아나키 속에서 질서를 추구한다”는 프루동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²⁸⁾ 질서는 자발적으로도 확립될 수 있으며, 무질서는 권위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권위의 결과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²⁹⁾

25) 임헌영, 「아나키스트의 환가」, 『장용학 문학전집』 7권, 국학자료원, 2002; 최성실, 앞의 논문; 한점돌, 앞의 논문.

26) 해방 이후 한국의 아나키즘 사상에 대해서는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315-354면을 참조.

27) 아나키즘이 강조하는 자유는 고립된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자유, 즉 사회적 관계에 의존하는 자율성이다. 평등은 모든 사람이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므로, 아나키즘에서 자유와 평등은 대립하지 않고 서로를 전제할 때 제 가치를 다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된다. (하승우, 『아나키즘』, 책세상, 2017, 31-32쪽 참조.) 이러한 관점은 자유와 평등이란 “하나로 결합해서 서로 자기를 完成시키는 夫婦와도 같은 것”(10)이며 “自由 안에서의 平等, 平等 안에서의 自由라야 참다운 平等이고 참다운 自由”(11)라는 『원형의 전설』의 화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28) 프루동의 『소유란 무엇인가?』에 따르면, 아나키는 무질서의 동의어가 아니라 근대사회의 정치적 이상이다. “사회는 아나키 속에서 질서를 추구한다. 아나키에는 주인도 주권자도 없다.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정부의 형태에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다.” (장 프레포지에(이소희·이지선·김지은 역), 『아나키즘의 역사』, 이룸, 2003, 90쪽.)

29) 마르잘은 앙들레 탈랑드가 집필한 『철학 사전』의 ‘아나키’ 항목(①무질서, 권위 혹은 조직의 부재)을 검토하면서, 강제적 권위가 가진 특권이 오히려 무질서를 야기하고 증폭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장 프레포지에, 위의 책, 89쪽 참조.)

해방 이후 한국의 아나키스트들이 정치 운동과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 독자적인 아나키스트 정당 건설과 민주정부 수립 운동에도 참여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³⁰⁾ 『원형의 전설』에 나타난 아나키즘 정신은 오히려 아나키즘의 본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핵전쟁으로 근대의 조건들을 청산하는 과격한 방식은 일면 바쿠닌의 혁명 투쟁론을 연상시키나,³¹⁾ 『원형의 전설』의 핵전쟁은 창조를 위한 파괴라기보다 자멸이었다는 점에서 보다 비극적이다. 그보다 ‘이장’의 여정은 인간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을 통해 자신의 자유를 의식하며, 인간의 본질은 그의 본질이 없음에, 즉 그의 자유에 있다고 본³²⁾ 사르트르의 주장을 상기시킨다. 『원형의 전설』의 자유 추구는 투쟁을 통해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보다 개인의 자아의 문제로 침잠해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선택을 작가적 한계로 치부하기에는 어렵다. 양극적 냉전 구도 위에서 정부를 건설한 한국 사회에서, 국가 제도의 부정은 제3의 길의 모색이 아니라 공산주의에 찬동하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장용학은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며,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위해 부단한 투쟁을 전개해온 인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난제로 남아 있었다. 장용학은 완전히 비통제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궁극적인 자유란 개념적으로는 가능하나 존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

30) 해방 이후 한국 아나키스트들은 일차적으로 자주적 민주국가를 건설한 후 그 기반 위에서 아나키스트 사회를 건설한다는 단계혁명론적 입장을 취했다. 유림은 1945년 12월 5일 귀국회견에서 아나키즘이란 모든 정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이나 전제를 배격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하고,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로 번역하는 것에 반대할 바 있다. 국가 건설은 아나키즘 정신에서 일탈된 목표라 볼 수 있으나, 그의 일차적 목적은 한국인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외세 개입을 정당화하는 신탁통치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1946년 4월 23일에 개최된 전국아나키스트대표자대회에서는 노동자·농민의 조직된 힘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이에 한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전취하자는 슬로건 하에 아나키스트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작업이 전개되어 독립노동당이 결성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분단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에 투쟁하는 방식으로 지속되었으나 체제 내 개혁만을 추구했기에, 정당을 통한 정치 활동이 아나키즘으로부터 혁명성을 거세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운동편』, 지식산업사, 2015, 396-467쪽 참조.)

31) 사회주의적 아나키스트로서 혁명적 아나키즘 이론을 수립한 바쿠닌은 경제적·사회적 해방을 위한 혁명이 무자비한 전쟁과 같다고 여겼다. 막스 네틀라우가 소개한 바쿠닌의 한 서신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희망이라면, 그것은 바로 세계대전입니다. 대규모 군국주의 국가들은 앞으로 조만간 서로를 파괴하려 들 것입니다.”라는 언급이 발견되기도 했다. (장 프레포지에, 앞의 책, 103, 260쪽.)

32) 프란츠 짐머만(이기상 역), 『실존철학』, 서광사, 1987, 142-143쪽 참조.

지했다. 완전한 자유에의 끝없는 추구는 인간을 자유를 위해 끝없이 투쟁하는 존재로 전락시켜 도리어 “자유에 의한 존재의 소외”를 불러올 터였다.³³⁾ 그러한 자유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기치가 되어 인간을 구속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그는 『원형의 전설』에서 국가 외의 대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포스트 아포칼립스적 결말로 소설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개개의 독자들에게 핵전쟁 이후의 세계를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한다. ‘이장’이 경험하는 당대의 부조리한 현실은 사실적으로 묘사되기보다, 작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화자의 의식 서사와 교차되면서 비현실적 색채로 변형된다. “4차원”의 세계에 대한 ‘이장’의 주장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서사의 사변성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학에서 리얼리티란 경험적 현실 뿐만 아니라 사변을 통한 관념적 실재를 통해서도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형의 전설』의 관념적 서사는 근대 이성과 합리주의를 회의하게 된 당대인의 심리적 갈등과 고뇌를 오히려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며, 동시에 작가의 정치적 비판을 환상성으로 적절히 위장해내는 역할을 해냈다.

한국전쟁과 냉전을 바라보는 『원형의 전설』의 비판 의식은 무엇보다 인간을 구속하고 지배하는 일체의 것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이데올로기는 해체되어야 할 그 무엇”³⁴⁾이라 보았던 장용학의 시선은 국민을 규정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하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질문을 반복해야 했던 냉전기 주체들의 분열 양상을 포착하여 앞으로의 지향점을 『원형의 전설』에 담아냈다. 서구 포스트 구조주의가 합리적 이성에 입각한 ‘주체’ 개념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등장했으며 인간이 항상 자율적인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인식의 허구성을 철저히 파헤치고자 했음을 생각하면, 장용학이 냉전기에 새롭게 인식된 포스트구조주의적 주체 개념을 일정 부분 선취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형의 전설』은 단순한 관념소설이 아니라, 냉전기의 극심한 이념적 대립이 인간 주체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각성을 유도했음을 보여주는 당대의 문학적 반응의 하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33) 박창원, 「작가 인터뷰: 진정한 자유를 추구했던 휴머니스트」, 『요한시집 외』, 책세상, 2002, 307쪽 참조. 장용학과 박창원 평론가 간의 이 인터뷰는 「實存과 요한 詩集」, 『韓國戰後文藝作品集』, 신구문화사, 1963과 「테비작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까닭」,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1986 등을 참조해 가상으로 구성되었다.

34) 앞의 책, 312쪽.

4. 결론

미소 양 진영의 냉전이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으로 전화된 후, 한반도는 더욱 고착화된 냉전 질서에 의거해 남북 분단 체제를 구축했다. 남북한에서 한국전쟁은 비극적 민족상잔으로 기억되는 동시에 각기 강력한 반공·반미 이데올로기를 작동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상호보완적 기본 정신이었던 ‘자유’와 ‘평등’은 국가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동질적인 주체로 통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재맥락화되어 남한에서 자본주의,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뒷받침하는 이분법적 개념으로 분절되었다. 『원형의 전설』에는 그러한 냉전기 한반도의 모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이 소설은 한국전쟁을 단순한 남북한 간 내전이 아니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재편했던 냉전의 산물로 파악하며, 전후 한반도를 지배한 냉전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들추어 당대의 국민이 경험해야 했던 주체의 분열 양상을 포착해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원형의 전설』은 근대 인류의 멸망 후 등장한 신인류를 화자로 내세워, 한국전쟁을 세계사적 흐름 위에서 조망한다. 피냉전 국가였던 한반도에서 ‘자유-평등’과 ‘민족-계급’ 개념은 통치 권력의 패권 전략에 활용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각기 남한과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했다. 화자의 설명을 따라 살펴보게 되는 중심인물 ‘이장’의 삶의 궤적은 그러한 남북한의 지배 담론의 허위성을 폭로한다. ‘이장’은 현대의 비극을 표상하는 근친상간의 결과물이자 사생아로서, 출생부터 기성 가치 체계와 제도에서 벗어난 인물로 설정된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이장’이 남한과 북한을 오가며 친부를 찾고 자기 존재의 의미와 역사를 탐색하는 과정은 곧 인간을 규정하고 억압하는 한반도의 대타자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장’은 인간 주체가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지배 담론과 제도, 나아가 인간 이성과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 문명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둘러싼 상징적 질서 속에서 구성해온 자아가 실재하는 자신과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적 분열을 경험하며, 끝내 사회의 집단적 정체성에 종속된 주체이기를 거부하고 체제 밖을 지향하는 이방인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서사는

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에 불만을 느낀 주체가 기존 질서의 기원과 바탕에 물음을 던지는 히스테리 담론 형식을 취한다. 국민을 동질화하는 지배 담론에 동화되지 못했던 자들의 영역, 즉 냉전 체제의 잉여 지대를 형상화하여 냉전기 한국 사회의 균열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장’은 자신이 구성해온 사회적 정체성과 이데올로기적 자아의 허상을 깨닫고, 타자의 욕망이 아닌 자신의 본래적 욕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장’은 공산당 조직을 위해 자결을 강요하는 북한 당원이나 재산 및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오택부’에게 저항하며, 인간을 억압하는 타자의 언술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4차원”의 세계를 구상한다. 그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규정하는 “인간적”이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이분법과 같은 상징적 질서로써 왜곡되지 않은 본래의 “인간”을 지향하는 세계다. 이는 핵전쟁으로 인한 근대 세계의 멸망과 신인류의 등장이라는 결말로 현실화되며 독자에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상하게끔 한다. 한국전쟁과 냉전이라는 인류사의 비극의 원인을 근대 문명의 문제로 소급해 이해하며 “4차원”으로의 비약을 제시하는 추상적인 방식은 모호한 전망을 남기고 있으나, 이것은 한편으로 정치적 현실을 관념적 서사로 위장해 비판하고 당대인의 갈등과 고뇌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렇듯 위장된 서사 속에서 『원형의 전설』은 자유주의 진영의 기치인 ‘자유’가 곧 인간을 노예로 전락시키며 국가 체제의 형성과 작동에 동원하게끔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독자에게 인간 본연의 자유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을 일깨운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일체의 강권과 억압에 저항하는 아나키즘적 정신으로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원형의 전설』은 합리라는 명분하에 강요되어 온 지배 담론과 제도의 이면을 포착하고, 인간 주체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와 각성을 필요로 했던 냉전기의 문제의식을 문학적으로 승화한 작품이라 하겠다. 민족상잔과 그 후유증의 근원적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집필된 『원형의 전설』 이후, 장용학의 후기 소설이 점차 사실주의적 경향을 띠며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의식을 구체화하게 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또 다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 백 철, 「신인과 현실인식」, 『조선일보』, 1955.10.22.
장용학, 「나의 작가수업」, 『현대문학』, 1956.1.
_____, 「감상적 발언」, 『문학예술』, 1956.9.
_____, 『원형의 전설』, 사상계사, 1962.
_____, 「圓形의 傳說」, 그 후, 『문학사상』, 1973.11.
_____, 『요한시집 외』, 책세상, 2002.
_____, 『장용학 문학전집』 7권, 국학자료원, 2002
_____, 『장용학 소설선』, 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_____, 외, 「(좌담) 뛰어 넘었느냐 못 뛰어 넘었느냐」, 『사상계』, 1962.11.

논저

- 구현우, 「박정희는 시장주의자였는가?: 한국 보수주의의 정치적 기원과 그 한계」, 『행정논총』 제57권 제4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9, 129-163쪽.
권기호, 「두 주제의 충돌(1) -소설 「圓形의 傳說」에서」, 『어문론총』 제8권 0호, 한국문학언어학회, 1973, 57-67쪽.
권보드래, 「과학의 영도(零度), 원자탄과 전쟁 - 『원형의 전설』과 『시대의 탄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43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2, 327-363쪽.
김 현, 『김현 문학전집 2: 현대 한국 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1.
김상환·홍준기 편, 『라깡의 재탄생』, 창비, 2002.
김세나, 「장용학 소설의 주체 분열 양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용복,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관료」, 『역사비평』 여름호, 역사비평사, 1998, 125-139쪽.
김육동 편,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현암사, 1991.
류희식, 「장용학 소설 「원형의 전설」에 나타난 탈근대성」, 『한민족어문학』 제49권 0호, 한민족어문학회, 2006, 349-386쪽.
문장수, 「증상(symptom)의 존재론적 의미와 ‘의식’(ritual)」, 『칸트연구』 제37권 0호,

- 한국칸트학회, 2016, 205-236쪽.
- 박종홍, 「현대소설의 사회윤리의식 -<원형의 전설>과 <시장과 전장>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65-83쪽.
- 백원담·임우경 편,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문화과학사, 2013.
- 윤상기,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 고찰」, 『한국언어문학』 제39집, 한국언어학회, 1997, 521-543쪽.
- 이동원, 「1950년대 한국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기술 도입과 냉전적 변용」, 『역사문제 연구』 제43권 제0호, 역사문제연구소, 2020, 163-199쪽.
- 이혜경, 「연극적 인물로서의 카인 -중세 순환극 아벨의 살해와 바이런의 카인:신비극의 비교-」, 『한국연극학』 제8권 0호, 한국연극학회, 1996, 257-289쪽.
-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 _____, 『한국의 아나키즘-운동편』, 지식산업사, 2015.
- 장 프레포지에(이소희·이지선·김지은 역), 『아나키즘의 역사』, 이룸, 2003.
- 장혜경, 「『원형의 전설』에 나타난 원형적 심상과 그 비극적 세계관」, 『문창어문논집』 제16권 0호, 문창어문학회, 1979, 215-236쪽.
- 조정래, 「<원형(圓形)의 전설> 연구」, 『국제어문』 제16권 0호, 국제어문학회, 1995, 269-292쪽.
- 최성실, 「한국현대소설의 아나키즘적 특성 연구 -<용과 용의 대격전>, <원형의 전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7집, 한국현대문학회, 2005, 183-219쪽.
- 최용석, 「장용학의 『圓形의 傳說』 고찰 -작가의 현실의 인식을 중심으로-」, 『우리문학 연구』 제15집, 우리문학회, 2002, 381-406쪽.
- 최혜실, 「분단문학으로서 <원형의 전설>」, 『국어국문학』 제116권, 국어국문학회, 1996, 445-462쪽.
- 프란츠 짐머만(이기상 역), 『실존철학』, 서광사, 1987.
- 하승우, 『아나키즘』, 책세상, 2017.
- 한점돌, 「장용학 소설 연구 -장용학 문학의 생태 아나키즘적 특성-」,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3권 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349-372쪽.

토론문

김민선
가천대학교

김성은 선생님의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에 나타난 냉전기의 주체 분열 양상」은 한국문학에서 다소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가 장용학의 중편소설 「원형의 전설」을 주체가 보이는 분열의 양상에 주목하여 적고 있는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작가와 텍스트 모두 쉽지 않기에 오독의 여지가 있을까 우려되지만, 글을 읽으면서 생긴 궁금증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말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원형의 전설」의 중심인물 ‘이장’이라는 인물을 냉전 체제 하 한국 사회의 주체 유형의 한 상징으로 보고, 라캉의 주체 이론을 경유하여 이 인물의 주체 개념의 양상과 함의를 파악하고 계십니다. 특히 당시 한국 사회가 안정화하고자 하였던 패러다임과 질서 바깥에서 그 질서에 포섭되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잉여적 주체로서 ‘이장’을 파악하고, 이러한 서사가 히스테리 담론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8면)

헌데 남과 간첩이라는 ‘이장’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인물이 체제 바깥에 놓여 있는 잉여적인 존재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히려 자신의 출생과 기원에 관한 질문에 나름의 답을 구하기 위하여 냉전체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인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이 질문은 ‘이장’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 소설의 서사를 라캉의 주체 이론을 경유하여 읽었을 때에 ‘이장’이라는 인물의 상징성이 무엇으로 의미화되는가에 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냉전 체제 하에서 서로 다른 체제의 사회 혹은 공간을 오가며 근원을 추적하는 주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원형의 전설」의 주체를 읽어낸다면, 자연히 최인훈 소설 속

의 인물의 행보와 ‘이장’의 행보가 함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만약 ‘이장’을 체제 내에 포섭되지 못하는 떠도는 주체의 대표 혹은 상징으로서 읽어내고자 한다면, 체제의 균열과 내(외)부의 주체에 대한 문제의식에 주목하는 1960년대 소설들과 「원형의 전설」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는가도 궁금합니다. ‘이장’이 당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들)에 포섭되지 못하고 기원에 질문을 던지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체제를 부유하는 인물들과 ‘이장’은 어떤 면에서 다른 점을 지니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장’과 「원형의 전설」은 냉전 체제 하의 한국문학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선생님께서서는 ‘3.2. 최후의 심판과 자유’에서 4차원으로서 비약과 난해한 결말이 작가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당대인의 심리적 갈등과 고뇌를 오히려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며, 동시에 작가의 정치적 비판을 환상성으로 적절히 위장해내는 역할”(15)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상과 우화의 방식으로 냉전 체제 하의 당시 한국사회와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또다시 당대 사회의 ‘초극’과 ‘초월’의 의지로 수렴되지 않을까요?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덧붙여 결론에서 언급하신, 장용학의 후기 소설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라도 들려 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의 말미에서 장용학 후기 소설이 점차 사실주의적 경향을 띠며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의식을 구체화하는 변화를 보여준다고 있다고 적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장용학 소설이 환상의 방식으로 위장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이로써 가능했던 유의미한 관념의 실험이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질의지만, 현명한 답변을 주시면 배움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발표문을 읽는 과정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용의 「소인_{消印}」(1957)에 나타난 제3세계 모더니즘 연구

남 현 지
동국대학교

1. 들어가며
2. 김구용의 <인간가족전>(1957) 리뷰와 냉전 휴머니즘의 균열
3. 「소인_{消印}」(1957)에 나타난 서사의 방해와 냉전 이데올로기
4. 1950년대 제3세계 남성 지식인의 주체 인식
5. 나가며: 동양적 휴머니즘의 기획과 수금의식

1. 들어가며

제3세계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라는 지리적 장소를 넘어 냉전 하의 신생국들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선 정치적 상상이자 실천적 프로젝트로서의 함의를 가진다.¹⁾ 한국에서 ‘제3세계론’은 1970년대 백낙청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제3세계적 인식은 해방기에서부터 지속되어 왔다. 전지구적으로 비동맹운동이 고조된 1950-60년대 한국에서는 제3세계 개념이 반공주의의 시각으로 수용되었던 탓에 제3세계 연구는 70년대 이후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해방기의 전후 인식에 나타난 탈식민화 실천에서부터 제3세계적 인식은 존재했으며 1950년대 냉전문화 속에서도 제3세계에 대한 인식 역시 다양한 시각으로 전개되었다.²⁾ 물론 1950년대 한국의 제3세계적 인식은 반공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승만의 외교정책과 함께 아시아 반공국가의 선진성을 추구하고 있었고³⁾ 1950년대 중반 반동회의의 자극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국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중립 아시아’와 같은 반동 정신의 상상은 거

1) 비자이 프라샤드, 박소현 역, 『갈색의 세계사』, 뿌리와이파리, 2015, 13면.

2) 박연희, 『제3세계의 기억』, 소명출판, 2020, 16면. 50년대의 다양한 제3세계 인식에 대해서는 이 책을 참고할 것.

3) 박연희, 위의 책, 26면.

의 불가능했다.⁴⁾ 그러나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아시아에 대한 상상에는 코스모폴리탄적 감각과 제3세계적 인식이 접합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1950년대의 제3세계적 인식이나 탈식민적 주체의 모습은 해방기나 6-70년대 이후의 전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문학 텍스트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글은 1950년대의 시에서 제3세계적 인식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그 현실 인식과 시적 전략 사이의 관계를 재고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1950년대 시문학장은 흔히 전통서정과 모더니즘의 양분된 구도로 이해되어 왔으며, 모더니즘은 서구의 문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4.19 세대의 평가를 재생산해왔다.⁵⁾ 하지만 당시 신진이었던 김구용의 존재는 이러한 기존의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게 한다. 1955년 <현대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민족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신진으로 주목받았던 김구용은 전쟁과 함께 등단 초기 전통 서정시에서 벗어나 실존적 경향의 산문시를 연이어 발표하며 파격적인 시적 형식을 실험하고 있었다. 김수영이 “1930년대의 옥소독시컬한 슈르레얼리즘의 시”를 모방한 것⁶⁾이라고 명명하기 전까지 그의 시는 동양적 정신과 서양적 형식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엄청난 불일치”를 보이는 “현대 동양 시인”으로⁷⁾, 산문적인 형태와 현실 비판적인 내용으로 “도저한 해체 현상”을 보이는 시인으로 평가되었다.⁸⁾ 당시 <현대문학> 신인상의 심사평을 맡은 서정주 역시 그의 동양정신과 서구정신을 모두 가진 시정신을 높이 샀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⁹⁾ 김구용은 전통과 모더니즘이라는 50년대 시문학장의 경계에 의문을 던지게 하는 존재다. 그는 다른 50년대 모더니즘 시인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모더니즘의 특징인 부정성을 밀고 나갔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탈경계적 경향으로 인해 그의 모더니즘은 범주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동양적 정신을 견지하면서 시의 현대성에 대한 질문과 함께 서구의 모더니즘을 전유했던 시도를 보편적 모더니즘의 틀로 다시 소급해서는 안 된다.

4) 장세진, 「안티테제로서의 "반동정신(Bandung Spirit)"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1955-1965)」, 사이간SAI, 2013, 146면.

5) 김현, 「테로리즘의 문학」, 『문학과 지성』, 1971. 여름호.

6) 김수영, 「요동하는 포오즈들」, 『사상계』, 1964.7.

7) 천상병, 「현대 동양 시인의 운명-방법과 본질의 이율배반성」, 『현대시』, 정음사, 1958, 45-46면.

8) 김춘수, 「한국시 형태론」, 『김춘수 시론 전집1』, 현대문학, 2004.

9) 서정주, 「김구용의 시험과 독자성」, 『현대문학』, 1956.4.

모더니즘을 유럽이나 영미의 특정 사조로 국한시키거나 보편적 미학 형식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모더니즘 연구는 그와의 유사성을 확인하는데 그치게 된다. 모더니즘은 19세기 리얼리즘과 자연주의에 반발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활성화된 문학운동이라는 특정 사조를 넘어 리얼리즘, 포스모더니즘, 아방가르드 사이에서 갈등하는 역사적, 정치적 이론적 공간이다. 모더니즘은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주체에 대항하는 부정성의 미학으로 리얼리즘적 현실 반영과 달리 현실적 지배 논리에 대한 ‘방해 전략’을 그 정치성으로 삼는다.¹⁰⁾ 따라서 모더니즘의 부정성의 운동은 시공간적으로 그 모습을 달리하며, 제3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다양한 전유를 통해 그 정치성을 보여주었다.¹¹⁾ 이 시기 남한의 모더니즘은 서구 추종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서구 문학 수용을 통한 현대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민족문학이라는 주체화의 과제와 더불어 균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¹²⁾ 하지만 문학 담론이 아닌 모더니즘 작품에서 그 균열의 지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과 모더니즘의 양분화된 구도를 넘어서 새로운 시적 실험을 시도한 1950년대 김구용의 작품들은 50년대 모더니즘의 다양한 지형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중에서도 김구용의 대표적인 난해시로 손꼽히는 「소인」의 경우, 그간 보편적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던적 사유를 드러내는 시각으로 연구되어 그가 강조한 현실 인식의 구체성 역시 소거되어왔다는 점에서 새롭게 읽어낼 필요가 있다.¹³⁾ 이 글은 김구용의 현실 인식이 1950년대 당시 아시아 반공주의 담론을 내면화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탈식민적 사유를 동시에 내장하고 있었으며, 이를 시의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동시에 보여 주려한 시적 실험으로써 「소인」을 제3세계 모더니즘의 한 형태로 본다. 이를 위해 「소인」의 분석에 앞서 같은 해 발표한 <인간가족전> 리뷰 글을 통해 당시 그의 제3세계적 인식을 먼저 검토하려 한다.

10) A. 아이스테인슨, 임옥희 역, 『모더니즘 문학론』, 현대미학사, 1996, 참조.

11) 니컬러스 브라운, 김용규·차동호 역, 『유토피언 제너레이션』, 현암사, 2021, 8면.

12) 손자영,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론 연구」, 이화여대 박사 논문, 2012, 참조.

13) 김구용, 「소인」, 『김구용 전집1-시집』, 서울출판사, 2000, 183-221면. 이하 「소인」 인용시 본문에서 괄호 안에 숫자를 넣어 표기한다.

2. 김구용의 <인간가족전>(1957) 리뷰와 냉전 휴머니즘의 균열

1950년대 중반 뉴욕 미술관이 주최하고 미국 공보처가 주관했던 대규모 순회 사진 전시회 <인간가족전>이 1957년 서울에서 개최되자 조선일보는 사진과 함께 문인들의 감상을 몇 차례에 걸쳐 연재했다. 김구용은 당시 정태용, 오상원, 전봉건, 박용구 등과 그 기획에 참여해 작품 리뷰를 남겼다.¹⁴⁾ 당시 연재된 글들은 모두 사진전의 주제인 인류애와 그 기반으로써 인간의 보편적 범주를 발견하고 예찬하는 전형적인 휴머니즘 담론을 보여주고 있으며 김구용 글 역시 다른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탄생’이라는 인간사의 범주를 통해 인간의 생명을 신화화하고 있다.¹⁵⁾ 그가 전시회에서 주목한 사진은 와이네 밀러(Wayne Miller, USA)의 작품 <Birth>로, 백인 남성 의사가 막 태어난 신생아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었다. 아직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신생아를 두고 김구용은 생명의 존귀함과 전 인류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고 예찬한다. 하지만 과장된 생명 예찬 사이에 ‘나라’와 ‘국경’이라는 단어가 이질적으로 삽입되면서 이 글은 일관된 중심을 갖지 못하고 난삽해진다. 돌연 신생아의 첫 울음소리가 “어느 나라의 언어도 아니”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 울음은 “너나 할 것 없이 석가도 결인도 기독교도 집정자도 죄수도 과학자도 누구나 다 애초에 외쳤던 그 소리며 그 말씀”이기 때문에, 갓난아이는 “아직 국경을 모르는 탐욕과 살의를 모르는 순수한 인간”이자 이 “세상”의 상징이 된다. 결국 국경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성으로써 생명이라는 자연성의 강조는 동시에 그 범주의 불가능성을 지시한다. 아이가 순수한 인간인 것이 국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어느 나라의 언어도 쓰지 않기 때문이라면, 국가의 경계를 인식하거나 수용하는 순간에 ‘세계’ 혹은 ‘순수 인간’이라는 보편적 인간의 신화는 붕괴되고 만다. 이 균열은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문화적 진입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언어를 배우는 순간에 일어나는

14) 김구용, 「탄생」, 《조선일보》, 1957.4.23. 4면.

15) 임지연은 당시 조선일보의 <인간가족전> 리뷰 연재를 코스모폴리탄 담론으로 조명하면서 1950년대 후반 한국인들이 세계사적 개인이라는 표상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계적이고 인류적 차원에서 상상하게 된 계기로 제시한다. 임지연은 주로 전봉건의 글을 근거로 논지를 전개하고 김구용의 글은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임지연, 「1950년대 시의 코스모폴리탄적 감각과 세계사적 개인주체」, 『한국시학연구』, 2012.

것으로, 보편적 인간의 신화와 국가의 경계라는 모순적 관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인간가족전(The Family of Man)>은 1955년 뉴욕 현대미술관이 몇 년간에 걸쳐 세계 사진가들의 사진을 수집해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슬로건 아래 분류한 20세기의 기념비적인 전시였다. 미국에서의 성공과 함께 해외 순회전시가 이루어졌는데, 전시의 내용은 인간 군상의 사진을 통해 ‘인간 가족’으로 관람객을 초대하고,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인간사’ 단계를 거친 후 ‘수소폭탄 폭발’ 사진과 상상적 유토피아의 서사로 끝나는 구성으로 기획되었다. 당시 파리에서 이 전시회를 본 롤랑 바르트가 ‘역사’를 ‘자연’으로 대체한 신화라고 비판했던 것처럼 <인간가족전>은 인류의 역사 대신 다큐멘터리 사진의 객관성이라는 담론 위에서 사진을 보편적 언어로 전제하고 인류는 하나라는 휴머니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이 전시는 당시 냉전 하의 미국이 국가 이데올로기로써 아메리카니즘을 형성하며 세계를 주도하려 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족’은 미국의 전통적이고 이상적인 가부장적 가족을 세계의 가족들에 적용시키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미국에게 가부장적 권위를 부여하는 메타포로 기능한 범주였다. 결국 <인간가족전>이 내세운 인간의 보편적 서사의 주체는 미국이었고 냉전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화해와 희망의 메시지로 제시된 ‘하나의 세계’는 아메리카니즘에 다름 아니었다.¹⁶⁾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구 제국주의와 달리 휴머니즘, 인권, 민주주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며 대외정책을 관철시켜 나가기 시작한다.¹⁷⁾ 보편적 이데올로기로서의 휴머니즘은 곧 냉전 체제 경쟁과 함께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되었고, 복잡한 국제 정치 하에 놓여 있던 한국사회에서도 휴머니즘은 보편적 이념으로 작동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갈등을 노출시키는 모순된 개념이기도 했다. 한국 문학장에서 휴머니즘은 1930년대 카프 계열 논쟁에서 계급과 인간이라는 대립항을 구성하며 문체적 개념이 되었다. 이후 1940년대부터 김동리, 조연현 등에 의해 휴머니즘은 우익 문단의 순수

16) <인간가족전>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였다. 김나정, 「『인간가족 The Family of Man』 전의 이면-아메리카니즘의 정치적 선전」, 『현대미술사연구』, 2008, 참조.

17) 황병주에 따르면 뉘른베르크와 도쿄의 전범재판에서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새로운 국제법이 제시되고,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 의해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면서 미국이 내세운 휴머니즘과 인권은 국제정치的重要한 기준이 되었으며 적대세력을 비인간적 존재로 그려내는 담론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황병주, 「냉전체제하 휴머니즘의 유입과 확산」, 『동북아역사논총』, 2016, 356-359면.

문학론의 중심논리로 구축되었고 전쟁을 거치며 1950년대 남한 문학장에서는 반공이 데올로기와 결합한 강력한 이념으로 기능했다.

하지만 동시에 1950년대 남한 문학장에서 휴머니즘은 반공이데올로기 속에서도 그 보편적 이데올로기에 내재된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갈등을 노출시키는 계기이기도 했다.¹⁸⁾ 김구용 역시 휴머니즘을 표방하면서도 ‘동양-정신/서양-물질’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위에서 서구의 물질문명이 낳은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인류의 대안으로 동양의 정신문화를 강조했다. 아시아 작가들의 교류를 제안하는 글「빛은 동쪽으로부터」에서 동양은 “아시아 반공 제국”으로, 그가 교류를 열망하는 아시아 작가들의 범주에는 공산주의에 물든 옛 중국 작가들 뿐 아니라 서구 문화를 모방하려한 일본도 제외된다. 자유 중국이나 필리핀, 버마, 태국과 같은 아시아 반공 국가를 알아가야 한다고 호소할 때, 동양과 대립되는 서양은 인도 등 아시아 국가를 식민화했던 영국과 같은 구 제국, 그리고 아시아를 넘보는 공산국가 소련으로 구체화된다.¹⁹⁾ 하지만 김구용이 아시아를 식민화 한 적 없는 세계 반공 네트워크의 중심인 미국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전쟁 전 『LIFE』지를 통해 여순 사건 사진을 보았다는 한 일기에서 그는 시체들의 참혹함과 함께 그 광경을 측은하게 굽어보는 미군의 시선을 대비시킨다. 미군의 시선은 몇 페이지 뒤의 미국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함께 각인되는데, 그에게 미국은 우방이라기보다 대타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²⁰⁾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그의 글에서 미국이 등장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김구용은 미국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미국은 그의 글에서 가장 강렬한 타자로 제시되는 ‘서양’이라는 표상 속에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거나, 다른 여타의 제3세계 국가들 사이에 사소한 존재로 왜곡되어 나타난다.

김구용이 <인간가족전>에서 주목했던 사진은 아이가 탄생했다는 기의를 제외하면 이미지로써 ‘인류의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진 프레임에 의해 절단된 수술 장갑을 낀 여러 개의 손, 양수가 닳이지 않아 미끌거리는 신생아의 신체

18) 가령 김동리는 해방기부터 휴머니즘과 순수문학, 민족문학을 서로 환원되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1954년의 「『휴머니즘』의 본질과 과제」에서 서구-근대로 역사화된 ‘근대 휴머니즘’을 현재 인류가 봉착한 문제의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산주의, 모더니즘 미학, 신을 살해한 서구 사상을 휴머니즘에 반하는 ‘괴물’로 설정한 이 글은 서구의 ‘휴머니즘’을 역사화함으로써 ‘서구-근대’에 대비하여 휴머니즘의 보편적인 이념을 ‘동양-현대’로 전유하는 시도이다. 김동리, 「휴머니즘의 본질과 과제」, 『현대공론』, 1954.9.

19) 김구용, 「빛은 동쪽으로부터」, 『김구용 전집 6-인연』, 서울출판사, 2000, 406면.

20) 김구용, 『김구용 전집 5-구용일기』, 서울출판사, 2000, 155면.

이미지는 무표정한 얼굴과 함께 인간이라기보다 오히려 인형처럼 느껴진다. 마네킹처럼 보이는 여러 개의 손에 둘러싸여, 짐작컨대 미국인일 백인 남성 의사에 의해 거꾸로 들려진 신생아의 사진은 생명보다 오히려 차가운 권력의 알레고리로 작동한다. 김구용은 같은 글에서 사족처럼 두 명의 아이를 낙태시킨 한 가정의 이야기를 전하며 “귀여운 생명을 무참하게도 뱉어버리는” 세태를 비극으로 개탄하는데, 이 사진에서 의사에 의해 들려진 신생아를 ‘신생’ 주권국가 한국과 겹쳐 보았다면 왜 그가 이 사진에 대한 글에서 ‘국가’라는 단어를 강조했는지 납득할 수 있다. 이미지가 생명이라는 자연적 관념과 사진에 나타난 권력 이미지를 통합시키는데 실패하고 미국이 갖는 권력의 위치를 상기시킬 때, 미국이 표방하는 휴머니즘이라는 보편적 범주는 교란되고 재인식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Birth>(1946), Wayne Miller, USA

3. 「소인淸印(1957)」에 나타난 서사의 방해와 냉전 이데올로기

서울에서 <인간가족전>이 개최되기 두어 달 전에 김구용이 발표한 산문시 「소인」은 단편 소설에 해당하는 긴 분량과 산문적 형식 등 당시 문학장에서 시의 형식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50년대의 문제작이다.²¹⁾ 또한 이 시는 김구용의 대표적인 난해시로도 손꼽히는데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구금된 화자의 사건 회고라는 서사적 구조를 가지면서도 현재와 과거, 실제와 환상을 오가는 시공간의 혼재된 서술방법으로 인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²²⁾ 「소인」의 내용은 ‘녹빛 외투를

21) 당시 「소인」에 대한 김춘수와 유중호의 평론은 시의 형식적 문제를 두고 대립된 견해를 보였다. 남현지, 「1950-60년대 난해시 담론 연구: 김구용 시에 대한 비평적 쟁점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2019, 54-62면, 참조.

22) 김양희는 이 시의 난해성은 환상과 현실의 구분의 모호함과 더불어 ‘과거-현재’의 시제가 동일하게 과거형으로 제시되어 구분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선형적 질서가 사라진 서사에서 실제와 비실제의 중간 지대에 놓인 현실은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이 된다. 김양희, 「김구용 시의 환상성 연구 - <소인淸印> (1957) 연구」, 『한국언어문화』, 2013, 36면.

입은 여자'를 살인했다는 혐의로 출근길에 체포되어 구금된 '나'가 취조관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죽은 여자와 만났던 그날을 떠올리는 진술과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나'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뿐 입증하지 못하고 결국 혐의를 벗지 못한 채 '수인'으로서의 삶을 수용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시의 난해성은 시에 서사의 형식을 도입하고 동시에 그 서사를 무너뜨리는 방법론에서 발생한다. 살인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심 서사이지만 '나'의 회상이나 내면을 서술할 때는 현실과 환상이 혼재되면서 오히려 사건의 진실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로즈메리 잭슨에 따르면 환상은 현실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해 현실의 질서 구축을 방해하고 교란시키는 '실재에 대한 심문'이다. 환상은 현실의 질서를 상대화시켜 그것이 자의적이며 전환 가능한 구성물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를 우연적이고 원인이 부재한 존재의 경험으로 이끈다.²³⁾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소인」의 환상 또한 서사의 구축을 교란시키며 현실을 상대화하고 그 자의성을 드러내준다면, 그 정치성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는 지시체를 거듭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교란시키고자 하는 현실의 구체적 인 내용이 될 것이다.

「소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시에 나타나는 초현실주의적 특징이나 주체의 모더니티 경험, 탈근대적 실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²⁴⁾ 그러나 김구용의 시를 초현실주의의 영향으로 파악한 김수영의 평가가 문학사에 각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구용 자신은 일찍부터 자신을 초현실주의자들과 구별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

23)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 문학동네, 2001, 33면.

24) 박동숙은 「소인」에 나타난 '타자-되기'에 주목해 주체의 탈근대적 실천을 분석했다. 박동숙, 「김구용(金丘庸)의 텍스트 「소인(消印)」에 생성된 욕망의 계열화(系列化) 양상」, 여문연구, 2011; 송승환은 「소인」의 형식과 환상을 보들레르와의 비교를 통해 모더니티의 충격에서 기인한 외상이자 욕망으로 보고, 기존 서사로 불가능했던 파편적 세계를 묘사하고 동시에 구제하려는 시도로 분석한다. 송승환, 「김구용 산문시 연구 1」, 『어문론집』, 2012; 김양희는 「소인」의 환상성에 주목하여 이 환상들을 전쟁 후 부정적인 현대의 경험을 드러내는 표현 양식으로 보고 있으며, 시에 나타난 현실적 장소 표상은 최소한의 지시대 역할로 이 작품의 토대는 현실이 아니라 그 환상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김양희, 앞의 글; 이수명은 시에 나타난 '나'의 반복과 강박에 주목해 무기력한 주체의 수금의식이 50년대 박인환이나 조항과는 다른 초현실주의의 미학을 전개했다고 보았다. 이수명, 「김구용의 「소인(消印)」에 나타난 수금의식(囚禁意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013; 그 외 초현실주의 계보, 주체-타자의 관계, 시간의식 등의 주제로 김구용의 다른 시들과 함께 이 시를 다룬 논문은 다음과 같다. 장인수, 「한국 초현실주의 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6. 이숙예, 「김구용 시 연구-타자와 주체의 관계 양상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논문, 2007, 김명민, 「김구용 시 연구: 시간의식과 타자성을 중심으로」, 인하대 박사논문, 2021.

다.²⁵⁾ 김구용은 이 당시 서구 모더니즘의 모든 선언이 자가당착으로 귀결되었다고 보고 1차 대전에 일어났던 ‘다다’와 ‘초현실주의’ 조류를 국내 문단에서 쫓아가는 현상을 비판했다. 그는 당시 초현실주의를 유효성이 다한 서구의 운동이자 ‘무의식적 배합’이라는 기법에 한정시켜 이해하고 자신의 시를 ‘의식적 배합’의 시로 변별하고 있었다. 자신의 시적 특징은 초현실주의의 영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난해한 현실 인식에서 기인하는 현대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대에서는 “재래의 일반적 관념과 이론으로 분별할 수 없으리만큼 모든 사물은 변모”했고 그러한 난해한 현실을 이해했기 때문에 “시의 심도와 중압은 난해성으로 나타난다”. 초현실주의와 유사할 수도 있을 “이질적 심상 또는 물상을 배합”하는 시의 효과는 김구용에게는 동양에서 “생성의 묘리”를 깨닫는 방법론이다. 그는 초현실주의와 같은 무의식적 방법론과 자신과 같은 의식적 방법론으로 시정신을 다시 나누며 자신의 방법론이 현실 인식에 근거한 의식적인 것임을 강조했다.²⁶⁾

물론「소인」에서도 “강박 관념”이나 “강박 환상”과 같은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을 볼 때 당시 프로이트 저서의 최초 번역과 함께 문학장으로 유입된 정신분석학의 영향은 부정할 수 없다.²⁷⁾ 초현실주의 역시 프로이트의 영향 하에서 전개된 것이니 만큼 김구용 시에서 초현실주의와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를 초현실주의로 읽으려는 시도가 그 기법의 유사성을 확인하거

25) “그의 시의 비평을 쓴 김 시인의 잠재의식이 1930년 전의 앙드레 브로통의 것인지는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모더니티의 문제」에서 필자가 한 말은 쉽게 말하자면 퇴색한 앙드레 브로통을 새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리를 하지 말고 솔직하게 분수에 맞는 환상을 하라는 말이다.” 김수영, 「문맥을 모르는 시인들」, 『김수영 전집2 산문』, 민음사, 2018, 421면. 여기서 ‘그’는 전봉건, 김 시인은 김구용이다.

26) 김구용, 「눈은 자아의 창이다-시를 위한 노트」(1957), 『김구용 전집 6-인연』, 숲, 2000.

27) 「소인」에 나타나는 정신분석학적 영향은 당시 프로이트의 번역 및 문학장의 수용과 관련된다. 작품이 발표되기 전년도인 1956년은 백상창에 의해 프로이트의 저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역되었고 유석진에 의해 프로이트와 반프로이트 학파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소개가 몇 차례에 걸쳐 신문에 연재되는 등 남한에 본격적으로 프로이트가 유입되는 해기도 했다. 유석진이 1957년 시비평가협회 주최의 모임에서 ‘이상의 정신세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는 기록을 보아 당시 문학계에서도 프로이트 이론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이트는 1920년대부터 주로 문학장을 통해 한국에 소개되었는데 1926년 임화의 「정신분석학을 기초로 한 계급문학의 비판」에서 프로이트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30년대 역시 주로 예술론에서 프로이트가 인용되었으며 1939년 『인문평론』의 ‘프로이트의 업적’ 특집에서 김기림과 최재서 등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소개했다. 당시 한국의 프로이트의 수용과 관련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이정민, 「한국의 프로이트 이론 수용 양상 연구: 일반 이론과 특수 이론 개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7.

나 유럽의 초현실주의와 공유하는 근대성 비판을 시에서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1950년대 남한 시문학장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경향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동양 정신의 계승을 자처했던 김구용에게 있어 시 형식의 문제는 서구적 현대성의 추종일 수도 없었고 현대시와 현실과의 관계로부터 촉발되는 것이었다.

「소인」에서 서사 구조를 도입하고 다시 붕괴시키는 이중적 장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총체적 인식의 시도와 그 실패를 동시에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 시의 특징은 자기 서사가 주체의 내면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용의자로 수감된 화자가 취조에 따라 사건이 있었던 날 밤의 이야기를 진술하려는 시도가 시의 형식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내가 살인을 했다는 잠정적인 ‘법의 서사’와 이를 부정하며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나의 서사’가 함께 진행된다. 이 이중의 서사는 현실 인식의 요구가 외재적임을 보여주는데, 이는 서사 구성의 요구가 주체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법의 서사 요구가 폭력적으로 선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폭력으로 인해 법이 구성하는 서사의 기획 안에서 ‘나’는 환상을 개입시켜 자신의 서사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강요된 서사적 층위와 서사의 불가능성을 폭로하는 층위, 이는 상징적 질서가 구성한 서사가 그 자체로 독립되고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수용할 수 없는, 그러나 동시에 그 서사에 대항할 수 있는 자기 서사를 구축하지 못한 교착상태에서 주체가 보여주는 균열이다. 이 현실 인식의 교착상태는 텍스트 내에서 법의 서사와 그 서사에 대한 ‘나’의 부정으로 반복된다. ‘나’는 ‘녹빛 외투를 입은 여자’와 죽기 직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시신이 다음날 ‘나’의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녀의 소지품에서 ‘나’의 직장과 이름이 쓰인 메모가 발견되었다는 정황을 근거로 법적인 살인 용의자가 된다.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그날 밤의 서사는 전차에서 여자의 전차표를 대신 내어주고 환승지에서 여자의 청으로 다방에서 차를 한 잔 마신 만남이 전부이며, 그녀가 사례를 하겠다고 주소를 원했기에 자신의 직장과 이름을 적어주었던 것뿐이다. ‘나’에게는 그녀의 죽음과 자신과의 관계가 인과를 갖지 않는 우연이지만 이 우연은 취조관에 의해 필연으로 구성되는데, ‘나’는 그 우연성이 우연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력하다. 이 시에서 취조관이나 형사가 내세우는 법의 논리는 이미 준비된 서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폭력으로 제시되고

화자는 그 서사를 부정하는 진술로 대항한다. 이 서사의 균열은 모더니티의 충격으로 인한 외상과는 다르다. 모더니즘에서 총체적 인식의 불가능이 서사를 파열로 이끈다면,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외재였다”는 자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 인식의 요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처음부터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재적 요구에 의해 구성되는 자기 서사는 이미 존재하는 법의 서사로부터 자율적일 수 없으므로 그 부정의 방법은 주체 역시 교란시킨다. 이 시에서는 ‘나’의 살해여부가 모호하게 처리되는데, ‘나’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살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만약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죽음 충동이나 강박관념의 실현처럼 무의식의 영역일 것이라는 암시가 계속 주어진다. 이 시에서 반복되는 강박은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화자가 직접 의식하고 있는 강박으로 ‘나’가 말한 자신의 “강박 관념”과 “강박 환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는 취조관에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느껴지는 불안과 같은 평소의 “강박 관념”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사건이 일어난 밤만큼 공연한 “무서움증”이 든 적은 없었다고 말한다. 이는 자신의 강박적 불안의 실현이 여자의 죽음으로 나타났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로, 프로이트가 말한 ‘언캐니(두려운 낯성)’의 전형적 사례를 보여준다.²⁸⁾ 취조관은 이를 살인은 했지만 살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되묻는데 ‘나’는 이때부터 그가 자신을 정신병자로 보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시는 그날 밤의 전차를 “괴물”로, 승객들은 “유령”으로 이미지화하며 익숙한 것을 낯설고 두려운 것으로 만드는 ‘언캐니’한 감정을 고조시킨다. “강박 환상”은 시의 도입부에 나오는 거미 죽이는 꿈이나 하숙집 소년이 나비 죽이는 모습을 보던 쾌감의 기억과 관련된 것으로 역시 이유 없는 살해의 충동을 의미한다. ‘나’는 자신이 처한 현실의 원인을 주체 안에서 찾지 못하기 때문에(혹은 찾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 보편의 ‘무의식’이라는 대체 원인

28) 지그문트 프로이트, 「두려운 낯성」, 『예술, 문학, 정신분석』, 정장진 역, 열린책들, 2020. 프로이트가 1919년에 발표한 「Das Unheimliche」의 개념으로 영어로는 ‘uncanny’, 한국어로는 ‘두려운 낯성’으로 번역되었다. 프로이트는 이 개념이 완전히 낯선 것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친숙한 것이 낯설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강조하는데, 친숙함과 낯성 사이의 경계가 교란되는 정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원래 존재하던 범주를 재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범주화의 불완전함을 가리킨다. 프로이트는 언캐니의 원인을 거세 콤플렉스로 설명하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마크 피셔는 『기이한 것과 으스스한 것』에서 친숙한 것이 낯설어지는 것은 외부 세계의 침입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때 외부세계는 자본주의의 추상적 힘으로 정의된다. 마크 피셔, 안현주 역, 『기이한 것과 으스스한 것』, 구픽, 2019.

을 찾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것은 ‘이유 없음’이다. ‘나’는 자신의 강박이 자신을 운명지었다는 운명강박과 이유 없는 살해 충동의 강박적 이미지를 되풀이하면서 ‘이유 없음’을 증폭시킨다. ‘나’가 항변한 무죄의 근거도 그 여자를 살해 할 어떤 인연도 없다는 것 뿐이다. ‘나’는 단지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다는 우연에 의해 용의자가 되었을 뿐이다. 시가 전개될수록 화자는 자신의 무죄에 대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죄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여자를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인정만으로도 수인의 삶을 받아들인다. 이 시를 지배하는 ‘이유 없음’에의 강박은 설사 ‘나’가 그녀를 살해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원인을 우연이나 주술, 인간 본성의 죽음 충동으로 구성하게끔 의도적으로 이끈다. 하지만 거미나 나비의 살해에서 느끼는 이유 없는 쾌락과는 달리, 그날 ‘나’에게는 여자를 살해할 수도 있었을 사회적인 계기가 시에 드러나 있다. ‘나’는 미국으로 시찰 가는 보통학교 시절 동창의 환송회에 참석했지만 동창은 자신을 무시하고 여자들에게만 시선을 보냈다. 그 모임은 “나만을 차별하고 모욕한 그들의 교양 없는 연애 환송회”로 “나는 거지처럼 고급 양주와 특별 요리를 입에 쑤서 넣으며, 춤을 추는 그들을 경의(敬意)로써 멸시”해보았지만 모욕감을 떨칠 수는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나와 “분노의 화염”으로 넘실거리는 거리를 취한 채로 걷다가 전차에서 ‘녹빛 외투의 여자’와 만났던 것이다. 그 여자 역시 오만하게 ‘나’를 고용인 대하듯이 대했지만 ‘나’는 그녀의 본성이 천하며 애써 귀족적인 것을 모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눈치 챈다. 또한 ‘동양 무역 주식 회사’라는 ‘나’의 직장명을 알려주자 여자는 그것을 확인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눈초리로 변한다.

녹빛 외투 여자는 나의 속을 뽑고야 말 듯이 국제 항공 우편 봉투를 인조 악어 가죽 백에서 내놓으며 쓰라고 하였다. 나는 아량과 피신책으로서 서슴지 않고 그 봉투에다 직장인 동시에 기실 유명무실한 동양 무역 주식 회사의 소재처와 나의 이름을 써주었다. 너 나 없이 험잡꾼들은 호주머니에 단돈 백 환이 없어도 단별 영국제 양복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동양 무역 주식 회사 전체가 사기배라고 고백한대도 놀랄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물론 녹빛 비단 암컷 뱀에게 이러한 내색을 보일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내용의 가식과 뜻 아니한 수금(囚禁)이 동시에 우연의 차 한 잔으로써 형성되리라고는 생각마저 못한 일이었다. 이유도 없이 유한(有閑)한

녹빛 암컷 뱀은 국제 항공 우편 봉투에 적힌 글씨를 보더니 금세 나를 멸시하는 눈초리로 변하였다. 나는 기대했던 효과를, 즉 냉각화한 반응을 보았으므로, 그것은 벌써 내부의 비바람을 증명한 것이기에 재미있었다. 나는 취한 때문인지 깨뚫어 보았기 때문인지 “너도 나 같은 인간이로구나” 생각하고, 녹빛 외투 여인을 외면하였다.(201-2)

이 서술 직후에 여자의 죽음을 암시하는 환상이 전개된다. 다방 어항 너머 유리벽에 새겨진 세 처녀가 그 여자의 녹빛 외투를 벗기는 환상 속에서 여자는 죽었다가 다시 눈을 뜨고, 나는 웃으면서 그녀와 다방을 나와 헤어진다. 그녀가 ‘나와 같은 인간’임을 확인한 후에 죽음의 공간이 펼쳐진다는 것 역시 전형적인 분신 모티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가 여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미국으로 시찰 가는 동창의 환송회에서 받았던 모멸감에 뒤이어 ‘녹빛 외투 여자’가 나의 직장명을 보고 보여준 멸시의 태도, 그로 인한 분노의 강렬한 감정이 살해의 계기로 납득될 만큼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음’의 강박을 반복하면서 이 동기를 부인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시에서 ‘나’가 반복하고 있는 ‘이유 없음’의 강박은 그날 자신이 받은 모욕에 대한 감정의 억압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미국-국제-동양의 관계 속에서 ‘나’는 탈식민적 남성 주체의 콤플렉스를 강렬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무의식’이나 ‘이유 없음’의 강박으로 자신을 억압하고 있고 있는 것이다.

을 것은 오고야 말았다. 취조관은 “그 여자의 주소와 신분은 완전 불명인 만큼 오열인지 모른다”고 하였다. 나는 그 말에 아연하였다. 그러나 그는 “네가 불온 사상이 아닌 것은 증명되었다”고 하였다. 아무 말도 들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기력을 잃고 있었다. 침묵은 상식 이하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으며 취조관은 그 이상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았다.(216)

취조관은 마지막 대면에서 죽은 여자가 “오열(간첩-필자)인지 모른다”고 전하며 “네가 불온 사상이 아닌 것은 증명되었다”고 말한다. 법의 서사의 뒤에는 냉전의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있었고 나의 서사는 불온한 것이 아닌지 검열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전까지 자신이 곧 풀려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나’는 취조관의 말에 저항할 기력을 소진한다. ‘나’가 강조한 무의식과 이유 없음의 강박은 강력한 냉전 이

테올로기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이다. 탈식민적 주체의 서사를 전면화할 수 없는 냉전 문화 속에서 주체는 보편적 무의식의 장소나 우연을 강조하고 자신의 감정을 부정함으로써 파편화된 상태로 자신을 기입했다. 하지만 서사의 파괴는 주체의 무력함으로 귀결된다. ‘나’는 결국 취조관의 말에 굴복한다. “권위 있는 박사가 검진한 그 시체의 원인은 네 마음속에 있다”는 터무니없는 범의 서사를 수용하고 자신이 여자를 마음으로 이미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죄의식을 내면화한다.

4. 1950년대 제3세계 남성 지식인의 주체 인식

시의 제목인 ‘소인(消印)’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로 하나는 지우는 표시로 찍는 인장, 또 하나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우표에 찍는 도장으로 우편물이 접수된 날짜와 국가명 등의 날인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전자의 의미로 접근해, 전근대적 삶의 습성을 지우고 모더니티의 충격을 내면에 새기는 의미로 해석하거나²⁹⁾ 대타자에 의해 소실되는 주체이자 현대사회의 삶의 조건에 수금되어 소외된 주체로 해석했다.³⁰⁾ 후자의 의미로 사용한 경우에도 소인은 표시이자 기표로, 주체가 기표에 불과하다는 주체의 운명을 암시하는 단어로 다루어졌다.³¹⁾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모두 시에 나타난 현실적 매개를 배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 시에 지배적인 또 하나의 특징인 장소성의 문제 틀이 소거된다. 소인은 이 시에서 죽은 여자가 남긴 소지품이자 ‘나’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었던 유일한 증거물인, ‘국제 항공 우편 봉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호이다. 따라서 제목 ‘소인’을 우편물이 접수된 장소와 시간의 날인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국제 항공 우편 봉투’에 화자가 기입한 ‘동양 무역 주식회사’에서 주체에게 시간과 장소를 각인하는 신생국가 한국의 알레고리가 된다. ‘동양 무역 주식회사’가 현실 그 자체를 지시할 뿐이라는 선행 연구와 달리 이 시의 현실 인식을 관통하는 중요한 의미망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죄의 여부는 모호하지만 수감된 유일한 근거는 우편봉투에 기입된 ‘국제-동양’의 관계이며, 그것이 ‘나’의 수금의식의 원인으로 드러난다.

29) 송승환, 앞의 글, 369면.

30) 김양희, 앞의 글, 4-32면.

31) 이숙예, 앞의 글, 123면.

‘국제-동양’의 관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0년대 동양 담론과 긴밀히 연루된 인식으로, 냉전 체제 하에서 신생 독립 국가에 대한 주체의 자기 동일시를 드러낸다. 제3세계 비동맹운동의 노선을 알린 1955년 반동회의를 기점으로 한국 지식장에서도 아시아 민족주의 담론이 자극 받았으나 <사상계>를 중심으로 한 미국식 근대화론으로 수렴되어 갔다.³²⁾ 한편 문학장에서는 당시 미국 신비평을 전유한 서구적 보편성의 시론에 맞서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동양적 시론을 생산하고 있었다.³³⁾ 1955년 <현대문학>의 창간호부터 편집 기자로 합류했던 김구용에게 있어 ‘동양’은 서구적 보편성에 대항하는 개념이었지만 동시에 후진성으로 비판되는 왜소한 신생 국가의 현실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 시에서 ‘동양 무역 주식회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된다. ‘국제 항공 우편 봉투’에 기입한 ‘나’의 직장이자 ‘나’가 체포된 장소인 ‘동양 무역 주식회사’는 녹빛 외투의 여자가 그 이름만 보고도 자신을 떨시하는 것이 당연하게 예상될 만큼 사기적인 성격이 강한 곳으로 설명된다. 시에서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청과 한국은행 중간에 있는 빌딩 삼층”으로 “조선 호텔 안의 창아蒼雅한 고전古典이 바라보”인다는 상세한 위치 설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사 건물에서 그 내부가 보인다고 한 ‘조선 호텔’은 191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환구단 자리에 설립된 서양식 호텔로, 해방 직후에는 이승만 등의 집무실과 미군 장교들의 숙소로 활용된 곳이다. 한국전쟁 때는 미 공군이, 직후부터는 미8군 장교 숙소로 십 여 년 간 사용되다가 1961년에서야 정부에 반환되었다.³⁴⁾ 김구용이 이 시를 쓴 당시 ‘조선 호텔’은 해방 후에 미군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를 바꾼, 일제에서 미국으로 그 주체가 바뀌었을 뿐인 공간이었다. 미군장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던 조선폰텔의 내부가 보이는 위치에서 ‘동양 무역 주식회사’는 “현대적 외모”만 갖추었을 뿐, “외부내빈”을 말없이 수용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신앙단체”에 지나지 않는 곳이다. 겉은 현대적이지만 실은 유명무실하며 “사기배”에 지나지 않는 곳으로, 국제사회에서 떨시되는 소인이 찍히는 그 곳은 ‘동양’이고, ‘동양’의 중심으로서 한국을 의미한다. 김구용은 ‘나’의 소속인 ‘동양 무역 주식회사’를 통해 근대적 주권 국가라는 외양만 갖추었을 뿐 실재로는 미국에 의한 신식민

32) 장세진, 앞의 글, 148면.

33) 김익균, 「1950년대 동양론과 문학장의 절합」, 동북아 문화연구, 2013, 110면.

34) 「조선 <호텔> 반세기 자취 감출 일의 <잔해>」, 《중앙일보》, 1967.6.6. 6면.

지의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상태로 50년대 국제관계 속에서 기만적인 약소국가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³⁵⁾

시에서 화자가 묘사하는 서울의 밤 풍경은 취기와 함께 미국으로 시찰을 가는 동창의 환송회에서 받은 수치심과 분노로 포획되어 있다. 화자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대타자 미국의 존재가 억압됨으로써 탈식민적 남성 주체는 훼손된 주체성을 여성의 타자화를 통해 복구하려 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1950년대는 전후 여성을 의미하는 ‘아프레 걸’을 위시하여 ‘유한마담, 자유부인, 양공주’ 등 전쟁 후 남성들에 의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름붙이기가 난립했던 시기다. 실재와 무관하게 부풀려진 여성에 대한 부정적 기호는 남성의 자리를 위협해오는 여성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고 전쟁의 폭력과 미국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전통적 공동체의 자기 상실로 남성성이 위축되었음을 드러낸다.³⁶⁾ 「소인」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1950년대 부정적으로 호명된 여성 기호로 재현되어 있다. 살해된 “녹빛 외투 여자”는 ‘유한마담’으로 큰 액수의 지폐와 국제 우편 봉투를 소지하고 다니는 서구 지향적 속물로 그려진다. 또한 자신을 유혹하는 “녹색 암컷 뱀”이었다가 별 볼일 없는 동양인 남성임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을 멸시하는 인물이다. “나의 인형”은 나의 연인이자 ‘양공주’이지만 도덕에 구속되기를 거부하는 자유분방한 여성으로, 50년대 ‘아프레 걸’의 특징을 그려낸다.³⁷⁾ 자신을 유혹하는 ‘뱀’이 아니면 자신의 소유인 ‘인형’으로 이분화 하는 명명에서 보듯 김구용의 탈식민적 남성주체는 전형적인 여성혐오를 통해 자신의 모순을 벗어나려는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이 시에서 ‘양공주’는 아프레 걸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다른 양공주

35) 콰메 은크루마는 1965년 『신식민주의: 제국주의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식민주주의의 본질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신식민주주의의 본질은 그에 종속된 나라가 이론적으로는 독립해 있고 국제 주권이라는 외적인 미사여구를 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 체제와 정치적 정책이란 면에서는 전적으로 외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서동진, 박소현 엮음, 『비동맹 독본』, 현실문화, 2020, 240면에서 재인용.

36)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걸(전후 여성)” 표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2006, 180면.

37) 김은하는 위의 논문에서 아프레 걸을 “정조 관념이 없고 물질주의적인 여성”으로 보고 있지만 (위의 글, 191면), 권보드래는 당시 손소희의 글을 인용해 “분방하고 일체의 도덕적 관념에 구애 되지 않고 구속받기를 잊어버린 여성들”이라는 성적 방종에 무게를 둔다. 이는 당시 대중적 감성에서 아프레 걸이 실존주의와 연관되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한국문학연구』, 2008, 119면.

의 표상과 구별되고 민족을 투사할 때에도 일반적인 민족주의의 투사와는 다르다. 1960-70년대 ‘양공주’ 표상이 민족의 식민화된 현실을 환기시켰다면 1950년대 문학에서 ‘양공주’는 “부르주아 남성의 부도덕한 성의 희생자, 당당한 생활인, 가부장제에 맞서는 주체적인 여성, 팜므 파탈 등”으로 다양하게 재현된다는 특징을 가진다.³⁸⁾ 「소인」에서 양공주인 ‘나의 인형’은 더 나아가 김구용의 세계사적 인식과 함께 민족의 개념을 초과하는 모습으로 확장된다. “우리나라에 온 태국, 필리핀, 미국, 영국, 이디오피아, 프랑스, 십육 개 나라 UN군 등 모든 인종”을 상대하는 양공주로, 그녀의 집은 각색 인종이 다녀간 “인류와 사랑의 전당”으로 표현된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UN군의 90%가 미군이었고 당시 양공주는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을 의미했지만 김구용은 여기서도 태국, 필리핀 등 ‘동양’을 앞세우고 미국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⁹⁾ ‘나의 인형’의 집, 즉 “UN군이 예방한” 한반도라는 장소는 “시종도 수위도 흑인도 석고 흉상 하나 없는 사랑의 양철집”이자 “인류와 사랑의 전당”으로 표상된다. 그리고 나의 인형은 과거와 미래를 모르는 언제나 새로운 현재이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최초의 존재, “무극”으로까지 나아간다. 그녀는 “계시와 설법과 창조”이며, “과학, 법률, 경제, 일반 예술 등 문화”를 다 벗어버린 “참된 품”으로, ‘나’의 모든 모순적 상황과 콤플렉스를 벗어나게 해주는 존재로 숭배된다. ‘인형’이자 ‘양공주’이면서도 ‘무극’의 존재인 여성은 냉전의 모순을 극명하게 체현하면서 동시에 그 모순을 끝낼 가능성을 가진 세계사적 주체로서 민족과 동일시되어 유토피아의 매개로 확장된다.

5. 나가며: 동양적 휴머니즘의 기획과 수금의식

김구용은 서구적 휴머니즘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진단으로부터 휴머니즘의 역사적 주체를 동양으로 이동시키고 그 중에서도 냉전의 모순이 첨예화된 한반도를 중심으로 휴머니즘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 「소인」에는 그의 동양적 휴머니즘의 기획이 유

38) 김은하, 「탈식민화의 신성한 사명과 '양공주'의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2003, 160면.

39) 한국전쟁 당시 전국 각지에 한국군과 유엔군을 위한 위안소가 설치되었고 위안부 제도가 부활했다. 하지만 당시 유엔군의 90%는 미군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 위안부는 미군 위안부와 같은 말로 사용되었다. 한국전쟁기 위안부 개념은 다음 논문을 참조. 이채린, 「1950년대 한국정부의 미군 '위안부' 정책과 기지촌 관리」, 부산대 석사논문, 2020.

토피아적 충동으로 나타난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죄로 방면되지 못하고 수감된 ‘나’가 다른 미지의 장소로 보내지기 전 날, 시에 등장한 대부분의 인물들이 나타나 ‘동양 무역 주식회사’라는 문자 아래에 모이는 꿈을 꾸다. 죽은 여자와 범인은 둘이 아니고, 나의 인형과 나 역시 둘이 아니다. “녹빛 외투 여자와 운전수와 ‘나의 인형’과 살인범이 종렬縱列로 직립하여, 보기에는 한 몸 같으나 각각 얼굴을 좌우로 내놓고 ‘동同’ ‘이뿔’을 일시에 구성”한다. 이것이 김구용이 생각한 동양적 휴머니즘의 핵심이다. 동일성과 차이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동양적 휴머니즘의 이상은 서로가 서로의 “인자因子”라는 연기설에 기반한 상호의존성의 자각에서 시작된다. 이 상호의존적 관계에서는 선과 악이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으며 타인의 죄 역시 나의 책임을 묻는 공동체적 연결이 중심이 된다. ‘나’는 이러한 인식론을 기반으로 모든 인물들과 함께 “전체”로 “세계”로 하나가 되는 휴머니즘적 이상에 도달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인간 심령 현상론처럼 꺼져”버린다. 동양 정신으로 구현한 유토피아적 충동은 지속되지 못하고 주체의 현실 인식 앞에서 좌절된다. ‘나’에게 남겨진 현실은 다시 법에 의해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보내지고 변호사를 댈 돈도 없는 수인의 삶이다. “존재와 공간의 일치”만 남은 수인의 삶은 외재성에의 저항을 포기하며 “내포할 뿐, 무엇도 나를 어찌지 못하는” 평화와 함께 매일의 일상과 자연을 통한 안정이 보장되는 삶이기도 하다. 이는 자신의 제3세계적 유토피아의 상상이 그 실천의 동력을 내장하지 못한 채, 냉전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기획할 수 없는 제3세계 지식인의 수급 의식으로 귀결되리라는 전망을 보여준다.

이 글은 「소인」에 나타난 현실 인식의 문제를 재고함으로써 1950년대 모더니즘을 다양한 제3세계적 시각으로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했다. 「소인」의 경우 당대의 현실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표상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환상, 시체의 혼재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난해성이 현실과 매개된 해석을 방해한다. 이러한 방해의 전략은 1950년대 냉전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에서는 제3세계 인식과 탈식민적 남성 주체의 자기 인식, 나아가 동양적 휴머니즘 기획을 통한 유토피아적 충동이 과편화되어 나타난다. 김구용에게 동양이라는 범주는 서구 중심의 보편성에 대항하는 차이의 전략이자 동시에 새로운 보편성을 기획할 수 있는 제3세계적 장소였다. 하지만 동시에 냉전 문화의 현실 하에서 구체적인 전망을 확보하

지 못하고 동양적 정신주의의 한계를 자각하는 주체의 모습을 통해 1950년대 남한의 제3세계 인식의 한계 또한 드러내고 있다.

참고문헌

□ 기본자료

- 김구용, 「소인」, 『김구용 전집1-시』, 솔출판사, 2000.
 김구용, 『김구용 전집 5-구용일기』, 솔출판사, 2000.
 김구용, 『김구용 전집 6-인연』, 솔출판사, 2000.
 김수영, 『김수영 전집2 산문』, 민음사, 2018.
 김춘수, 「한국시 형태론」, 『김춘수 시론 전집1』, 현대문학, 2004.
 김현, 「테로리즘의 문학」, 『문학과 지성』, 1971. 여름호.
 서정주, 「김구용의 시험과 독자성」, 『현대문학』, 1956.4.
 천상병, 「현대 동양 시인의 운명-방법과 본질의 이율배반성」, 『현대시』, 정음사, 1958.

□ 논저

- 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한국문학연구』, 2008.
 김나정, 「『인간가족 The Family of Man』전의 이면-아메리카니즘의 정치적 선전」, 『현대미술사연구』, 2008.
 김양희, 「김구용 시의 환상성 연구 - 〈소인淸印〉(1957) 연구」, 『한국언어문화』, 2013.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화 “아프레 걸(전후 여성)” 표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2006.
 김은하, 「탈식민화의 신성한 사명과 '양공주'의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2003.
 김익균, 「1950년대 동양론과 문학장의 절합」, 동북아 문화연구, 2013.
 남현지, 「1950-60년대 난해시 담론 연구: 김구용 시에 대한 비평적 쟁점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2019.
 박동숙, 「김구용(金丘庸)의 텍스트 「소인(淸印)」에 생성된 욕망의 계열화(系列化) 양상」, 어문연구, 2011.
 박연희, 『제3세계의 기억』, 소명출판, 2020.

- 서동진, 박소현 역음, 『비동맹 독본』, 현실문화, 2020.
- 손자영,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론 연구」, 이화여대 박사 논문, 2012.
- 송승환, 「김구용 산문시 연구 1」, 『어문론집』, 2012.
- 이수명, 「김구용의 「소인(消印)」에 나타난 수금의식(囚禁意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13.
- 이정민, 「한국의 프로이트 이론 수용 양상 연구: 일반 이론과 특수 이론 개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7.
- 임지연, 「1950년대 시의 코스모폴리탄적 감각과 세계사적 개인주체」, 『한국시학연구』, 2012.
- 장세진, 「안티테제로서의 "반동정신(Bandung Spirit)"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 (1955-1965)」, 사이間SAI, 2013.
- 황병주, 「냉전체제하 휴머니즘의 유입과 확산」, 『동북아역사논총』, 2016.
- A. 아이스테인슨, 임옥희 역, 『모더니즘 문학론』, 현대미학사, 1996.
- 니컬러스 브라운, 김용규·차동호 역, 『유토피언 제너레이션』, 현암사, 2021.
-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 문학동네, 2001.
- 지그문트 프로이트, 「두려운 낮잠」, 『예술, 문학, 정신분석』, 정장진 역, 열린책들, 2020.
- 비자이 프라샤드, 박소현 역, 『갈색의 세계사』, 뿌리와이파리, 2015.

토론문

박 연 희
연세대학교

□ 왜 제3세계인가— “1957년”의 김구용이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구용 연구의 대부분은 시의 산문성과 환상성 등 난해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집에 인용된 한 자작시 해설(대답)을 보면, 자신의 경험과 사유를 한국전쟁 상황 속에서 고도의 시적인 형태로 압축시킬 여력이 안 되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김중철과의 대답」) 종군 시기에 양병문, 김종문, 전봉건 등의 모더니스트들 시가 장시 형태였던 것을 되짚어 봤을 때(물론 그것이 선전시로서 최적화된 형식이었다 해도) 산문 지향성은 전쟁 세대의 고유한 양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인」에서 드러난 세계성의 인식과 표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소인」과 겹쳐 읽을 만한 김구용의 다른 글(해방기~한국전쟁 시기의 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선생님은 「소인」에 나타난 김구용의 입장을 1957년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행사의 리뷰를 분석해 정리하면서 논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과연 신문에 발표된 짧은 글만으로 「소인」에 이르는 김구용의 제3세계적 시각을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리뷰에서 김구용이 ‘국가’를 강조한 부분에 주목해 “의사에 의해 들려진 신생아를 신생 주권국가 한국과 겹쳐 보았다면”(5쪽) 선생님의 가정을 전제로 (선생님의 의지대로) 김구용을 신생국 지식인의 정체성으로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언급한 신생아+순수성의 이미지= 세계 전후시기에 확대된 반공자유주의적 가족 모티프(미국 인도주의의 혈맹구조에 기초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김구용의 신문 리뷰 중] “아직 국경을 모르는 탐욕과 살의를 모르는 순수한 인간 바로 그것이다. 지상의 아들이며 이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다른 얘기지만 1957년에 모더니스트들은 전쟁, 평화, 현대를 표제로 앤솔러지를 계속 발간하며 부단히 베트남, 알제리,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냉전 주변부의 전쟁과 혁명에 관해 시를 썼습니다. (전쟁 세대 모더니스트로서) 김구용의 제3세계적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볼 수 있는 「소인」 이전, 이후의 문학에 대해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왜 제3세계인가 — “국제 항공 우편 봉투”와 “동양 무역 주식회사”의 논의들

사실 선생님 글 가운데 “미국-국제-동양의 관계” 대한 분석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동양 무역 주식회사>에 대한 ‘나’의 열등감이란, 과연 ‘동양’이라는 후진성의(비서구/제3세계) 기호에서 비롯한 것일까요. ‘나의 열등감=여자의 멸시’ 장면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설명처럼 녹빛 여성=속물인데, 그런 그녀가 자신의 속물성을 눈치 채고 멸시한 것은 아닐까요.

[주소 적고 멸시 받는 장면] “**녹빛 외투 여자의 가장(假裝)처럼 나도 태(宅)이란 것이 없다는 비밀을, 하숙집 주소를 알려주기는 싫었다**” “**내용의 가식과 뜻 아닌 수금이 동시에 ..형성되리라고는 생각마저 못한 일**” “**적힌 글씨를 보더니 금세 나를 멸시하는 눈초리**”

‘나’는 집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대신에 그럴싸한 직장 주소를 적은 것이죠. 그 회사는 실제 업무는 보잘 것 없어도 외관이 화려한, 그래서 직원들도 “호주머니에 단돈 백 환 없이도 단벌 영국제 양복”을 입는 다니는 곳이죠.

‘동양’의 메타포에 대한 선생님의 분석은 양공주(인형)을 설명할 때도 엇보이는데요, 11쪽에서 시에서 한국전쟁 참전국가를 열거할 때 굳이 “태국, 필리핀 등 동양을 앞세운” 점에 주목해 이를 “미국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국전쟁 때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수천 명의 인원이 지원되었고 미얀마, 베트남에서도 물자 지원이 있었지요.

□ 왜 제3세계 모더니즘인가— 김구용의 시적 영토는?

발표문은 김구용의 모더니즘 문학을 제3세계론의 가능성으로 두고 있습니다. 결론에 의하면, 김구용 시에 나타난 제3세계는

- ①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기획할 수 없는 제3세계 지식인의 수급 의식으로 귀결” ② “(난해성-인용자)의 방해의 전략은 1950년대 냉전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임을 확인하고, 파편되어 나타난 제3세계 인식과 탈식민적 남성 주체의 자기 인식” ③ “동양이라는 범주.. 제3세계적 장소” 이렇습니다.

⇒ 즉, ①은 후진국, ③은 대항과 저항의 공간 ②는 제3세계론의 미학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더니즘의 원리에 따라 제3세계론을 보면, 알레고리에 가깝겠죠, 상징처럼 부유하는 낱말을 통합해 버리지 않고 개별 의미의 차이를 인지하면서 묶어내는 것이니까요. 선생님도 그러한 파편화된 인식과 상상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②에서의 난해성이 환상성과 알레고리적 기호, 산문성에 있기 때문에 이 시는 제3세계 모더니즘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를 '냉전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 방해의 전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개 문학사의 측면, 1950-60년대 급증한 난해시는 한국전쟁 또는 현대성의 문제에서 연유하고 김구용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텍스트의 위상과 작가의 이념을 일치시켜야 할 때, 이에 대한 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질문드립니다. 「소인」의 배경- 한국전쟁 경험과 자유당 말기의 혼란(양공주 등 전쟁의 흔적, 간첩이나 속물성 등 국내정치문화 혼란)이 아닌, 다른 데에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김구용에 나타난 제3세계적 시각의 형성 계기가 궁금합니다. (한국에 제3세계론이 도래하기 전이었음에도...)

『조선어독본』 수록 제재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초등교육의 의의

: 피식민 주체의 정체성 수립과정을 중심으로

박수빈

성신여자대학교

1. 서론
2. 『조선어독본』의 간행 배경 : 학무국과 ‘조선어’독본이 뜻하는 것
3. 전(全)시기 『조선어독본』 내 동일 수록제재 및 텍스트의 변화양상
4. 『조선어독본』과 일제강점기 초등교육의 의의
5. 결론

1. 서론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보통학교 및 소학교¹⁾의 조선어과 교육을 위해 간행된 교과서인 『조선어독본』을 대상으로 교육령기별 주요 수록제재를 비교연구하여 일제가 목표로 한 피식민 주체의 정체성 수립 및 국민정신교육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시각은 졸고²⁾에서 피식민 주체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던 기획과 연결되면서도, 일제강점기 친일문인들이 스스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만들어갔던 방식과는 달리 당시 어린 학도(학생)들에게 일

1)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1906년 ‘보통학교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출현한 식민지 초등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학교’를 포함하는 이유는 1908년 ‘조선교육령’ 이후 명칭이 소학교로 바뀌었다가 1941년 ‘국민학교 규정’ 발표 이후에는 국민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학교’, ‘소학교’, ‘초등학교’ 등의 명칭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 대한제국 정부에서 이미 ‘소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일본 내에서도 ‘소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에도 일제는 조선에 ‘보통학교’라는 새롭고 낮은 명칭을 가져왔다.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제국대학’으로 이어지는 ‘초등-중등-고등’ 교육의 체계를 통해 ‘학력주의’의 원리가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는 곧 식민지 초등교육에서 학교 체계로부터 계층 상승의 계단이라는 성격을 탈색시키기 위한 일제의 근본적인 의도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15 참고.

2) 박수빈, 「일제말기 친일문학의 내적논리와 회고의 전략-이광수, 김동인, 채만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9.

방적으로 주입되었던 피식민 주체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피식민 주체’란 결국 외부로부터 규정된 방식으로 자신을 구성하거나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제약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본 논의의 기저에 두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유의미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어독본』에 대해 이루어진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이미 『조선어독본』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복원 작업은 2010년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강진호, 허재영에 의해 출간³⁾되었고, 이후 여러 논문이 발표되면서 그 의의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현재 국가 R&D 사업을 통해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교과서 전반에 관한 DB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어 2022년 이후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조선어독본』 관련 연구는 특정 시기 텍스트에 한정되고 연구자 각각의 시각에 따라, 필요에 의해, 편의적으로 편집되어 동원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선행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된 현 시점에서 이루어질 연구는 그러한 연구 전체를 통합하는 관점을 제시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전(全)시기 『조선어독본』을 정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통) 수록 제재’를 선정하였다. 현재까지 연구에서 『조선어독본』의 전시기 텍스트를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없다. 공통적으로 수록되고 있는 제재를 성격과 유형을 바탕으로 선별하여 정리하고, 이를 통해 교육령이나 시기별로 해당 제재에 대한 서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논문의 첫 번째 서술 방식이 될 것이다. 나아가 시기별 『조선어독본』의 성격 차이도 동일한 관점을 바탕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기에 그 부분까지 담당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교육령기’에 따라 교육령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 시기 교육목표도 크고 작은 차이를 지니게 되므로, 텍스트가 갖는 ‘성격’ 또한 달라질 것이라 전제하였다. 본론에서 분류 및 분석을 통해 그 차이가 발견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교육령기에 따라 달라진 서술 및 텍스트의 성격이 의미하는 바를 밝힐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동일 제재 내에서 교육령기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자체로 또 다시 두 가지 가설과 만날 수 있다. 첫 번째는, 동일한 서술을 유지해야 할 만큼 확실한 상식이거나 명제이기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 이는 곧 피식민 주체의

3) 강진호·허재영, 『조선어독본』전5권, 제이앤씨, 2010.

정체성이나 지위 등에 큰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거나 지속된 정신교육의 일관된 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조선 내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출판 상황이나 환경 등이 작용한 결과로 즉 조선어과 교육을 위해 특별히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철저히 설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이는 곧 제국이 식민지를 관리·교육함에 있어서 ‘조선어과’ 자체를 크게 비중을 두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조선어독본』 관련 연구 중 메타적인 시각을 갖고 『조선어독본』과 일제강점기 초등교육 전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강진호⁴⁾를 들 수 있다. 그는 허재영과 함께 『조선어독본』을 집대성하고, 꾸준히 근대 교과서 관련 연구 및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강진호는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피식민 ‘주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식민치하의 교육은 절대적 권위로 무장한 지식관에 바탕을 두어 ‘가르치는 주체’ 즉, 일제의 의도가 ‘배우는 주체’를 압도하는 강한 목적성을 보여준다”⁵⁾고 말하면서, 타율적 힘에 의해 끌려가며 변모한(근대화된) 주체가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균형감각을 갖춘 자율적 주체일 수 없다고 지적함으로써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조선어독본』 수록제재에 대한 연구로는 장정희와 김혜련을 들 수 있다. 장정희의 연구로는 『조선어독본』에 수록된 「혹부리영감」 설화와 근대 아동문학과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 방정환의 동화극 「노래주머니」가 교과서에 수록된 「혹부리영감」 이야기의 변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것⁶⁾과 『조선어독본』에 수록된 ‘단형 서사물’의 변화양상에 주목한 것⁷⁾이 있다. 이중 두 번째 논문은 1, 3, 4, 7차 교육령기 조선어독본을 모두 대상으로 삼고 있어 주목을 요하지만, 실제 연구의 내용은 단일

4) 강진호의 『조선어독본』 연구는 시기별, 주제별, 텍스트 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발표순서대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근대 교육의 정착과 피식민지 주체 - 일제하 초등교육과 『조선어독본』을 중심으로」, 『상허학보』16, 상허학회, 2006 ; 「『조선어독본』과 일제의 문화정치 - 제 4차 교육령기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의 경우」, 『상허학보』29, 상허학회, 2010 ; 「『국어』 교과서의 형성과 일제 식민주의 - 『국어독본』(1907)과 『조선어독본』(1911)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4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 「근대 국어과 교과서의 검정과 검열 - 『국어독본』(1907)과 『조선어독본』(1911)을 중심으로 -」, 『돈암어문학』39, 돈암어문학회, 2021.

5) 강진호, 『조선어독본과 국어문화』, 제이앤씨, 2011, 7쪽.

6) 장정희, 「『조선어독본』의 ‘혹부리 영감’ 설화와 근대 아동문학과와의 영향 관계 고찰」, 『한국아동문학연구』20, 한국아동문학학회, 2011.

7) 장정희, 「일제 강점기 교과서 『조선어독본』에 수록된 단형 서사물의 변화 양상과 그 특징」, 『아시아문화연구』21,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서사물의 변화양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제의 식민지 교육 정책에 따라 교과서 내 서사물의 이입, 수록, 배제되어 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혜련⁸⁾은 일제시대 조선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홍부전」을 대상으로 하여 경판본 「홍부전」을 독본본 「홍부전」으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1) 유지한 화소 2) 생략한 화소 3) 새롭게 부각하거나 변개한 화소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홍부전」에 관한 식민 정부의 정치적 해석과 1910년대 식민통치 기획의 일단을 확인하고자 했다. 텍스트 비교를 통해 일제가 「홍부전」을 교재로 수록하는 과정에서 해학과 풍자적인 텍스트의 성격을 바꾸고, 등장인물간의 서사를 약화시켰으며, 특히 「조선 지우기」에 주력하였음을 밝혀내면서 최종적으로 독본본 「홍부전」은 일선동조론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 민담을 준거로 삼아 재구성한 식민 교육용 이본이라고 규정하는 데로 나아간다.

이렇듯 현재까지 이루어진 『조선어독본』 관련 연구는 단일 텍스트나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삼되, 해석에 치중한 경향이 크고 특히 일제의 식민지배이데올로기 내용을 비판하는데 주력해 왔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물론 이를 통해 식민지기 교과교육 안에 담겨 있는 일제의 식민지배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상당부분 밝혀졌다. 그러나 보통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교과 교육의 모든 요소가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로 환원되지만은 않는다. 그것은 기왕의 연구에서 “조선적인 것”(강진호)이라고 불리던 우리 역사, 지리, 인물에 대한 서술을 비롯해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으로는 해석 불가능했던 영역들로, 식민지배이데올로기와 교과서의 관련성으로만 텍스트를 독해해왔던 연구의 경향성과 그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통학교의 교과서가 이데올로기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교과서 속의 이데올로기가 교사의 수업 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의식 속으로 내면화되었다는 주장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⁹⁾ 본고가 부제를 통해 피식민 주체의 정체성 ‘수립(樹立)’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립’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타동사이며, 그 안에는 국가나 정부가 제도나 계획 따위를 세운다는 ‘주체’와 ‘행위’에 대한 의미가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선어독본』 텍스트에 대한 해석에서 나아가 당대 교과서의 ‘도식’, 수록 제재의 ‘배치와 재배치’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8) 김혜련, 「제1차 조선교육령기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 수록 제재 연구 : 「홍부전」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23, 돈암어문학회, 2010.

9) 오성철, 앞의 책, 237쪽.

2. 『조선어독본』의 간행 배경 : 학무국과 ‘조선어’독본이 뜻하는 것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朝鮮總督府學務局編輯課)는 1910년 10월 최초의 관제로 내무부 학무국에 설치되어 ‘교과용도서 편찬, 배포 검정 및 인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던 부서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총독부 기구 개편 강요로 인해, 학무국도 1919년 8월 개편으로 독립한 국이 되었지만, 편집국은 존속했다. 전시 체제로 옮긴 후 1942년 11월의 개편에서 편수과로 개칭하면 관장하는 사항이 증가하고, ‘교과용 도서의 편집·발행·조사·검정 및 인가, 교원용 참고 도서의 인정·추천, 국어 조사, 국민학교의 방송·교과용 영화, 모든 학교 교가의 가사·악보, 약력의 출판·배포’에 관한 사항을 장악했다. 1945년 4월의 마지막 개편으로 편수과는 폐지되고 업무는 학무과로 이관되었다.

『조선어독본』은 바로 이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에서 만들었다. 교과서의 편찬주체가 ‘학부’에서 ‘학무국’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¹⁰⁾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선어독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편찬 및 발행주체가 조선총독부 학무국인 텍스트가 지니는 의미는 ‘조선어’의 지위가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그 존재 자체로 일제의 ‘조선어 말살’을 목적으로 하는, 크게는 식민지배이데올로기의 반영물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즉, 과거와 달리 더 이상 ‘국어독본’이라 불리지 않고, ‘조선어독본’으로 명명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조선어’와 ‘조선(인)’의 지위는 결정되어

10)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자 일제는 곧 한국을 영월히 일본에 병합한 사실을 내외에 선포하고 대한제국을 조선이라 고치는 한편, 총독부를 설치하여 육군대장 테라우치 마사다케를 제1대 총독으로 임명하며 무단통치를 강행하였다. 당시 총독부의 통치기구는 1房 5部 즉 총독관방(總督官房), 총무부(總務部), 내무부(內務部), 탁지부(度支部), 농상공부(農商工部), 사법부(司法部)로 나뉘어 있었는데, 교육을 관장한 학무국은 내무부에 속해있었다. 한말에 학부라는 독립된 관서 밑에 대신관청, 총무국, 전문학무국, 성군관, 상교서원사무국, 보통학무국, 편집국, 회계국 등이 복잡하게 부설되어 있었던 것이, 이때 학부를 폐지하고 그 대신 내무부 산하에 학무국, 편집국으로 기구를 대폭 축소하여 소속시킨 것이 주목된다. 여기에는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은 제외하고,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 치중하면 된다는 우민의식(愚民意識)이 깊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학무국은 특히 역대 조선총독의 통치스타일을 그대로 수용하여 철저한 식민지교육의 시행을 담당했고, 교육과 문화의 진흥이라는 가면을 쓰고 동화교육과 황국신민화정책을 강렬히 추진해 나가며, 조선어 및 조선민족 말살에 앞장섰던 일제통치기구의 대표적인 권부였다. 김성준, 『일제강점기 조선어 교육과 조선어 말살정책 연구』, 경인문화사, 2010, 112-116쪽 참고.

져 있다.

일본어는 지배자의 언어, 한국어는 피지배자의 언어다. ‘내지어’는 곧 ‘국어’가 되고, 조선어는 곧 ‘외지어(반도어)’인 동시에 언문이자 방언이라는 등식을 갖게 됐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총독부는 ‘조선교육령’을 통해 처음부터 각급학교의 조선어와 일본어 수업시수에 현저한 차별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이 교육령을 개정할 때마다 조선어 시수는 매번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곧 조선어 말살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음을 뜻한다. 일제는 조선어를 ‘필수’가 아닌 ‘수의과목’으로 두고, 사실상 일제말에 이르면 거의 교육하지 않았다.¹¹⁾

당시 조선어 교수법에 관한 문건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은 항상 국어(일본어)와 연계 비교하고 국어의 특질, 국민의 사상, 감정, 풍속, 습관 등을 이해시키고, 내선일체, 동포 화목 도모의 미풍을 양성하며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을 함양하는 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¹²⁾고 하였다. 이른바 황국정신교육의 철저를 위해, 또한 조선어교육이 민족교육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일제는 조선어교육을 설계하여 왔던 것이다.

일제하에서 조선총독부 주도로 만들어진 초등교육용 『조선어독본』 중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총 5종이다. 이를 발간 시기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1911-1913) / 8권 체제 ¹³⁾
보통학교 조선어독본(1923-1925) / 6권 체제
보통학교 조선어독본(1930-1935) / 6권 체제
초등조선어독본(1939) / 2권 체제
간이학교용 초등조선어독본(1939) / 1권(全) 체제

엄밀히 따져볼 때, 이중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은 사실상 일제의 교과서라 말할 수 없다. 강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가 1907년 학부에서 편찬한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에 ‘교수상의 주의 및 자구정정표’를 만들고 임시로 자구 수정을 반영한 형태로 『조선어독본』을 출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차 교육령 제정 이후 최초의 조

1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성준과 오성철의 앞의 책을 참고할 것.

12) 『初等朝鮮語讀本全(簡易學校用)編纂趣意書』, 朝鮮總督府, 1939, 1쪽. ;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21卷. 윤소영, 「1930년대 간이학교와 신교육운동의 변용」, 『일제강점기 한국초등교육의 실태와 그 저항』(역사공간, 2016) 228쪽에서 재인용.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확인되는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은 2권부터 8권까지 7권에 불과하다. 본고에서는 1권을 제외한 총 22권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는다.

선어독본인 이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은 통감부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교과서에 자구정정만 한 것이라 식민통치 하의 교과서로 간주하기에는 미흡하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이 텍스트를 분석의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1920년대 이후 일제의 ‘조선어독본’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어독본』 5종의 성격은 크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1911)은 전술한 특징에 덧붙여 구성의 다채로움, 글의 양식이나 제재가 가장 다양하다. 『보통학교조선어독본』(1923)은 식민주체로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등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근검’, ‘성실’, ‘예의’ 등의 덕목이 구체화되고 강조된다. 이를 당대 사회적 맥락과 일제의 식민지배이데올로기와 연관시켜 살펴보면 피교육자인 조선인에게 매사 순응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주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지침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일제가 양성하고자 한 당대 피식민 주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보통학교 조선어독본』(1930)은 식민정책이 한층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실업’과 ‘자력갱생’을 골자로 피식민 주체를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 텍스트에는 아직까지는 조선과 내지의 경계가 뚜렷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관습이나 문화, 환경 등의 ‘유사성’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결합해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반영되어 있는데, 일제의 통치하에서 편리하고 더욱 부강해져가는 듯 보이는 조선의 모습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조선의 모습과 근대화된 조선의 모습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한다. 텍스트는 전통과 근대, 조선과 일본이 복잡하게 뒤섞인 과도기적, 혼종적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다만 일본의 역사와 기원, 천황에 관한 각종 기념일과 제일에 대해서만큼은 조선인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집단훈련을 통해 ‘하나됨(一體)’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초등조선어독본』(1939)과 『간이학교용 초등조선어독본』(1939)은 그 이름과 발간시점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제7차 교육령은 1938년 2월 23일 발표된 것으로 주요 변화는 단선학제 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이 었다. 이는 곧 내지인과 조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소학교-중학교-고등여학교’의 단선학제를 운영하도록 함을 의미했다. 신교육령의 중요한 사항과 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명을 일본인 학교와 동일하게 개칭하여 교육제도상으로 보아서 한국인

1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혜련의 앞의 글을 참조할 것.

과 일본인 간에 차별대우가 철폐되었다고 하였으나, 그 실상은 일본인이 사립학교의 교장이나 교무주임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방침이었다. ② 교육목적은 뒷받침하는 교육내용으로 일본어·일본사·수신·체육 등의 교과를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최초로 ‘초등’이라는 단어가 붙어 발행된 이 『조선어독본』은 조선어 교과를 ‘수의과목’으로 돌리고, ‘조선어말살정책’이 강화된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함께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시기 『조선어독본』은 조선인을 모범적이고 완전한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황국신민화 정책의 총체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천황과 일본에 대한 충심(忠心)이 강조되고 있으며, 조선 고유의 정신을 담은 위인에 대한 이야기나 전통에 대한 서술도 전무하다. 그저 일본의 국기, 일본의 명절, 일본의 행사를 소개하여 그 의미를 가르치고 마침내 마지막 단원에서는 일본의 은혜를 갚기 위해 기꺼이 천황의 군인(지원병)이 된 조선의 ‘언니(兄)’를 보여주며 “너도 커서 훌륭한 군인이 되라”고 말하는 조선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배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내면화된 모범적인 조선인 모델을 제시하는 데 이른다.

3. 전(全)시기 『조선어독본』 내 동일 수록재제 및 텍스트의 변화양상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조선어독본』 내 수록 제재들은 어떤 특징과 변화를 보이고 있을까.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생활의 덕목이나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단원은 제외하고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한 대상으로 총 4가지의 수록제재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는 당시 책에서는 “空日”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된 명절, 제일, 기념일 등에 대한 것이다. 공통적으로 특정한 날에 대해 설명하고 소개하는 이 제재는 『조선어독본』 내에 필수적으로 수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서술 속에서 조선(인)의 지위변화를 직접적으로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위인전기’다. 실존인물에 대한 묘사를 통해 간행주체가 교육대상에게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였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그 서술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당대 가장 중대한 가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전래동화 및 우화’다. 우화는 단순히 동물이나 각종 사물, 신 등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사를 풍자하고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교과서에 실린 우화와 전래동화는 교훈적 메시지를 ‘흥미롭게’ 전달하는데 매우 적합한

양식이다. 반복해서 수록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일제가 조선(인)에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교훈을 주고자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황국 신민의 의무’에 관한 제재들이다.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전쟁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들이 앞선 제재들에 비해 노골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원들을 추려 이러한 제재가 시기별로 어떤 차이를 갖고 나타나는지를 통해 피식민 주체에 대한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과정과 조선(인)의 지위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1) 공일(명절, 제일, 기념일, 식목 등)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 (1911-1913)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1923)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1930)	초등조선어독본 (1939) ¹⁵⁾	간이학교용 초등조선어독본 (1939) ¹⁶⁾
天長節-3권/20과	天長節祝日-2권/18과	明治節-2권/27과	明治節-2권/14과	없음
	寒食-2권/1과	四名節-4권/25과		
	植木-3권/1과	植木-3권/1과		
	秋夕-3권/12과		秋夕-2권/10과	
紀元節-2권/19과	紀元節-3권/25과		愛國日-2권/9과	

여기에서 크게 일본의 기념일은 3개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천장절=명치절과 기원절, 그리고 애국일이 그것이다. 11월 3일은 메이지 천황의 생일로 그가 살아 있을 때는 천황탄생일인 천장절(天長節)로 지냈고 1927년부터 1947년까지는 명치절(明治節)로 불렸다. 표 첫줄의 날들은 모두 같은 날을 의미한다. 가장 빈번히 소개된 이 날은 일제가 이를 얼마나 중요한 날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기원절(紀元節)은 <일본 서기>에서 전하는 초대 신무(神武)천황이 즉위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일제는 식민 지배 말기에 이르러 매월 1일을 ‘애국일’로 지정하였는데 그래서 1939년 판본 『초등 조선어독본』에만 이 날이 소개되어 있다. 일본의 기념일을 서술할 때 공통된 특징은 당일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매우 세세하게 설명한다는 점이다. 본문은 날짜 및 기념일 소개-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사-식후(式後) 신사참배-기념일의 의의로 구성되

15) 『초등조선어독본』은 각 과의 단원명이 존재하지 않으나 편의상 주제어와 핵심제재를 적어 기록하였음을 밝힌다. 표 2,3,4 모두 동일함.

16) 『간이학교용 초등조선어독본』은 각 과의 단원명이 존재하지 않으나 편의상 주제어와 핵심제재를 적어 기록하였음을 밝힌다. 표 2,3,4 모두 동일함.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에는 반드시 “山 꼭대기에, 떠오르기 시작한 아침해가, 사람들의 얼굴을, 찬란하게 비춥니다”(애국일)와 같은 사람들의 참여를 칭찬하는 서술이나 천황의 은혜에 감사하는 서술이 쓰여 있기 마련이다. 1923년 판본까지는 특별한 의미부여가 나타나지 않지만, 1930년 판본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일이 매우 진보해야, 훌륭한 나라가 되었습시다”¹⁷⁾와 같은 서술이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되었습시다”¹⁸⁾와 같이 천황으로 인해 현재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감사를 서술에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식목일’이다. ‘神武天皇祭日’과 연관된 이 날에 대한 서술은 『보통학교조선어독본』에서 3권 1과에 모두 동일하게 수록되어서 주목을 요한다. 각 3권의 1과에서는 ‘神武天皇祭日’이 소개된다. 이때 학생들은 학교에 모여 식목(植木)을 하는 관례가 있으며 그것이 조선의 붉은 산을 푸르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3권의 첫 과에 이 신무천황제일이 소개되는 것은 당대의 학제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4월이 각급 학교의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지금과 같이 3월에 학기가 시작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뀐 것은 1962년의 일이다. 그래서 당시 개학과 더불어 이틀이 지나면 바로 이 휴일이 이어졌는데, 이날이면 연례행사처럼 학생들은 나무심기 행사에 동원되었다. ‘산림녹화’야말로 식민통치의 치적을 자랑하기에 좋은 구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서술의 방식이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여 흥미롭다. 1923년 판본에서는 “어서 나무를 만이 심어서, 近處山이 모다 펴어케 되었스면, 조켓습시다”(4쪽) 정도의 서술이지만, 1930년 판본에서는 “朝鮮은 內地와 비교하여 나무업는 山이 적지 안타고 하니, 그것은 참으로 붓그러운 일이올시다.”(2쪽)라고 쓴다. 산림녹화에 대한 일제의 인식이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는 단원이면서도 그 서술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의 날로는 ‘한식’과 ‘추석’이 소개된다.¹⁹⁾ 1923년 판본에서는 한식은 조선의

17) 『보통학교조선어독본』(1930)권2, 27쪽.

18) 『초등조선어독본』(1939) 권2, 47쪽.

앞으로 직접인용시에는 각주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본문의 괄호에 페이지를 넣어 표시하도록 하겠다. 또한 표기법은 모두 원문 그대로 수록하지만, 가독성을 위하여 현대띄어쓰기를 적용하도록 하겠다.

19) 『초등조선어독본』과 『간이학교용 초등조선어독본』에는 ‘설’이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 날에 대한 서술이라기보다는 “설이 되었는데도 군인들은 전장에서 고생하고 있겠구나”가 핵심적인 메시지이므로, 이 부분에서 다루지 않고 [표4]에서 다루고자 한다.

명절이며 이날 제사는 정성을 들여 지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추석에 대해 소개하면서 조선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 날을 상세히 묘사한다. 1930년 판본에서는 조선의 날을 소개하는 단원이 하나로 줄었으나 ‘四名節’이라는 단원을 통해 설, 한식, 단오, 추석을 매우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서술자의 감상 같은 것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각각의 명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치중하면서 한층 건조한 서술이라는 인상을 준다. 1939년 『초등조선어독본』에 소개된 추석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하늘은, 구름 한점 업시 맑고, 쟁반갈치 둥근 달이, 東쪽 공중에 빛납니다. 울 밑에 풀속에서는, 버레들의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34쪽)와 같이 정취(情趣)에 젖어든 서술로 쓰였으나 이것이 조선의 오랜 역사를 지닌 ‘명절’인지 그 역사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삭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일제말기로 갈수록 조선의 고유한 날이나 전통문화에 대한 색채가 희미해지고 일본의 날과 조선의 날을 구분할 수 없도록 서술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위인전기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 (1911-1913)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1923)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1930)	초등조선어독본 (1939)	간이학교용 초등조선어독본 (1939)
	畫工 良秀 -4권/16과	朴赫居世 -3권/5과	없음	없음
	韓石峯 -5권/6과	韓石峯 -2권/31과		
	徐敬德 -6권/3과	神武天皇 -3권/24과		
孔子와 孟子 -6권/7과	孔子와 孟子 -6권/7과	孔子와 孟子 -6권/6과		
제너 -7권/14-15과	李昌燾와 李栗谷 -6권/8과	두 使臣 ²⁰⁾ -4권/14과		
	雨森芳洲 -6권/21과	金正皞 -5권/4과		
		黃喜의 逸話 -6권/12과		

소개된 위인 중 중복 수록된 인물은 세 사람이다. ‘한석봉’과 ‘공자와 맹자’가 그것이다. 한석봉에 대한 서술은 그가 약속한 10년이라는 공부 기한을 마저 채울 수 있도

20) ‘문익점’과 ‘조엄’에 대한 단원인데 이 두 인물에 대한 서술은, 조선의 방적산업이 어떻게 성황하게 되었는지를 문익점을 시작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조엄에 대한 기술 또한 고구마의 기원을 조엄을 통해 설명했다고 볼 수 있어 인물의 이름을 단원명으로 삼았으나 위인전기라 보기 어렵다.

록 따끔하게 교육한 그의 어머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는 두 판본이 모두 동일하다. 다만 어머니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1923년 판본의 어머니는 공부가 이만 하면 된 것 같다는 아들의 답변에 “냉소(冷笑)”하며, “그러면 너의 文筆을 試驗하여 보리라”고 말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때는 공부에 있어 ‘자만(自慢)’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핵심내용을 이룬다. 반면 1930년 판본의 어머니는 “보아라, 네 글씨가 이래서 쓰겠니.”라고 말하고 석봉은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되는데 이때 석봉의 하산 이유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로 되어있다. 즉 좀 더 어머니의 처지를 헤아리는 석봉의 ‘효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맹자와 공자’에 관한 이야기는 비슷하게 6권 6, 7과에 배치되었으며 1930년 판본에 삽화가 추가되고 사소한 부연설명이 덧붙여지기는 했으나 내용상에 큰 변화를 찾아볼 수는 없다. 유교 경전인 논어와 맹자의 유래, 공자가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본령으로 삼았다는 서술, 맹자의 모부인이 고금에 드문 현모라는 서술 등이 강조되어 기술되어 있다. 이는 일관된 ‘유교’적 가치와 가르침에 대한 강조로 해석해볼 수 있다.

1911년 판본에 소개된 인물 ‘제너’는 『조선어독본』에 소개된 유일한 서양인이다.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우두를 접종하는 종두(種痘)의 “妙術을 發明한 者”(33쪽)로 이때 강조되는 것은 그가 연구에 몰두한 기간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2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종두술 발명에 매진하여 전 세계 사람을 구했으니 그가 인세(人世)에 끼친 공이 크다는 것이다. 제너에 대한 두 단원에 앞서 13과는 ‘種痘’라는 제목으로 쓰였는데, 그 시작이 “朝鮮人은 面上에 痘瘡잇는 자ㅣ 許多히되 內地人이나 歐美人 中에는 稀少하니 이는 何故이뇨”(30쪽)란 문장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의술의 도입이 늦은 조선의 상황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서술자는 문명국의 아동은 어릴 때 접종하여 발병이 희소한데, 조선에도 이 의술이 들어왔으나 우매한 ‘향곡인민(鄉曲人民)’이 이를 알지 못해 병을 겪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뒤이은 제너에 대한 서술은 이를 널리 교육시키고자 한 목적으로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23년 판본에서 소개된 나머지 네 단원은 일본인에 대한 서술이 둘, 조선인에 대한 서술이 둘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인 화공(畫工) ‘良秀’는 헤이안 시대 후기의 그림 불사로, 집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부동존(不動尊)의 불상을 그릴

때, 그 배경의 화염(火焰) 그리는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 비로소 방법을 깨달았으니 화재는 외려 자신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표현한 예술가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인물이다.²¹⁾ 또한 가장 마지막에 소개된 인물인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는 에도 시대의 외교담당 문관으로 조선과 일본 양국 우호에 기여한 인물이다. 그러나 『조선어독본』에 소개된 부분은 그가 조선인과 이야기할 때 통역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능숙하게 우리말을 구사했고, 나이 81세에 되늦게 ‘和歌(일본의 정형시인 와카)’를 배우려고 마음먹고 “只今으로부터 古今集을 千번만 通讀한 後에 다시 萬首를 지을지니 그러케 하면 或是 通曉함이 있스리라”(90쪽)는 말과 함께 2년 동안 고급와카집을 천 번 통독하고 다시 3년 동안 와카 만수를 지었다고 쓰여 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어낸 인물로 아메모노리 호슈를 소개한 것이며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의 자세를 새롭게 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두 일본인 모두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배경으로 소개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조선인인 서경덕과 이퇴계와 이율곡에 대한 서술은 분량도 훨씬 길고 그 훌륭함에 대한 서술자의 칭송(稱頌)이 자자하다. 서경덕은 공부를 함에 있어 침식도 잊어버리고 진지한 자세로 열심히 임하였다는 내용이 강조되는데, 이때 서술자는 “勿論 天質도 聰明하였지만은 또한 熱心과 努力의 效果도 不少하였소”(13쪽)라는 말과 함께 우리도 열심히 연구하면 무슨 일이든 터득치 못할 것은 없을 것이라는 교훈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퇴계에 관한 서술에서는 “嶺南이 先生의 德性에 薰陶됨이 만은 고로 世人이 이 地方을 가르쳐 鄒魯의 鄉이라 稱道하게 되니 先生은 實로 圃隱이 歿한 後의 一人”(74쪽)이라는 문장 하나로 서술자의 존경심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鄒魯(추로)’는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고 맹자는 추나라 사람을 일컫는 말이니, 예절과 학문을 아는 이 즉 공맹의 고향이라는 매우 수준 높은 칭찬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율곡은 “先生은 實로 千載에 드문 眞儒요 經濟의 大才”(76쪽)로 규정되는데, 이는 천년에 한번 나타날 진정한 학자이자 경제제민(經世濟民)의 큰 사람이라는 뜻이니 그야말로 위인에 대한 칭송으로 손색이 없다. 즉 1923년 판본의 『보통학교조선어독본』에서 소개된 위인들은 공통적으로 ‘공부에 열심히 임하는 자세’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

21) 이 설화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 龍之介)의 지옥변(地獄變, 1918)에 소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으로 동원되었으며 이때 일본인보다도 조선인에 대한 서술에 한층 공을 들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30년 판본에서는 조선의 인물이 더 늘어난 모습이다. ‘박혁거세’ 이야기는 길게 기술되기는 했지만 그 탄생 자체가 신기한 일이므로 그 출생의 특별함 때문에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이야기가 내용의 전부다. ‘신무천황’에 대한 단원에서는 “知와 仁과 勇의 三德을 겸하신 훌륭한 어른”(74)이라고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인물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서술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第一代 天皇”(72쪽)이라는 표현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23년 판본에서 아메노모리 호슈에 대한 서술을 보면 그는 “넛적 內地의 有名한 學者”(88쪽)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30년 판본 『조선어독본』에서는 내지와 조선의 구분을 두지 않으려는 서술태도가 일부 확인된다. 김정호에 대한 서술은 지금까지의 인물 소개 가운데 가장 긴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상세한 논증을 필요로 하는 문제적인 부분이다. 김정호 ‘옥사설(獄死說)’이 여기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호가 옥사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어독본』에는 당시 흥선대원군이 조선의 정보가 다른 나라에 누설될 것을 두려워 해 그를 옥에 가두고 딸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서술하며 “때를 만나지 못한 正皐”(24쪽)라고 가여워한다. 일견 김정호의 일대기와 지도에 대한 열망을 상세하게 조명하고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지도제작을 조선정부에서 지원했다는 연구도 있는 바 이는 곧 일제가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황희’에 대한 단원을 보면 황희가 젊은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면서는 매우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서술을 하면서 “사람의 缺點과 過失을 들추기나 하얏지, 조금도 容恕性이 없섯든 사람”(64쪽)이었다고 기술한다. 1930년대 판본의 인물들에 대한 서술은 기본적으로 서술자의 의미부여가 약화된 측면이 많다. 인물의 성과나 공적에 대한 서술이 적고, 그 자체에 주목하고 교훈을 전달한다기보다는 그 인물의 특정한 사건이나 일화 등에 주목하여 인물이 가진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다.

3) 전래동화 및 우화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 (1911-1913)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1923)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1930)	초등조선어독본 (1939)	간이학교용 초등조선어독본 (1939)
	혹 쨌 이야기1,2 -2권/16-17과	혹 쨌 이야기 -4권/8과		
蚌鵝之爭 -3권/17과	조개와 황새 -2권/20과			
慾心이 만흔 犬 -2권/21과	慾心 만은 개 -2권/28과			욕심만은 개 -11과
	매암이와 개미 -3권/14과	개미와 벧잠이 -2권/28과	개미와 벧잠이 -2권/15과	개미와 벧잠이 -14과
	말하는 남생이1,2,3 -3권18-20과			
	여호와 가마귀 -3권/27과			
	沈淸 -4권/19-21과	沈淸 -5권/21과		
	獅子와 山鼠 -5권/3-4과			
	分數물으는 토끼 -5권/24과			
井蛙의 所見 -5권/19과	井底蛙-5권/22과			
馬 -2권/12과		의조은 兄弟 -5권/14과		
鐵의 談話1,2, 鐵歌 -6권 10-12과				

전래동화 및 우화의 수록양상을 표로 살펴보면, 한 눈에 들어오는 변화가 있다. 바로 그 수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이다. 1911년 판본에서 총 5개²²⁾, 1923년 『조선어독본』에서 총 10개의 이야기가 소개된 것에 비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그 수는 크게 줄어든다. 물론 1911년 판본은 8권, 1923년 판본과 1930년 판본은 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등조선어독본』은 2권, 간이학교용은 1권이니 수록할 수 있는 단원 수 자체가 준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동일수록 제재의 숫자가 확연히 많다는 점이다. 그중 ‘개미와 벧잠이’ 이야기는 총 4번, ‘욕심 많은 개’는 3번, ‘조개와 황새’·‘우물 안 개구리’·‘혹부리 영감’·‘심청’은 총 2번씩 수록되었다. 여기에서는 중복

22) 현재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은 1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수를 완전히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선어독본』은 그 구성상 1권의 경우 자모의 결합을 통한 조선어 글자교육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비유와 풍자를 바탕으로 하는 우화는 소개되었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어린 아동이 골계미를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전래동화가 소개되었을 가능성도 없진 않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조선어독본』 1권에서 일종의 완결된 ‘이야기’는 실린 바가 없다.

수록된 우화를 중심으로 의미화를 진행하겠다.

‘개미와 베짖이’ 이야기부터 보면, 처음 1923년 판본에서는 베짖이가 아닌 ‘매미’였으며, 삽화에서도 매미가 그려져 있다. 이 이야기는 가을날 매미가 개미를 찾아가 먹을 것을 구걸하는 대목에서 시작되며, 이때 개미가 매미에게 여름동안 무얼 했냐고 묻고, 그렇게 놀았으니 지금 사정이 궁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따끔히 말한다. 매미는 조금 얻은 음식을 손에 들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힌다. 이것은 1930년 판본에서 베짖이와 개미의 이야기로 바뀌고 이야기는 여름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개미를 향해 여유로운 베짖이가 가서 즐겁게 놀자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개미는 겨울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로 이를 거절하고 추운 겨울날 찾아본 베짖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준다. 그러나 집이 좁아 쉬게 해줄 수 없었고 베짖이는 다시 차가운 길로 나선다는 이야기다. 1930년 판본에서 완성된 이야기는 곧 1939년 두 판본에도 동일하게 실렸다. 특히 1939년 두 판본은 글자 몇 자, 띄어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을 빼면 삽화까지 완전히 동일한 텍스트다. 결국 변화가 있었던 지점은 1911년과 1923년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게으른 존재를 대변하는 이가 매미에서 베짖이로 바뀐 것, 또 호통을 치던 개미가 온정적인 캐릭터로 변화하는 것을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이 이야기가 4번에 걸쳐서 『조선어독본』에 실렸다는 것은 곧, ‘근면’한 태도를 조선의 아동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교육하고자 했던 일제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²³⁾

‘욕심 많은 개’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깃덩어리를 물고 가던 개가 물을 내려다보며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고기를 욕심내 입을 벌려 쫓는 바람에 갖고 있던 고깃덩어리를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1911년 판본에서는 마지막 문장에 “甚히 慾心이 만흔 者는 도로혀 損害되는 일이 만흐니라”(48쪽)는 말로 이를 의미화 했고, 1923년 판본 또한 “사람도 慾心이 너무 만으면, 도로혀 害를 보기 쉽소”(77쪽)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1939년 『간이학교용 조선어독

23) 이는 1911년 판본의 「鐵의 談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각기 다른 물건이 된 철들의 이야기로, 모두 자신의 내력을 털어놓던 중 ‘시계’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노동한다는 말을 들은 다른 철들이 “活動치 안는 者는 漸次로 酸化호야 命壽가 減縮호느니 恆常 勤勞호는 君의 身世가 참 부러웁도다”(28-29쪽)라고 말한다. 두 단원을 할애해 이 우화를 소개한 『보통학교학도용 조선어독본』은 그 다음 단원에서 ‘철의 노래’라는 단원으로 시까지 지어 “말뚝거라 靑年들아”(29쪽)라며 근면한 삶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남긴다.

본』에서는 상황묘사와 분량이 크게 줄면서 고기가 물속으로 떨어져버렸다는 문장으로 끝이 날 뿐이라서 어떠한 직접적인 메시지가 반영되고 있진 않다. 3번에 걸쳐 ‘욕심 많은 개’의 이야기는 ‘절제’를 가르치기 위해 수록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교육의 주체가 식민제국이고 대상이 피식민자라는 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욕심을 내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피식민 주체에게 모든 일에 스스로 뜻을 세우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야심을 가지라는 교육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점에서 일제강점기 ‘독본류’의 교과서들이 소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개와 황새’의 이야기는 1911년 판본에서는 ‘방홀지쟁(蚌鷁之爭)’이라는 제목의 단원에 수록되었다. 이는 ‘전국책(戰國策)’의 ‘연책(燕策)’에 나오는 말로써 대답하는 두 세력이 다투다가 구경하는 다른 사람에게 득을 주는 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조선어독본』에서는 조개와 황새가 서로를 붙들고 있는 사이 어부가 둘 다 주어간 이 이야기를 통해 “이럼으로 兩人이 相爭에 他人이 利益을 얻는 것을 蚌鷁之爭이라 ㅎ느니라”(51쪽)는 풀이로써 한자성어의 유래를 가르친다. 1923년 판본에서는 한자어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점 외에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당장 눈앞의 일에 사로잡혀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에 대한 1911년 판본과 1923년 판본 또한 완전히 동일한 텍스트다. 개구리와 거북이의 대화로 구성된 글에서 거북은 냉소와 대소로 개구리에게 세상의 크기를 알려주며, 서술자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로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망신(妄信)하는 자를 일러 정저와(井底蛙)라 한다는, 한자어의 어원을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겸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심청’의 경우 1923년 판본이 구체적인 장면의 묘사나 배경 설명들에 좀 더 치중하고 있고, 두 판본 사이에 문체나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사의 순서나 구성이 동일하며 ‘효심’에 대한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혹부리 영감’ 이야기는 전술한 이야기들과는 내용의 큰 틀은 유사하지만, 1930년 판본에 덧붙인 묘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영감이 자신의 혹을 떼기 위해 두꺼비들에게 자신의 좋은 목소리와 노래는 혹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특히 차이가 큰데, 1923년 판본에서는 “老人은 텃연스럽게 내 목에 달닌 혹에서 나온다고 ㅎ답하

앗소”(41-42쪽)라고 되어 있으나 1930년 판본에서는 목에서 나온다는 노인의 말에 ‘괴수독가비’가 먼저 “령감의 그 커다란 혹에서 나오는 것이 아넛넛가”(26쪽)라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두꺼비에 의해 혹도 떼고 재물도 얻은 노인의 이야기는 1930년 판본에서 그대로 끝이 나지만, 1923년 판본에서는 후편(後篇)이 있어서 같은 마을에 역시 혹을 단 노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두꺼비들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지만, 성난 두꺼비들에게서 혹 하나를 더 얻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소개하면서 “이럼으로, 혹 썰러 갖다가, 혹 붓쳤다 하는 말이 잇소”(46쪽)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한다. 두 판본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도 달라진다. 1923년 판본의 경우는 노인의 교묘한 꾀에 속아 넘어간 두꺼비들의 우스운 상황, 자신도 두꺼비를 속여 보겠다고 갔다가 외려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된 노인까지 웃음거리가 되는 이야기다. 반면 1930년 판본은 솔직하게 자신의 노래는 목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노인이, 그럼에도 그 혹을 욕심 낸 두꺼비들에 의해 덕을 보게 됨으로 ‘진실된 태도’로 타인을 속이지 않으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메시지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4) 황국신민의 의무(노동의 중요성/전쟁에 참여)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 (1911-1913)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1923)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1930)	초등조선어독본 (1939)	간이학교용 초등조선어독본 (1939)
없음	勤儉-5권/26과	땀-3권/9과		
	納稅-6권/12과	儉約과 義捐-3권/10과		
		소-4권/6과		
		땀방울-4권/16과		
		實業-6권/19과		
			비행기전쟁-1권/25과	비행기전쟁-25과
			현금-1권/27과	위문품-23과
			전력과시-1권/32과	전력과시-28과
			일장기-2권/1과	일장기-19과
			궁성요배-2권/2과	
			군인이 되어라-2권/19과	군인이 되어라-20과

1911년 발간된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에는 시기상 당연히 이러한 내용의 제재가 실릴 수 없다. 전체주의적 태도의 주입과 황국신민화 정책의 반영은 1923년 판본에서부터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며, 일제말에 이르면서 점점 더 그 수가 늘어나며 메시지도 노골화되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노동’의 중요성, ‘실업’의 가치가 강조되는 것은 피식민 조선의 상황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1923년 판본에서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삶의 자세로는 ‘근검’을, 국민의 중요한 의미로는 ‘납세’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체주의’ 사상이 엿보이는데, 단순히 근검한 삶이 일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一家를 豊足케 하며, 一國을 富裕케 함에 가장 필요한 것”(98쪽)이라고 강조하고, ‘납세’ 또한 “國民의 第一 重大한 義務”(45쪽)이라 의미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피식민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권리 또한 주장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 “人民이 國家에 對하여 必要한 施設을 要求할 境遇에는, 各人이 此에 相當한 稅金을 納付치 아니치 못할지라.”(46-47쪽)이라는 문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1930년 판본으로 가면, 피식민 주체에 대한 규정과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전체주의적 사상이 한층 강조되는 것도 특징이다. 3권 9과의 ‘땀’에서는 교통순사, 구루맛군, 농부의 모습을 바라보는 학생이 등장한다. 하나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며 ‘노동’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학생은 벽찬 마음으로 “나도 땀을 흘리자”(29쪽)고 결심한다. 4권 16과의 ‘땀방울’도 산고개 길가에 앉아 빈대떡을 부쳐 파는 노파의 이마에 흐르는 땀이 “高價의 寶玉보다도 일층 더 아름답게 내 눈에 비”(54쪽)친다고 서술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재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단은, 그 일의 경중과 귀천을 따지지 말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은 돈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검약과 의연’을 보면 수재의연금을 걷기위해 나선 마을 사람들이 어느 부잣집 앞에서 머슴이 쓸만한 것을 내버렸다고 주인이 혼을 내는 것을 보고는 그를 인색하게 여기지만, 의연금을 잔뜩 내는 것을 보고 항상 검약하고 잔소리한 덕분에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는 곧 자신이 쓰는 것은 아끼고, 자선이나 공익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소’와 ‘실업’ 역시 동일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데, 결국 근면한 삶의 태도와 관련하여 가장 이상적인 존재는 소인 것이다. 서술자는 소는 근면하고 겸손하고 관대한 짐승이라는 표현과

함께 “萬物의 靈長이라 자랑하는 人間도, 너에게 배울 바가 하도 만쿠나”(18쪽)라고 말한다. 이러한 흐름은 최종적으로 ‘실업’이라는 단원과 만나 이 세상에는 관리, 군인, 변호사, 의사 등의 직업도 있지만, 농업·공업·상업 등의 실업이 중요하다는 첫 문장과 함께 피식민 주체인 조선의 학생들에게 ‘실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때 이 단원의 마지막 문장은 실업은 “國家富強에 가장 깊은 關係가 잇”(105쪽)다는 것이다.

1939년인 일제말에 이르면, 중일전쟁 발발로 전시체제로 전환되면서, 전체주의적 군국주의이데올로기는 완전히 노골화되는 양상으로 변화한다. ‘비행기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듣고 돌아온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를 전하며, 자신이 모은 돈도 헌금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이를 칭찬하면서 공통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여러 사람들이 모으면 많은 돈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간이학교용 조선어독본』에서는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군인들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돈이라도 바치는 것이, 당연한 일”(67쪽)이라고 말한다. 이는 다른 단원들을 통해 군인들에게 헌금과 위문품을 보내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묘사되며, 조선의 하늘에서 일장기가 그려진 군비행기의 모습을 보며 학생들이 “우리들이 바친 돈으로 만든 것도 잇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참 반갑”(60/78쪽)다고 느끼는 것으로 묘사한다. 특히 『간이학교용 초등조선어독본』에서는 다음의 서술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행기는, 기계가 썩 훌륭할뿐 아니라, 기계를 쓰는 사람의 재조가 펍 발달되어서,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든지, 조금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행기를 타고, 영국 런던까지, 아흔 네 시간 남짓에, 날아간 일이 잇서, 세계에 웃음이 되었습시다.²⁴⁾

이는 일제의 전력(戰力)을 과시하기 위한 서술로 일종의 프로파간다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선전은 ‘우리 국기’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일장기에 대한 묘사, 궁성요배(宮城遙拜)하는 조선인 가족의 모습에 대한 묘사와 함께 황국신민화 정책이 구체화되

24) 『간이학교용 초등조선어독본』, 77-78쪽.

는 양상도 잘 보여주고 있다.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작동하는 일상은 최종적으로 ‘일본군인 되기’를 꿈꾸는 피식민 주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²⁵⁾ 절정에 다다른다. 일제는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戰爭에 나가서, 몸을 잊어버리고, 싸우”(75쪽)라고 선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조건이 있다. 『조선어독본』 내에서 묘사되는 이러한 서술들은 반드시 조선인의 감화(感化)와 천황폐하에 대한 보은(報恩)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조선어독본』에 교묘히 숨어있는 식민지배이데올로기의 전략은 위에서의 지배와 강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적극성으로 포장되어 있기에 더욱 음험하다.

4. 『조선어독본』과 일제강점기 초등교육의 변화양상

전술한 다섯 종의 『조선어독본』을 살펴보면, 1911년 발행된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이야말로 초등교육의 역할을 가장 충실히 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공기, 새의 종류, 병자 위문 방법, 기차 발차, 시계 보는 법, 세계의 질서와 순서 등을 차분히 가르치는 이 책은 아동의 생활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풀, 꽃, 짐승들에 대한 관찰과 설명에서부터 시작해 운동회를 비롯한 학교에서의 여러 행사를 상세히 소개하고 조선의 지형(조선의 각도(各道)를 나누어 여러 단원에 걸쳐 상세히 기술함) 및 기후의 특징, 자연현상, 흔히 볼 수 없는 세계의 동식물, 고향년용으로 갈수록 근대문명의 결과물, 기술의 발전, 지구상의 인종, 세계 각국에 대한 서술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문장과 표현의 수준만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다루는 대상과 체계에 있어서도 그 수준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말기로 갈수록 조선인에 대한 교육은 명백한 수준 저하, 교육 퇴행이라 볼만하다.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에는 ‘조선-일본’의 관계를 서술하는 대목에서도 특이점이 있다. 이 책의 5권 7과는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로 조선총독부와 소속관서 등을 상세히 소개한 글인데, 이때 첫 문장은 일종의 선언 같은 “朝鮮은 大日本帝國の一部니”(14쪽)다. 일본과 조선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공식적,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조선어독본』의 서술방식 가운데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內地人은 朝鮮物産의

25) 이는 1938년 조선에서 시행된 ‘지원병제’를 반영한 것이다.

重要한 買主”(71권 9과)와 같은 표현 또한 일제말 묘사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일제말의 이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933년부터 총독부 학무과장을 한 오노 겐이치(大野謙一)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종래의 서당을 활용한 ‘간이 학교(簡易學校)’를 고안한 인물인데, 1933년 <문교의 조선>에 「朝鮮における初等普通教育の將來に對する」라는 글을 발표한다. 그는 이 글에서 농촌교육에 관해서 그 내용에서 읽고 쓰이기에만 치우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제적, 작업적 훈련을 중시할 필요를 통감하여 이것이 실제방법에 관해 고민하던 중 알비온대학교 칼튼(Frank Tracy Carlton) 교수의 『교육과 산업의 진화(Education and industrial evolution)』를 읽고 이를 조선의 초등보통교육에 적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썼다. 그는 그 책에서 현대사회는 조직의 역할과 협동이 중요하며 개인은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행복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학교의 목적도 여기에 두어야 한다는 부분에 깊이 감화되었으며, 개념과 언어를 도구로 삼는 추상적 교육이 아니라 실생활의 각종 조건을 학교교육에 이용할 것을 지향하게 된다.²⁶⁾ 당시 총독부는 독서교육은 근육적 운동을 싫어하는 고등유민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불선’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비국민을 만든다고 여겼다. 조선인을 “서있는 농민보다도 앉아있는 신사가 되는 것을 희망”²⁷⁾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 총독부의 생각은 곧 학교에서의 노동훈련이 이데올로기 교화의 강력한 수단임을 보여주었다.

‘교육실제화’ 정책은 1929년 6월 20일 「소학교규정」 및 「보통학교규정」 개정,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발표된 「조선총독부훈령 제26호」를 통해 본격적인 보통학교 교과과정 변화로 이어졌다. 1930년대 총독부의 보통학교 교육과정 정책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인 훈령 제26호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업에 대해 견실한 사념을 부여하여 근로를 호애하며 흥업치산의 지조를 공고하게 하고 또한 자영 진취의 기상을 기르는 것은 매우 긴요한 요무이다. 공연히 독서교육의 폐에 빠져 수업의 효로서 오로지 봉록에 의식하려 하는 것과 같이 잘못된 지향의 교정에 관해서는 매우 깊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 **헛되이 교상에 흐르거나 지나치게 실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등의 폐단에 빠짐이 없이 수신 등과의 연락을 밀접하게 하**

26) 이명화, 앞의 글, 211-213쪽 참고.

27) 오성철, 앞의 책, 294쪽.

고 비근하고 적절한 실례에 유의하여 그 수업의 효과를 내도록 하며 항상 여자의 일상생활에 적절하도록 하는 것을 힘써야 한다.²⁸⁾ (강조는 인용자)

즉, 일제말로 갈수록 위인전기, 전래동화나 우화 등 학생들에게 생활의 지혜와 읽기의 재미를 느끼게 할 만한 제재들은 모두 사라지고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헌금, 위문금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각자의 방식으로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충후봉공(銃後奉公)의 자세가 강조되는 것은 첫째, 피식민 주체에게 보통교육 다음단계의 교육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 배움이 그들을 사로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교육의 대상에게 학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못하는 아이러니는 곧 피식민 주체로 하여금 단 두 갈래의 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실업(實業)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거나 직접 군인이 되거나. 그러나 전자의 삶도 그 최종 목표는 돈을 모아 “총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초등조선어독본』1, 37쪽)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당시 일본이 강조하던 성전(聖戰)에 참여하기 위해서만 존재의 가치가 있는, 피식민 주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5. 결론

피식민자의 입장에서 조선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일본의 전투기를 보는 심정은 어떠했을까. 조선총독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인 학생이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벽찼을까. 내 나라를 짓밟은 지배자가 또다시 다른 나라를 장악하기 위한 전쟁을 치를 때, 이등 국민이나마 되겠다고 앞장선 여느 어른들과 학생들의 처지는 달랐을 수 있다. 김동인은 1942년 「感激과 緊張」에서 “이미 자란 아이들은 할 수 없지만, 아직 어린 자식들에게는 ‘日本과 朝鮮’의 別個存在라는 것을 애당초부터 모르게 하련다”²⁹⁾라고 썼다. 여기에는 조선과 일본의 완전한 동화를 꾀하는 김동인의 사고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당시 그의 어린 자녀들을 교육했던 초등교육 교재인 『조선어독본』만 보더라도 피식민자와 식민자가 완전히 동등한, 나아가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구상은 허

28) 山梨半造, 「朝鮮總督府訓令第二十六號」, 『朝鮮總督府官報』, 第七三九號, 昭和4年6月20日.

오성철, 앞의 책, 283쪽에서 재인용.

29) 김동인, 「感激과 緊張」, 『매일신보』, 1942. 1. 23.

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만의 가치를 담고 있던 역사와 전통, 인물, 이야기들은 지워지고, 『조선어독본』이 최후에는 일제의 체제를 찬양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당시 초등교육의 존재 의의가 피식민주체에 대한 제국의 권위주의적 국민정신교육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토론문

박 치 범

경인교육대학교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국어’ 교과서 『조선어독본』을 대상으로 교육령기 별 주요 수록 제재를 검토하여 일제가 마련한 초등교육의 의의를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자가 밝힌 것처럼 이 연구는 특정 시기에 한정된 선행 연구와 달리 전(全)시기에 걸친 『조선어독본』의 특징을 살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습니다. 22권의 교과서를 꼼꼼하게 살펴 차이와 특징을 가려낸 연구자의 노력이 엿보이는 연구입니다. 국어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우리말과 글, 그리고 국어교육의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데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발표문을 읽으면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발표자께서 이번 발표문을 논문으로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의문과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1. 발표문이 ‘『조선어독본』=조선(인에 대한) 교육’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자께서도 잘 알고 있듯, 『조선어독본』은 일제강점기 초등학교급 조선어 교과용 교재입니다. 『조선어독본』은 일제 교육 정책을 표상하는 징후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당대 교육의 전모로 여겨질 만한 자료는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4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14쪽에서 『조선어독본』의 내용 구성 변천을 지적하며 “일제말기로 갈수록 조선인에 대한 교육은 명백한 수준 저하, 교육 퇴행이라 볼만하다.”라고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초등 교육의 각종 체제와 내용(교과목, 교과 내용, 시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 양성 체제 등)에 대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어독본』의 내용

구성만 가지고는 일제의 조선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이 시기 조선어 교육의 내실에 대한 평가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15쪽에서 연구자는 ‘교육실제화’ 정책의 내용을 제시하며,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선어독본』의 텍스트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실제화는 초등학교급 특정 교과용 교과서에 실린 몇 편의 글로 실친 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배경과 연결되는 이데올로기 내지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선어독본』에 어떤 글이 실렸는가만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교육실제화 정책 전후 보통학교의 체제가 어떻게 바뀌었고, 다른 교과에서는 해당 정책이 어떻게 적용(실현)되었는가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시할 때 논의의 설득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2. 적절한 근거 없이 연구자의 주장이나 해석이 제시되어 설득이 떨어지는 경우도 눈에 띕니다. 발표문 2장의 제목은 ‘『조선어독본』의 간행 배경: ‘학무국’과 ‘조선어’ 독본이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어’ 교과서 발간 주체 변화의 의미, 교과명 ‘조선어’의 의미, 그리고 각 시기 『조선어독본』의 성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부합하는 구성입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소논문의 한 장으로 처리되기에 너무 방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각은 당대의 다양한 맥락과 당대 생산된 정책(주로 교육) 관련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구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³⁰⁾ 방대한 내용을 짧게 처리하려다 보니 2장에서 제시한 ‘국어’ 교과서 발간 주체 변화의 의미와 교과명 ‘조선어’의 의미는 상식적인 진술에 그쳤고, 각 시기 『조선어독본』의 성격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단정적인 서술로 되어 있어 아쉬움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통학교조선어독본』(1923)은 식민주체로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등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근검’, ‘성실’, ‘예의’ 등의 덕목이 구체화되고 강조된다. …… 이러한 행동지침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일제가 양성하고자 한 당대 피식민 주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5쪽)와 같은 대목의 경우 전적으로 연구자의 판단으로만 되어 있을 뿐, 관련 자료나 선행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아울러 앞서 지적한 것처럼 『보통학교조선어독본』(1923)에 수록된 글을 살펴 “일제가 양성하고자 한 당대 피식민 주체의 모습”을 보기에 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30) 본론의 배경으로서 해당 내용을 한 장에서 정리하고자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선행 연구를 제시하여 각각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全)시기 『조선어독본』 내 동일 수록제재 및 텍스트의 변화양상’을 다룬 3장의 경우에도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각 시기 『조선어독본』에 수록된 텍스트의 제목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술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교과서의 대목을 뽑아 대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³¹⁾

3. 발표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동일 제재 선정 기준과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는 연구 대상 내지는 연구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발표문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생활의 덕목이나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단원은 제외하고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한 대상으로 총 4가지의 수록제재를 선정하였다.”라고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활의 덕목이나 단순한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해당 단원을 왜 제외하였는지, 발표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다루는 ‘空地’이나 ‘전래동화 및 우화’, ‘황국신민의 의미’는 각각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생활의 덕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지 등과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연구 대상을 선정한 기준과 과정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신다면 발표문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제재’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어 교과서 연구에서 ‘제재’라는 말은 주로 ‘국어 수업의 제재’ 즉 교과서에 실린 글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동시에 ‘제재’는 일반적으로 ‘글의 중심 소재(화제)’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발표문에서는 ‘제재’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 글을 가리키거나 글의 소재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래는 ‘제재’라는 말이 다른 뜻으로 사용된 예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全)시기 『조선어독본』을 정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통) 수록 제재’를 선정하였다. (2쪽) → 글의 중심 소재

이를 통해 교육령이나 시기별로 해당 제재에 대한 서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2쪽) → 글의 중심 소재

31) 1.~2.에서 지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연구 대상이 되는 교과서 수록 글을 시기별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중심으로 줄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연구자의 주장을 보다 분명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당대 초등교육의 의의를 보다 설득력 있게 해명하기 위해 논문의 2장을 일제강점기 초등학교급 교육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황국신민의 의무’에 관한 제제들이다. (6쪽) → 수록된 글

1911년 발간된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에는 시기상 당연히 이러한 내용의 제제가 실릴 수 없다. (13쪽) → 수록된 글

발표문의 의도가 ‘교과서에 실린 글 중 동일한 중심 소재를 다루는 것’을 뽑아 시기별 차이를 살피는 데 있으므로, 이에 걸맞게 ‘제제’라는 용어를 정리하여 사용했으면 합니다.³²⁾

혹시 발표문을 잘못 읽었거나 맥락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알고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디 저의 질문과 제안이 향후 발표문 검토에 조그마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32) 예를 들어 ‘제제’-‘중심 소재’나 ‘본문’-‘본문의 제제’처럼 통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중·후기 지역 문학장의 변모 양상과 강호가사의 의미 지향*

윤 지 아
안동대학교

1. 들어가며
2. 조선 중기: 지역 문학장의 부상과 강호가사의 외연 확장
3. 조선 후기: 지역 문학장의 분화와 강호가사의 다변화
4. 조선 중·후기 강호가사의 시가사적 의의

1. 들어가며

1.1. 연구 목적

본고는 조선조 전반에 걸쳐 향촌사족의 문예 전통으로서 명맥을 이어왔던 江湖歌辭의 역사적 전개 양상 가운데, 특히 조선 중·후기를 대상으로 그 창작 및 향유 맥락을 검토하고 작품의 의미 지향을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둔다. 작가와 작품을 둘러싼 구체적 현실에 주목하기 위하여 ‘문학장(場)’이라는 개념어를 전면화하고, 이로부터 그간 경제적, 정치적 입지의 차원에서 작가와 작품을 조명하였던 선행 논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강호가사는 조선조 시가사 전반을 관통하는 가사 유형이다. 현전 작품은 총 35작품으로 파악되며¹⁾ 전 시기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편이다. <賞春曲>, <俛仰亭歌>와 같은 강호가사 초기 작품들은 ‘歌辭의 嚆矢’ 혹은 ‘江湖歌道를 唱導’ 했다는 의의를 부여받으며 가사문학사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 본 발표문은 윤지아, 「조선 중·후기 지역 문학장의 변모 양상과 江湖歌辭의 의미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을 일부 요약한 것이다.

1)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작가가 비교적 분명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무명씨 작품 중 강호가사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을 받아왔다. 여기에 송강 정철의 문학적 성취가 더해져 송순과 정철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가단 연구²⁾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호남 지역은 가사문학의 산실로 주목을 받았고, 이에 해당 지역 작가와 작품들이 지역 문화의 구심점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정철의 <星山別曲>은 전대의 강호가사와 후대 강호가사의 교량으로 평가되었으며, 후속 강호가사 대부분은 조선 전기 작품들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17세기에 창작된 <止水亭歌>, <梅湖別曲>, <蘆溪歌>, <水南放翁歌> 등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해당 작가의 구체적 생애 국면 등에 착안하여 작품의 독자적 의의를 설명하면서도, 이 작품들이 근본적으로 이전 강호가사를 계승한 작품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연구사적 흐름 속에서 18세기 이후의 강호가사들은 시대적 선후관계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개가 행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한미한 향촌사족에 의해 창작되었을 뿐 아니라, 작품의 내용, 표현, 미적 지향 등에서 아주 새롭거나 빼어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탓에 강호가사 중에서도 조선 후기의 작품들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여전히 낯설다.

한편 강호가사의 내용 및 주제에 관한 논의는, 작품들이 보통 작자의 만년 혹은 관직생활과 거리가 먼 시기에 창작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은거 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노래 내지 관직 출사가 막힌 향촌사족의 현실적 좌절이 이념적 위안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나타난 자기표백이라는 해석적 스케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작품의 형식이나 어휘, 어구 등으로 대변되는 표현적 측면에서는 작가의 개성이 잘 나타나기보다는 관습성이 강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처럼 강호가사는 국문시가의 선구(先驅)로 출발하여 이후 문학사의 저변에서 곳곳이 맥을 이어왔던 가사의 중심 유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긴 역사적 흐름 내부에 단층은 과연 없었을까. 강호가사에서 관습적 표현과 의미 이상을 읽어내기 힘들다면 이 작품들의 존재양상은 그저 재래 문학의 모방이라고 볼 것인가. 어쩌면 연구 방법론이 작품의 외견에 치중하여 역사적 변화 추이에 무심했던 것은 아닐까.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의문점을 바탕으로, 현전 강호가사를 종합적 차원에서 재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진단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위해 강호가사의 창작 및 향유 계층이었던 향촌 문인들 간의 교류 관계를 ‘문

2) 정익섭, 『(改稿) 湖南歌壇研究』, 민문고, 1989.

학장(場)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을 제안하고, 작가 개인의 생애, 정계 출사여부, 경제적 등을 작품에 단선적으로 투영하는 해석 방식에서 벗어나, 작가가 놓여있었던 사회적 의미망 속에서 문학 활동의 동기와 작품의 의미 지향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강호가사의 상당수가 한시, 누정기, 시조 등 여러 다른 문학 양식과 함께 창작되었다는 점은 이와 같은 시각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즉, 강호가사는 작가가 누정, 초당과 같은 은일공간을 짓고 그곳에서 여러 문인들과 교유하며 가창이나 음영할 목적으로 창작된 작품으로 “노래의 전통 선상에 서서, 당대적 의미 부여인 辭賦나 漢詩, 時調들에서, 지식인 계층으로서의 소양이 반영된 관습적 표현 체계를 빌어서 형성된 것”³⁾이다. 따라서 작품을 단순히 작가 개인의 서정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당대 문인 계층의 집단 의식 및 정서를 아울러 투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온당하다. 인물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정보가 족보, 향안 등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자료화 되어 있는 향촌 사족 계층은 이와 같은 실증적 분석이 비교적 용이한 작가군으로, 작가의 교유 관계를 기준으로 한 문학장(場)을 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사대부 국문시가의 창작, 향유 환경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1.2. 서술구도

본 논문에서는 문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이로부터 비롯된 문학적 소통 범위를 지칭하는 말로 ‘문학장(場)’⁴⁾이라는 개념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간단히 말하면, 문학장은 문예 활동을 매개로 한 문인들의 교유 관계망을 의미하며,⁵⁾ 여기에는 士 계층

3) 윤덕진, 『江湖歌辭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51~52면.

4) 문학장이라는 개념어는, 이미 문학사회학 영역에서 고유한 정의 및 용례를 갖추고 있는 학술용어로 기존 개념과의 구분을 위하여 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문학 텍스트와 문학 행위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문학적 실천을 매개하는 공간이자 자율적인 사회적 소우주”(신미경, 『프랑스 문학사회학』, 동문선, 2003, 106면.)를 문학장이라 부르며, 문학의 가치 창조에 개입하는 사회적 조건을 밝혔다. 그는 19세기 이후 서구권에서 가시화된 문학적 질서의 점진적 제도화, 즉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작가와 그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다양한 지표들(학술원, 교육 기관, 작가협회 등의 인준), 그리고 이것을 ‘문학 소양 교육’의 형태로 수용 및 재생산 하는 가정 및 학교 교육 등에 착목하여, 결국 ‘문학적 가치’란 아카데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의 권위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신념’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문학장’은 문학 작품의 생산, 평가 따위를 둘러싸고 헤게모니 투쟁이 벌어지는 사회 문화적 공간으로, 문학의 직접적 생산자인 작가 뿐 아니라, 작품의 가치 생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모두에게 작용하는 힘의 장이다. 해당 내용은 현택수, 『문학 생산의 장』, 김민환 외, 『문학의 새로운 이해: 문학의 문턱을 넘어서』, 문학과 지성사, 1996, 45~46면; 신미경, 앞의 책, 117면.

내부에 작동하였던 여러 유형의 사회적 연망(緣網)⁶⁾이 반영되어 있다. 주지하듯, 문학적 소양은 유학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양이었을 뿐 아니라 문인 네트워크 안에서의 품위, 명성, 동류집단의 형성 등을 가르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관직 진출이 용이하지 않았던 향촌의 선비들에게 문학장은 유학자로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었다. 이와 같은 ‘문학장’ 개념의 설정은 작가의 경제적, 정치적 처지에 근거하여 작품을 살펴보았던 종래의 연구들에서 간과하거나 비교적 소략하게 다루었던 작가의 사회적 활동 양상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여 작가와 작품에 대한 진전된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문학장은 최근 고전문학 연구에서도 간혹 용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쓰고 있으나, 대개 문학을 둘러싼 역사적·사회적 환경과 텍스트 사이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암시하는 개념으로 장(場)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 본고의 개념 또한 선행 연구에서 쓰인 일반적인 의미와 동일 선상에 놓여 있다. 즉, 작품 산출의 구체적인 환경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그 동안 단편적으로 해석되어왔던 작품의 여러 면모를 조명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문제 제기 과정에서 지시적 어휘로 문학장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굳이 논의의 개념적 도구로 전면화 한 이유와 그 효용은 무엇인가? 이를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예 활동을 매개로 한 교유관계는 당대 문인들의 이해(interests) 내지 가치 체계를 보여주는 적당한 모델이며, 필자는 이와 같은 문학장(場) 내에 작동하였던 당대 문인들만의 자율적인 규범이나 상호 인준이 이들의 행위 및 정체감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가정한다. 즉, 중앙 관직 진출 여부나 경제적 여건과 같은 물질적 가치 외에 이들이 추구하였던 ‘문화 권력’ 내지 ‘상징 권력’⁸⁾이 무엇

5) 본고에서 문학장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서술할 경우 대개 이 의미와 등치된다.

6) 봉당, 학백, 혈연 등과 같은 것은 士 계층을 규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연망이었고, 이는 종종 중층적으로 나타나 특정 시기, 지역의 사족층을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 기준이 되었다.

7) 하윤섭은 담론 생성의 역사적·사회적 조건을 장으로 일컬었고(“본 논문은 조선조 ‘오륜(五倫)’ 담론의 역사적 변이 양상을 계보학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오륜시가의 시기별 출현 양태와 비교·검토해봄으로써 문학이 문학을 둘러싼 ‘문학장(場)’의 변동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가를 실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하윤섭, 「조선조 ‘五倫’ 담론의 계보학적 탐색과 오륜시가의 역사적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면.), 이승은은 『天倪錄』과 『東稗洛誦』 두 작품집의 형성을 둘러싼 문학적, 문화적 환경을 장으로 지칭하였다(“...두 작품집이 야담이라는 문학장 내에서 접하는 좌표적 위치를 파악한 후, 이들이 편찬된 시기의 차이를 고려해 사적 연계도 함께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승은, 「18세기 野談集의 서사지향과 서술방식: 『天倪錄』과 『東稗洛誦』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86면.)

이었는지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사회학적 의미에서 문화는 “다수에 의해 획득되고 공유되는 규범과 실천들인 가치들의 총체에 상응한다.”⁹⁾ 따라서 본고에서는 작가가 직접적으로 맺고 있었던 인맥 관계로부터 그와 의식 세계를 공유하고 있었던 집단이 무엇이었는지 구체화하고, 해당 집단이 추구하였던 가치 체계와의 연관 하에서 작가가 위치하였던 문화적 좌표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둘째, 장(場) 내부의 역학 관계에 주목하여 작가의 문학 창작 및 작품이 갖는 대사회적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이는 몇몇 개별 작품론을 제외하고는 기존 논의에서 향촌사회 내부의 여러 논쟁 및 사건 등을 충분히 탐착하지 않았기에 다시금 살필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향촌 사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사건 및 논쟁들은 향론 주도권의 향방을 읽어낼 수 있는 지표로, 이는 향촌 문인들의 삶에서 어쩌면 역사의 거시적 흐름보다 더욱 큰 중량을 차지했을지 모르는 부분이다. 평생을 향촌에서 보냈다는 동일한 생애 배경을 갖고 있더라도, 개별 작가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향촌 내부의 의미망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나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학 활동을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한 양식으로 보고, 사회 참여 행위의 관점에서 강호가사를 통한 발화가 당시 어떠한 대사회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보다 집중해 보고자 한다.

8) 이는 부르디외의 ‘문화 자본’, ‘상징 자본’의 정의에 착안한 것이다. 부르디외는 마르크스와 달리 자본을 경제적 차원에 국한시키기를 거부하면서, 자본을 사회적 경쟁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로 보았다. 부르디외의 문화 자본은 학교제도에 의한 것이든,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든 지니고 있는 지적 자격의 총체에 상응한다. 이러한 문화자본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신체가 보여주는 지속적 태도와 같이 동화된 상태, 그림 서적과 같은 문화적 재산, 학위와 같이 제도적인 승인 등으로 존재한다. 상징 자본 역시 부르디외의 개념어로 이는 명예와 인정에 관련된 의식들 전체(예의범절, 의례)에 상응한다. 상징 자본은 결국 부르디외가 개념화 하는 여러 형태의 자본들, 즉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관계) 자본의 소유와, 그에 대한 승인이 행위자에게 부여하는 신용과 권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과 방정한 품행 규칙들이 단지 사회적 통제의 요구가 아니며, 실제로 그것들이 중요한 사회적 특권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점을 부르디외는 이를 ‘문화 자본’, ‘상징 자본’이라고 하였으나, 전근대 유교 사회에 적용할 경우, 양반으로서의 우아한 신체나 儀狀, 학술이나 문학에 침잠하는 지적 활동, 師門을 기준으로 한 상호 인정 등은 상위 계급으로서의 위치를 현시, 유지하는 문화적 장치로 ‘문화 권력’ 내지 ‘상징 권력’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부르디외 또한 자본과 계급 권력을 동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환 가능한 용어라고 생각한다. 부르디외의 개념에 관한 설명은 파트리스 보네위츠, 『부르디외의 사회학 입문』, 동문선, 2000, 64~66면; 피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上』, 새물결, 2005, 13~14면을 참조하였음.

9) 파트리스 보네위츠, 앞의 책, 109면.

셋째, 문학장은 ‘지역’ 내지 ‘지역성’을 보완하는 개념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우리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지역’의 개념은 행정 구역의 의미에 상당히 긴박되어 있으나, 당대인들은 지역 내부에서의 교유를 통해 해당 지역만의 문화를 형성 및 공유하였다. 강호가사 또한 이와 같은 지역 문화 인식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학 장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장을 중심으로 강호가사의 창작 환경을 살피는 것은 지역 문화와 문학의 상호작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적실한 연구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최근 지역 인식을 당대의 경험의 차원에서 재구하려는 인문 지리적 문학 연구 경향¹⁰⁾과도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문학장’ 개념을 전면화한 이유는 작가의 출처 여부나 경제적 처지를 중심으로 작품을 독해하였던 기존의 단선적 반영론을 극복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본고가 마련한 시각 또한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본고의 관점 역시 작가의 문학 활동에 모종의 전략적 동기가 있음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개인의 내면을 담담히 술회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작품을 지나치게 대사회적 관점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는 문학장 이론을 주창한 부르디외 사회학의 한계로 지적된 바, 그의 행위 이론에는 “초월(transcendence)의 여지, 윤리의 독자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¹¹⁾으며, 결국 그의 아비투스, 장 이론 또한 개인의 능동적 행위 보다는 득과 실이 존재하는 세계를 다루고 있다.¹²⁾ 그럼에도 문학장을 뼈대로 둔 본 작업은 작품 창작의 동기와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 더욱 풍부하고 실증적인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 그간 강호가사 연구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수용·보완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종래의 연구에서 작가 생애에 놓인 과업의 실패는 곧 작중 음울한 정서의 해석적 근거로 이어지고, 작품 속 빈한한 삶의 표현은 곧 경제적 빈한함의 사실성 검토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행위자’¹³⁾로서 작가가 위치하였던 사회적 좌표를 보다 섬세히 규명하고, 향촌 활동

10) 대표적인 논의를 들자면 박수진,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문화지리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창원, 『고전시가의 지역성과 심상지리 : 조선시대 서울 및 근기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사, 2018.

11) 김상준, 『맹자의 탐 성왕의 피: 중층근대와 동아시아 유교문명』, 아카넷, 2011, 252면.

12) 김상준, 앞의 책, 248~259면.

13) 김홍규는 그간 한국학 연구에서 ‘근대’, ‘근대성’ 개념이 누려왔던 특권과 연구사적 공과(功過)를 검토하고, 향후 한국문화 연구가 나아갈 방향으로 ‘행위자의 귀환’에 주목하였다. 이는 우리의 연구가 근년까지 시간축 위주의 거시적, 계열적 관심사에 치중하면서 행위자들의 개별적 입

이 거업의 실패에 따른 차선의 선택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사회적 동향과 긴밀히 조응하고 있는, 나름의 명분과 능동성을 갖춘 행위였다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2. 조선 중기: 지역 문학장의 부상과 강호가사의 외연 확장

2.1. 居鄕 윤리의 형성과 지역 문학장의 부상

사화기에 자신의 고향이나 처향 등지로 낙향한 문인들은 향촌에서 후손과 후학을 양성하였고, 이들은 향촌 사회의 지배 계급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향촌 사족들은 사회, 전란, 환국 등 정치적 격변기에 대응하며 그 내부에서도 결속을 위해 거향 윤리를 발달시키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문학장 또한 문인들의 삶과 정체성에 이전보다 더 지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이상세계를 향한 호활한 미의식을 펼쳐내었던 16세기 호남사람들의 그것과도, 한강을 중심으로 선유 및 성시(城市)에서의 은일 문화를 향유하였던 마포 서강 유역의 문인들과도 차이를 보인다. 향촌 내부의 위계와 인준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향촌 사회에서 반격(班格)을 가르는 주요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¹⁴⁾ 직계 조상(3대)의 사회적 지위, 명문가와와의 인척관계, 그리고 유학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유교적 가풍 및 교양 수준을 유지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국가의 제도적 인정과는 별개로 다분히 비공식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중앙의 요직을 역임한 관료라 하더라도 향촌 사족들이 인정하는 반격에 맞지 않으면 향안에 오르기가 힘들었던 한편,¹⁵⁾ 유학에 조예가 깊으면서도 과거에 응하지 않는 산림(山林) 중 저명한 학자는 문과 합격자에 필적하는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향촌 사족은 유교 윤

지, 동기, 선택, 의미구축의 차원을 소홀했다는 비판을 전제하는 것으로, 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구조'와 개인의 '능동성' 중 후자의 의의를 재평가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최근 하운섭은 송암 권호문의 시가에 대한 새로운 독법을 제출하였다. 해당 내용은 김홍규, 『근대의 특권화를 넘어서』, 창비, 2013, 233~240면; 하운섭, 「행위자의 귀환'과 송암 시가의 재해석」, 『민족문화연구』 71, 민족문화연구원, 2016.

14) 이하의 서술은 미야지마 히로시, 『양반』, 너머북스, 2014., 후지야 카와시마, 「안동의 대가세족: 문화귀족의 정립을 중심으로」, 『안동학』 1, 한국국학진흥원, 2002. 을 참조하였다.

15) 면양(倅仰) 송순(宋純)이 대사헌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향안 입록까지 다소간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임형택, 「16세기 光·羅州 지역의 사림층과 송순의 시세계」,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 비평사, 2002.

리를 기반으로 가족 내의 공동체적 질서와 자기 수양을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 등의 예를 극진히 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의 현시(顯示)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표상하는 귀족적 문화를 바탕으로 지배계급으로서 향촌 사회가 준수해야 할 도덕적 규범과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향촌의 유교화를 이끌었다. 물론 이와 같은 귀족적 생활양식 이면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경제력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상위 반격에 있는 명문가가 더 부유한 하위 반격과 혼인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반대로 토지 운영 등으로 부를 축적한 후 명문가와 혼사를 통해 가문의 반열을 높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정정도 유족함을 갖춘 명문가에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하위 반격과 혼인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대개 유교적 가풍에 누가 되지 않는 혼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례로 계암(溪巖) 김령(金垞, 1577~1641)은 결혼 상대 집안의 가격(家格)을 지나치게 중시한 탓에 아들들의 혼사가 한없이 지체되는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김령이 꼼꼼히 따졌던 기준은 상대 내외 친인척의 문벌, 집안의 법도, 당사자의 됨됨이 등이었고,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자식 넷을 이 기준에 부합하는 혼처에 출가시켰다.¹⁶⁾

이와 같이 향촌 사회 내부에서는 관직 진출 여부 이외의 비공식적인 부분도 반격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고, 이러한 평판은 대개 누대에 걸쳐 해당 지역에 세거하면서 형성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획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사화기에 낙향한 사족들은 보통 가문에 화를 입거나 화를 간신히 면한 상황에서 이주하였으므로, 자기 대에 다시 출사하기를 원하기 보다는 향촌에서 터를 닦으며 훗날을 기약하거나 가학을 쌓아 올려 지역 내 ‘문화귀족’¹⁷⁾으로서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기대했다. 따라서 그들은 후손들에게 벼슬길에 나가지 말고 학업에 힘쓰라는 유훈을 남기기도 했으며, 후손들 역시 과업에 힘썼지만 몇 차례 전란과 환국으로 이어지는 혼란한

16) 김성우, 「16~17세기 사족층의 분화와 중층적 사회 연망의 작동 구조」, 『한국사연구』 178, 한국사연구회, 2017, 197~198면.

17) ‘문화귀족’이라는 말은 후지야 카와시마(2002), 앞의 논문에서 관직 진출로 위계의 공식성을 획득한 관료적 귀족계층과는 달리 비공식적인 귀족적 속성(출생, 결혼, 출신지역)을 통해 지배세력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향촌사족 계층을 설명하는 어휘이다. 본고 또한 중앙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인 유학자 배출, 학맥, 혼맥 등으로 해당 지역에서 상류층으로서 영향력이 있었던 향촌 사족계층을 지칭하는 말로 이 개념어를 활용하고자 한다.

정세를 살피 무리하게 출사하지 않았고 문화귀족으로서 지위를 성취·유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로부터 나타난 처사지향적인 문화는 향촌에서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종의 내부윤리와도 맞닿아 있었다. 16, 17세기의 거향은 단순히 향촌에서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성격을 띤 사안이었다. 거향처신이 인물평에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기도 하였으며 중앙정계에서까지 시비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향촌 사족들은 훗날 화를 입지 않기 위해 언행거지를 조심하였고 유학에 정진하였으며 스스로 모난 행동을 하지 않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향처신에는 향촌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또한 개재하여 있었다. 이들이 정주(程朱)의 예에 맞게 절제된 처신을 했던 핵심적 이유는 나라에서 파견한 수령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관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관권으로부터 독자적인 향권을 장악하기 위함이었다.¹⁸⁾ 따라서 이 시기 향촌에 세거하며 은일 처사의 삶을 표방하는 것은 현실 정치와의 단절이 아닌 향론을 기반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였으며, 지배세력으로서 교양 및 품위를 드러내어 향촌 사회 내에서 인정을 받기 위함이었다.

향촌사족이 지배세력으로서 입지가 강화되었던 만큼, 지역 문학장 또한 전대에 비해 풍부해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문인들은 수학(受學), 교유(交遊), 종유(從遊) 등의 형태로 이와 같은 문학장에 참여하였다. 이때의 문학장에는 친족 관계, 학연, 정계에서의 인연 등 수많은 연망이 혼입되어 있었고 이러한 연줄은 종종 서로 구분이 되거나 배타적이지 않고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학장을 바탕으로 향촌 사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갔으며 문화귀족으로서의 삶과 내적 방황 등을 문학을 통해 토로하였다. 향촌 사족들은 공통적으로 난세를 만난 불운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상호 간의 인정과 연대를 통해 처(處)의 명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2 조선 중기 강호가사의 의미 지향

① 영남: 지역 학맥의 권력화와 향촌 문화의 재편

- <지수정가>, <매호별곡>, <노계가>

18) 이상 거향관에 관련한 내용은 김인걸, 「조선후기 재지사족의 거향관(居鄉觀) 변화」, 『역사와 현실』 11, 한국역사연구회, 1994, 156~162면.

조선 중기의 강호가사 창작 동향을 대표할 만한 작가군을 지역적 지표를 영남, 호남, 충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영남 지역은 학맥 인식의 심화 및 각축 조짐이 보이고 있었고, 이로부터 영남의 작가들은 향촌 사회 내에서 각각 다른 입지와 문화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김득연(金得研, 1555~1637)의 본관은 광산(光山)¹⁹⁾으로, 자는 여정(汝精), 호는 갈봉(葛峯)이다. 연이은 사회로 정치 현실의 냉혹함을 몸소 체감하였던 그의 증조부 김용석은 임종에 이르러 저술을 모두 불태워 버리고 자손들에게 벼슬에 나아가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갈봉의 조부 김주는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대과에 응하지 않았고, 아버지 김언기는 퇴계의 학통제자로서 평생 학문을 연마하고 뛰어난 후학들을 길러내어 안동을 대표하는 학자로 명성을 얻었다.²⁰⁾ 김언기는 퇴계 문하에서 학식이 드높았던 여러 인물들과 교유하며 향론 형성의 중심에 있었다.²¹⁾ 이와 같은 처사지향적 가풍을 따라 김득연 역시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 힘쓰며 아버지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던 여러 문인들과 교분을 나누었다. 58세(1612) 늦은 나이로 생긴 양시에 합격하지만 유훈에 따라 대과에 나아가지 않았고, 부친의 묘소 아래 지수정(止水亭)을 짓고 은거의 길로 접어든다. 현전하는 김득연의 국문시가의 상당수는 이 지수정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다. 이후 김득연은 68세(1622)에 지수정 근처에 여덟 칸의 분암(墳庵)을 마련하여 용동정사(龍洞精舍)라 명명한 후, 제를 올리고 강학 활동을 하는 등 제 2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²²⁾

현재까지 남겨진 김득연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100명을 상회하며²³⁾ 이들의 대부

19) 구체적으로는 김열(金闕)을 증시조로 하는 광산 김씨 퇴촌공파(退村公派)로, 김득연은 6대손에 해당한다.

20) 그의 문인록에는 189명의 문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16,7세기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었던 처사형 사림의 중심인물로서, 향론을 형성하는 주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상세 내용은 설석규, 「유일재 김언기의 학풍과 학맥」, 『퇴계학과 유교문화』 30집,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1, 20면.

21) 백담(柏潭) 구봉령(具鳳齡),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 후조당(後彫堂) 김부필(金富弼), 일휴당(日休堂) 금응협(琴應夾), 회곡(晦谷) 권춘란(權春蘭), 지산(芝山) 김팔원(金八元), 문봉(文峯) 정유일(鄭惟一), 약봉(藥峰) 김극일(金克一) 과 교유하였다. 김언기, 『유일재선생일고』, 「행장」(김언기 외, 『국역 용산세고』, 한국국학진흥원, 2011.)

22) 이상 김득연의 가계 및 생애 관련 서술은 이상원, 「16세기말~17세기초 사회 동향과 김득연의 시조」, 『어문논집』 31, 민족어문학회, 1992, 146~148면; 김진선, 「갈봉 김득연의 시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9~28면을 참조하였다.

23) 김종석, 「갈봉 김득연의 학문과 사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30집,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1, 97~98면.

분은 유일재의 문인이거나 광산 김씨 친족, 안동 및 그 인근에 세거하였던 명문가 일족들이었다. 김득연은 김언기의 문도들로 구성된 ‘낙계회(洛契會)’와 안동의 동성친들을 중심으로 한 ‘광산김씨성회(光山金氏姓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구심점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문집에는 늘 잊지 않고 한 자리에 모인 낙계회 문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시가 남아 있으며,²⁴⁾ 1603년부터 병자호란 발발 전까지 약 20여년 간 지속되었던 광산김씨성회 모임에도 81세까지 지속적으로 참석하였다. 특히 광산김씨성회를 통해 혈연적 연대감을 확인하는 모습은 주변에 공감과 흥취를 일으켜 향촌 교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²⁵⁾

이처럼 향촌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김득연이지만, 만년에는 퇴계분과 간 역학관계로 모종의 신경전을 치러야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퇴계가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핵심제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계과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서원의 설립과 배향 문제를 중심으로 가시화된다. 1574년 이황을 제향한 예안의 도산서원과 안동의 여강서원이 각각 건립되면서, 퇴계학의 학문적 계승과 학과의 공론형성의 중심이 이 두 서원에 쏠리게 되었다. 도산서원은 퇴계가 세상을 떠난 이듬 해, 조목 등 예안 지역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것이다. 생전 이황이 강학과 수신을 위해 설립한 도산서당의 기능을 흡수함과 동시에 그의 위패를 봉안함으로써 명실상부 퇴계 계승의 명분과 위상을 갖춘 도산서원이었다. 그런데 이와 거의 동시에 안동에 여강서원 건립이 추진되었고 초대 원장으로 추대된 김언기의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복수 서원 건립의 명분은 주회를 제향한 서원이 20여 곳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고, 이때까지 두 서원은 퇴계학이라는 학문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학과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역할분담을 통한 공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김언기가 안동부에 여강서원 건립 및 운영의 지원을 청원하는 과정에서 풍악서원에 지급한 재원을 여강서원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풍악서원은 병산서원의 전신으로 서애 유성룡계와 긴밀한 관계였다. 김언기의 이와 같은 행

24) “아아 우리 동문의 벗은/지금이 옛날과 같네/제수(祭需)의 정성을 각자 다하니/사모하는 마음으로 선인을 추념하네/유명을 달리한 망극한 마음에/흐르는 눈물 견디기 어렵네/평생 신의를 간직하여/영원히 바뀌지 말자 기약하누나”, 『葛峯先生遺稿』, <謝洛契會奠> 이하 『갈봉선생유고』의 내용은 김언기 외, 『국역 용산세고』, 한국국학진흥원, 2011의 원문과 번역을 참조하여 번역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번역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 국역본의 페이지를 함께 표기하였다.

25) 박종천, 앞의 논문.

동은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훗날 유성룡, 김성일의 합향 및 위치 문제로 불거진 퇴계분과 간 지분 경쟁의 서막이 되었다. 이후 김언기의 제자인 남치리(南致利, 1543~1580)와 권우(權宇, 1552~1590) 등을 추향(追享)하여 계파의 지분을 확보하려 했던 유일재계의 집요한 시도는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이는 이때 유성룡계를 자극하였던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²⁶⁾ 관련하여 김득연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던 남치리, 권우의 학행과 문장을 칭송하며 이들을 여강서원에 추향해야 한다는 절절한 주장을 담은 <답교중사림서(答校中士林書)>²⁷⁾를 통해 향론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처럼 김득연은 만년에 퇴계분과 간 역학관계로 아버지 김언기 계열의 지분을 지키기 위해 모종의 신경전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장 하에서 나온 그의 <지수정가>에는 영남 도맥을 계보화 하려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었고, 이는 그와 교류하였던 유일재계 문인들의 존재감과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한 제스처로 이해된다.

[1] 蜿蜒^{ᄃᆞ} 水晶山 偃蹇^{ᄃᆞ} 九薰峯
 磅礴^{ᄃᆞ} 博山岬 穿隆^{ᄃᆞ} 龍井峯이
 東西南北에 오거니 가거니
 노포락 느즈락 네는듯 머모는듯
 우독우독 龍蹲虎踞^{ᄃᆞ}여 여기를 닷그렸고
 산밭기 萬里長江은 潢池에 發源^{ᄃᆞ}여
 淸涼을 지나 흘너 退溪에 滄瀟^{ᄃᆞ}여
 月川로 바로 느려 栢潭을 감도라

26)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II)-廬江書院 置廢 顛末」, 『퇴계학과 유교문화』 45,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9, 319~326면.

27) “저는 젊은 시절 비지(賁趾) 남치리(南致利) 송소(松巢) 권우(權宇) 두 처사를 뵈었습니다. 비지는 동문의 어른이고, 송소는 대대로 집안끼리 친하게 맺어온 벗인데, 평소엔 따라다니며 풍모를 배우고, 고상한 뜻을 공경하고 따랐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두 군자께서는 나란히 한 시대를 사셨고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며 뜻이 맞고 도가 같아 서로 성리(性理)에 관련된 책을 익히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퇴계 선생께 가르침을 청하여 중요한 지결에 근거하여 확고히 하였으며(...) 제주와 학문과 덕이 이와 같은데도 하늘이 시간을 빌려주지 않으시고 모두 일찍 죽기에 이르렀으니 길이 사문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젊은 후진 중에는 비록 문하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반드시 풍도를 듣고 흥기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아! 송소의 학행과 문장은 마땅히 비지와 버금잡니다. 이런데도 지금 논의를 일으키는 즈음에 유독 여기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니 어찌 오당(吾黨)이 개탄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번역은 김언기 외, 『국역 용산세고』, 한국국학진흥원, 2011, 218면.

浩浩洋洋하여 道脈川이 되어 이서
 다시금 龍飛鳳舞하여 廬江의 五老峯을 씌되여
 芝谷 어리 빗기 지나 臨川을 혼디 모다
 山에 鶴峰을 바라보고
 屏山에 玉淵을 향하여 洛東이로 가노라
 屈曲盤回하여 이 안홀 짜잇는다

㉑ 이 지수정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와룡(臥龍)·천주(天柱)·수정(水晶)·구연(九鸞)·박산(博山)·용정(龍井)이다. 산봉우리들이 겹겹이 들어서고 부용의 꽃대가 솟은 듯하며, 아득히 높은 갓을 쓰고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듯 씩씩하게 쇠 관문을 자물쇠로 잠근 듯, 모두 드넓고 우뚝하게 이곳을 둘러싸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비운 뒤의 기이한 경관은 더욱 시의 재료가 될 만하다.²⁸⁾

전통적으로 풍수사상의 논리구조는 대체로 용(龍), 혈(穴), 사(砂), 수론(水論)의 4대 구분을 따른다.²⁹⁾ 앞서 살펴본 작품의 서두가 龍으로서의 와룡산과 산세가 맺혀 있는 穴로서의 천주봉을 표현하였다면, 위의 부분은 용과 혈을 두르고 있는 산과 강의 형세를 砂와 水論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는 부분이다. 이 지점에서 <면양정가>와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면양정 주변을 두르고 있는 砂를 자연의 개체적 존재들이 모두 제 집 드나들듯 머무르고 떠나는 원초적인 곳으로 암시한³⁰⁾ 송순과 달리 김득연의 <지수정가>에서는 지수정을 중심으로 한 관찰자의 시선이 강력하게 작동한다. 인용문 [2]에서 지수정 주변을 둘러싼 산들은 각각 완연(蜿蜒), 언건(偃蹇), 방박(磅礴), 천룡(穿隆)한 자태로 동서남북에 벌여져 있다. 산 하나하나의 자태에 주목하고 있는 위의 표현은 추월산(秋月山)을 머리로 삼아 ‘긋는 듯 닳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로 표현된 <면양정가>의 유기적 산세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면양정가>는

28) 若夫登斯亭也，顧眄而指點焉，則曰臥龍，曰天柱，曰水晶，曰九鸞，曰博山，曰龍井，螺鬢列簪，芙蓉拔朶，迥乎若峩冠拱揖，壯乎如鐵關鎖鑰，皆磅礴穹窿，擁護于此，而雨後奇觀，尤可供詩料也。金得研，「止水亭記」，《葛峯先生遺稿》

29)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1993, 177면.

30) 龍龜山 夢仙山 佛臺山 魚登山 /湧珍山 錦城山이 虛空의 버러거든 /遠近蒼崖의 머은 짓도 하도 할샤 /흰 구름 브흰 煙霞 프로니는 山嵐이라 /千岩 萬壑을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느리거니 長空의 썬나거니 /廣野로 거너거니 /프르락 불그락 여토락 지트락 /斜陽과 서거지어 細雨초츄 뿌리는다

龍·穴·砂·水가 한 데 어우러진 기세(氣勢)를 담아내었다면, <지수정가>는 이보다는 경관 요소의 측면에서 명승의 조건을 묘사하는 경향에 가깝다. 인용문 ㉠의<지수정기>에서는 이러한 지점이 명백히 드러나는데, ‘지수정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는 정자에서의 경관이 관찰자의 시선에서 포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지수정가>에 나타난 水論에 대한 부분이다. <지수정기>에서는 “이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 내려왔는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황지(黃池)에서 발원하여 청량산(淸凉山)을 가로질러 드넓고, 양양하게 굽이굽이 돌아 흘러 낙동강의 상류가 된다.”³¹⁾라는 식으로 그 발원과 종착을 언급하는 정도가 수론이라 부를만한 전부이다. 그러나 <지수정가>에서는 水論이 이에 비해 대폭 확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지에서 발원하여 청량산을 가로질러, 퇴계(退溪), 월천(月川), 백담(栢潭)을 감돌아 도맥천(道脈川)을 이루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김득연의 <지수정가> 창작 의도가 바로 이 ‘도맥(道脈)’에 있음이 분명해진다. 이 도맥의 방점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유일재 김언기에 있다. 퇴계 이황(1501~1570), 월천 조목(1524~1606), 백담 구봉령(1526~1586)으로 ‘浩浩洋洋(호호양양)’함을 이룬 물길은 ‘용이 날고 학이 춤추는 기세로[龍飛鳳舞]’ 김언기(1520~1588)의 여강서원(廬江書院)으로 향한다. 도맥이 김언기에 이르러 한 차례 흥기하였음을 은유한 부분이다. 이로부터 이어지는 학봉(鶴峯) 김성일(1538~1593)의 임천서원(臨川書院) 서애(西厓) 유성룡(1542~1607)의 병산서원(屏山書院)을 나타낸 것은, 水論의 표면적 형태를 취하여 영남 도맥의 계보를 분명하게 정리한 것과 다르지 않다. 앞서 살펴보았듯, 지수정은 영남지역 향촌 문인들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곳으로 광산 김씨와 유일재의 문인들이 빈번히 모였던 장소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발화는 유일재 문인들의 자긍심을 반영한 공동체적 발화의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 향촌 내에서 퇴계 문인들 간 학맥 논쟁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했던 점을 감안하면, 유일재계의 존재감을 드높이기 위한 의도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반면, 동일한 시기에 김득연과 교류 관계를 공유하기도 하였던 조우인의 경우 영남 사회 내에서 분명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던 작가로 추정되며, 영남지역에 세거하였지

31) “發源黃池。橫過淸涼，浩浩洋洋，屈曲盤廻而爲洛東江。” 金得研，「止水亭記」『葛峯先生遺稿』(김언기 외, 『국역 용산세고』, 한국국학진흥원, 2011, 238면.)

만 향촌 사회 내에서의 활동보다는 중앙 관료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평생을 살아갔다. 이에 따라 그가 만년에 경북 상주에서 은거하며 창작한 <매호별곡>은 영남이라는 지역적 공간에 큰 애착이나 정주의식을 보여주지 않으며, 오히려 경화사족들의 세련된 미감과 취향을 반영하여 만년의 회한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노계 박인로는 영천에 세거하며 한강 정구, 여헌 장현광이 대표하는 한려학파의 문인들과 교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거유들과 공유하였지만 본인 스스로 향촌 내 문화귀족의 범주에 들지는 못했던 인물로, 그 주변부에서 문화귀족적인 생활 양식이나 품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좇았던 인물이다. 그는 한려학과 특유의 선유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장 안에서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펼쳐 보일 수 있었다. 그의 <노계가>는 당대 영남 유학들과 공유하면서 체험하였던 문화귀족적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자기화하여 표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노계의 대사회적 결핍을 나름대로 보충하고, 이로부터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문학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박인로의 낙천적인 인생관, 문학관을 담고 있다.

② 호남: 京·鄕 권력의 분화와 은거 공간의 이상화

- <수남방옹가>, <용추유영가>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는 정훈으로 세 차례 전란을 겪는 극도의 혼란한 시기를 살았던 향촌 문인이다. 정훈은 문학 창작을 통해 ‘忠·孝’를 포함한 유가이념을 수호하는 불운처사로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으며, 향촌 사회 내 대외적 활동을 통해 문화귀족의 반열로 자신의 가문을 재건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인물이다. 그의 <수남방옹가>와 <용추유영가>는 정훈이 만년 용추동에 은거하며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과 은일 생활의 감회를 노래한 작품이다. <용추유영가>는 공간 중심, <수남방옹가>는 작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상호 보완적 작품으로, 정훈은 이 두 작품의 창작을 통해 이상세계를 자기 공간에 구현하고자 하였던 유자 보편 욕망을 충족함과 동시에, 충의의 유학자로서 향촌 사회 내에서 자기 이미지 완성 또한 추구하고 있다.

③ 충청: 近畿 문화의 영향력과 유가적 이상세계의 계승 및 변전

- <월선현십육경가>, <백마강가>

충청 중에서도 충남 지역은 예로부터 ‘내포(內浦)’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는 서울과 지방 사이의 향촌으로서 근기지역의 특성을 공유하는 경향이 다. 내포지역은 삼남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해양의 관문으로 수로교통이 발달하였고, 이로부터 사람과 물자가 집중되어 유통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환경적 조건 덕에 서울, 경기도와 생활권을 공유하게 되어 중앙 지향적 특성이 강하였던 내포는 사대부들이 선호하는 거주 지역이었다. 이러한 내포 지역의 거점 도시였던 예산에서 활동한 신계영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중앙 관료를 역임했던 인물로, 뚜렷한 문인 집단 내에서의 교류보다는 삶의 사소한 희노애락을 개인적으로 표출하거나 이를 함께 나누었던 친우,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학을 창작하였다. 그의 <월선현십육경가>는 16세기 강호가사의 계승과 17세기의 변화 양상을 모두 내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호남 사이의 문화적 중간지대로서 충남 내포 지역의 문화상을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한편 부여의 문인 황일호는 부여 백마강 근처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부여지역에서 나름대로 가문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황일호의 <백마강가>는 강거(江居)를 중심으로 하였던 문인 선유 문화를 계승한 작품으로, 강호가사와 어부가의 전통을 혼합한 장가(長歌) 양식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작품에서 백마강은 공동체적 인식에 더해, 작가가 생전 부모님과 함께 살던 추억의 공간으로, 부모를 잃고 돌아온 작가에게는 내면에 고독감을 상기시키는 곳으로, 내면 정서를 토로하는 17세기적 가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조선 후기: 지역 문학장의 분화와 강호가사의 다변화

3.1. 가문의식의 심화와 지역 문학장의 분화

조선 중기까지 향촌 사족들의 거향관은 관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향촌 사회 내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향권(鄉權)을 수령에게 점차 빼앗기게 된다. 이제 거향의 문제는 관과의 문제보다는 가문간, 즉 이웃과의 문제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고, 거향에 관한 윤리가 가훈의 일부로 포섭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향(一鄉) 범위에서의 사족의 지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거주 촌락을 단위로 한 지배만이 가능했던 것이다.³²⁾

이처럼 향촌 사족들의 힘이 약화된 것은 이들이 중앙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심히 좁아졌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는 경화 별열이나 외척가문에 권력과 관직이 독점되면서, 향촌에 세거하였던 사족들에게는 출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향 분기 현상의 배경에는 과거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지리적으로 과거 응시가 용이하고 기회가 많았던 서울 및 근기지역의 유생들의 관직 진출이 더욱 유리했던 것은 물론, 과거 응시와 관련한 제반 문화에서도 경·향 간의 격차가 나타났다. 조선조의 과거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학과 사장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학(經學)을 시험하는 강경(講經) 과목과 사장(詞章)을 시험하는 제술(製述) 과목의 출제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결국 숙종 대 말에는 명경과(明經科)와 제술과(製述科)로 완전히 이원화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강경에 강점이 있었던 향유(鄕儒)들과 제술에 뛰어났던 경유(京儒)들의 수험 전략과 응시 경향 역시 이원화 되면서 이들 간의 문화적인 격차가 생겨나게 된다.³³⁾

- ① 영남(嶺南)에 여씨(呂氏)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그는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한 뒤에 호서도사(湖西都事)가 되었다. 어느 날 여러 기생들을 데리고 뱃놀이를 나갔다. 배가 백마강(白馬江) 중류에 이르렀을 때 여러 기생들을 돌아보면서 그는 말한다.“참 아름답구나. 옛 나라의 풍경이여!” 이 말을 듣자 기생 하나가 말한다.“외국 사신들도 이곳에 오면 옛 회포를 느끼고 시를 짓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좋은 놀이에 어찌 시 한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씨는 사실 시에 능숙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기생에게 치소를 받을까 걱정하여 시를 지어 보려고 얼마 동안 수염을 비비면서 글 생각에 골똘했다. 그러나 반나절이 지나도록 여씨는 겨우 글 두 귀밖에 짓지 못했다. 여씨는 하는 수 없이 글 두 귀를 가지고 무릎을 치면서 큰 소리로 읊으면서 기생들을 향하여 그 글 내용을 해석해준다. “생각건대 옛날 놀던 땅에 음탕한 짓으로 나라는 망했건만 이것은 강산 경치 좋은 때문일 뿐 의자왕을 죄 줄 것은 없네[憶昔曾遊地 淫泆國雖亡 江山如此好 無罪義慈王]”이 글 뜻은 말할 것도 없이 옛날에 백제왕이 놀던 곳을 생각해 보니 음탕한 짓으로 인연해서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강산의 풍경이 그림같이 좋았던 때문에 세월 가는

32) 김인걸, 앞의 논문.

33)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줄 모르고 놀았기 때문일 뿐, 결코 의자왕의 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이 글을 보고 웃지 않는 자가 없다. 아아, 저 명경과에 뽑힌 자로서 소견이 겨우 이것뿐이고 보니, 당시 국가에서 인재를 취한 효과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³⁴⁾

홍만중(洪萬鍾, 1643~1725)의 『순오지』에 실린 위 글은 당시 향유(鄉儒)들이 주로 선발되었던 명경과 출신 문인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인용문은 명경과 급제 후 호서도사로 부임한 영남 출신 여씨라는 선비의 웃지 못할 사연을 소개한다. 명승을 유람하기 적당하였을 어느 좋은 날을 골라, 여씨는 여러 기생을 데리고 호서 제일의 경관을 자랑하는 부여 백마강으로 뱃놀이를 나간다. 강 종류에 뱃전이 다 다르자, 그 경관의 아름다움에 기생이 시를 칭하였고, 평소 시를 잘 짓지 못하는 여씨는 난감해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한다. 배를 띄워 두고 만나질이 지나도록 겨우 두 귀절을 써낸 것도 애잔하지만, 심지어 그 내용은 주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고 망국지경을 만든 혼군(昏君) 의자왕을 뜻밖에 옹호해버리는 의미를 담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낸다. 이 글을 통해 홍만중은 명경과에 뽑힌 자의 소견이 겨우 이것뿐이라며, 경전을 암기하여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의 하잘것없는 교양 수준을 개탄하고 있다. 이처럼 경학에 능했던 향유들은 사장을 어려워하였고, 반대로 사장에 능했던 경유들은 경학에 대한 이해가 얕았다. 위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 과거제의 이원화는 ‘경유(京儒)-향유(鄉儒)’간의 문화적 차이의 심화와 집단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경유들의 눈에 향유는 문재가 없고 그저 경전을 구송할 줄 아는 집단으로, 향유들의 눈에 경유들은 문장으로 벼슬자리를 구걸하러 다니는 집단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격차는 조선 후기 경화 별열과 세도정권의 대두로 고급 관직에서 경·향간의 현격한 차이로 이어진다. 과거에 합격하여도 고위 관직에 진출하려면 중앙의 문화와 인맥에 친숙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향유가 중앙에서 요직을 역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 되었으며, 더불어 중앙에 기댈 세력이 없는 향촌 사족들이 관직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향촌 문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향촌 사회 내부에서 찾고자 하였다. 거향을 택하는 문인들이 늘어나면서 당대 대유(大儒)들의 문도(門徒)들도 점차 증가하는

34) 이민수, 『旬五志』, 乙酉文化社, 1971, 125~126면의 번역을 참조하여 일부 수정.

양상을 보인다. 특히 학맥이 발달하였던 영남의 경우, 17~18세기 전반기까지는 한 학자의 문인록에 등재된 선비의 수가 많아야 300명 정도였다면, 18~19세기에 이르러는 700명을 웃도는 경우도 있었다.³⁵⁾ 학맥의 체계 또한 퇴계의 직전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학파의 분열 조짐이 있었던 조선 중기에서 심화되어, 이제는 학파뿐 아니라 가학(家學)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② 우리나라에서 莊墅의 아름다움은 오직 영남이 최고이다. 그러므로 사대부가 당시에 禍厄을 당한 지가 수백 년이 되었으나, 그 존귀하고 부유함은 쇠하지 않았다. 그들의 풍속은 가문마다 각각 한 조상을 추대하여 한 터전을 점유하고서 일가들이 모여 살아 흠어지지 않는데, 이 때문에 조상의 업적을 공고하게 유지하여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가령 眞城 李氏는 퇴계를 추대하여 陶山을 점유하였고, 豊山 柳氏는 西厓를 추대하여 河回를 점유하였고, 義城 金氏는 鶴峯을 추대하여 川前을 점유하였고, 安東 權氏는 冲齋를 추대하여 鷄谷을 점유하였고, 慶州 金氏는 開岳을 추대하여 虎坪을 점유하였고, 豊山 金氏는 鶴沙를 추대하여 五嶺을 점유하였고, 禮安 金氏는 柏巖을 추대하여 鶴亭을 점유하였고, 韓山 李氏는 大山을 추대하여 蘇湖를 점유하였고, 廣州 李氏는 石田을 추대하여 石田을 점유하였고, 驪州 李氏는 晦齋 李彦迪을 추대하여 玉山을 점유하였고, 嫡派는 楊子谷을 점유하였다. 仁同 張氏는 旅軒을 추대하여 玉山을 점유하였고, 晉陽 鄭氏는 愚伏을 추대하여 愚山을 점유하였고, 全州 崔氏는 認齋를 추대하여 海平을 점유한 것 등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³⁶⁾

위의 인용문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이중환의 『택리지』에 붙인 발문으로, 조선 후기에 이르러 촌락-가문-학맥이 하나로 결합되었던 정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3장에서 살펴본 김득연의 사례에서도 유일재 김언기를 중심으로 한 광산 김씨의 결집 양상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가문을 부각하기 위함보다는, 퇴계 학맥과 그 계보에 참여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앞서 설명하였듯 광산 김씨 가

35) 남재주, 『조선 후기 영남 예학 연구』, 도서출판 3, 2019, 24~25면의 표 참조.

36) “國中莊墅之美, 唯嶺南爲最, 故士大夫阨於時數百年, 而其尊富不衰. 其俗家各戴一祖占一莊, 族居而不散處, 所以維持鞏固, 而根本不拔也. 如李氏戴退溪占陶山, 柳氏戴西崖占河回, 金氏戴鶴峰占川前, 權氏戴冲齋占鷄谷, 金氏戴開岳占虎坪, 金氏戴鶴沙占五嶺, 金氏戴柏巖占鶴亭, 李氏戴存齋占葛山, 李氏戴大山占蘇湖, 李氏戴石田占石田, 李氏戴晦齋占玉山, 適派占楊子谷, 張氏戴旅軒占玉山, 鄭氏戴愚伏占愚山, 崔氏戴認齋占海平之類, 不可勝數.” 丁若鏞, 『跋擇里志』, 『茶山詩文集』 卷14

문 구성원들 간의 모임은 지역적 원근과는 무관하게 ‘부계 종족의 혈연적 유대’를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그 성격 자체도 아주 폐쇄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4대봉사와 불천위 제사, 족보 제작, 동성마을 형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중이나 문중의 질서³⁷⁾가 강화되면서, 기존의 향촌 사회는 더욱 미시적인 유교 공동체로 분화된다. 위 인용문에서 잘 나타나듯, 퇴계의 가문인 진성 이씨는 도산, 서애의 가문인 풍산 유씨는 하회 등 동일한 안동지역 내에서도 가문-학맥을 기준으로 거주 촌락이 달리 나타났으며, 세거를 통해 촌락을 ‘점유’ 즉, 촌락을 대표하는 문화귀족으로 군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동성마을은 대개 족보상 소종(小宗)으로서, 저명한 유학자들을 새로운 시조로 선정하여 그로부터 계보화가 이루어진 하위 분파이다. 분파의 출발점 자체가 학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가학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이 분파들은 독립된 존재로 발전하면서 때로는 경제적·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대중을 능가하기도 하였고,³⁸⁾ 이로부터 분파 간 세력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조선 후기 향촌 문인들은 완숙한 유교 문화가 향촌 사회의 미시적인 영역까지 침투하였던 상황에서, 일가(一家)를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출사가 불가능했던 현실적인 이유와 맞물려 이들이 자연스럽게 거향의 길을 걷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 시기 향촌 문인들의 출사에 대한 태도는 조선 중기와는 사뭇 달랐다. 조선 중기의 작가들은 주어진 현실을 난세로 인식하고 자신의 은일을 합리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향촌을 ‘선택’하였다. 이때의 향촌 문인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문인 교유에는 여전히 중앙 관직과 친화적인 시선, 즉 문학장을 통한 활동을 발판 삼아 언젠가 중앙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조금이나마 개재하여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조선 중기의 향촌 문인들은 거향 처신에 신경 쓰면서 함께 교류할 만한 인물을 신중히 가렸으며, 유학자로서 덕망이 높은 학자를 종유(從遊)하거나 함께 학문을 이야기할 만한 문인들과의 교류에 중점을 두었다. 요컨대, 조선 중기의 향촌 문인들은 재야의 유학자로서 조정에서 거명되거나 혹은 임금의 부름을 받아 조정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치자(治者)로서의 예비적 상황에 대한 기대와, 시대를 잘못 타고난

37) 박종천, 「조선시대 예안 광산김씨의 친족활동 -계회와 성회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30, 한국국학진흥원, 2016.

38)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 너머북스, 2013, 396~398면.

불운 사이 어디쯤에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작가들이 ‘세상을 잘못 만난 운명’을 한탄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어졌는데, 이로 보아 중앙 관직 출사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이들은 은일의 고상함을 드러냄으로써 가문의식이 심화되어가고 있었던 향촌 내부에서 자신의 가문을 현창 및 연출하는 데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생각된다. 즉 문학장의 중심이 당장의 실질적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거주 지역, 가문 공동체 등지로 이동하며 그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문·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은 더욱 강화되었고, 문인들은 저명한 학자 내지 미처 추송되지 못하였던 절의지사들을 발굴해냄으로써 자신이 속한 가문과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3.2. 조선 후기 강호가사의 의미 지향

① 영남(안동): 지역 학맥의 문화와 家學 계승

- <하명동가>, <개암정가>

안동 권역의 작가 이귀서와 조성신은 모두 가학을 중심으로 향촌 사회 내에서 입지를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이들이 창작한 <하명동가>, <개암정가> 두 작품은 이러한 문학장의 변동을 반영하여 가문이 세거하였던 촌락 중심의 공간인식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조선 후기 강호가사들의 어휘나 표현은 공히 관습적이고 이념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 지배 단위가 가문 및 촌락으로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향촌 문인들이 여전히 문화귀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생활에서 얻는 소소한 재미와 자족적인 정감을 표출하기도 하여 조선 중기 <월선현십육경가>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자기 고백적 생활시의 면모 또한 계승하고 있다. 즉, 위 작품들은 전대 강호가사의 구조 및 표현을 대개 계승하는 한편, 유학자로서 살아가는 일상의 단면과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는 방향으로 그 의미 지향이 변화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② 영남(상주): 南人의 정치적 위기와 武夷九曲의 수용

- <석문정구곡도가>, <사여제가>

한편, 상주 권역의 조선 후기 영남 남인들 사이에서 싹뻗던 영남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상주 권역(상주, 문경)에서 산출된 강호가사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가사문학 최초로 구곡가의 형식을 취한 작품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작품 내 무이구곡(武夷九曲) 차용이 그 이전 강호가사보다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상주 지역에서 유독 남인-노론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향론과, 노론으로부터 세력을 위협받고 있었던 남인들의 처지와 연관된다. 현실적 권력이 없었던 남인들에게 향론을 주도할 명분은 단 하나, 유학적 정통성과 순수처사로서 학문적 지향을 표방하는 것이었으며, 이와 같은 동인으로 무이구곡을 적극 수용하게 된 것이다. 강호가사를 창작한 채헌과 이천섭은 인척관계로 영남을 대표하는 청대 권상일의 문인이었다. 채헌의 <석문정구곡도가>는 ‘주자의 무이구곡’이라는 외형 설정을 통해 영남지역의 유학적 정통성을 표방하고, 스승 청대 권상일과 인천 채씨 가문을 칭송하여 자신의 학맥과 가문을 영남 내부의 모범적 공동체로 이미지화하고자 한 결과물이다. 마찬가지로 이천섭의 <사여제가> 또한 무이구곡을 적극적인 수용한 데에는 영남의 유학을 다시금 부활시키고 도맥을 흥기를 염원하였던 작가의 욕망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호남: 가문 중심 문학장과 가사 향유 양상의 다변화

- <초당곡>, <초당춘수곡>

호남지역에서 강호가사를 창작하였던 호남 문인들은 모두 국문시가 창작에 친숙하였던 가문 배경을 타고난 인물들로, 세를 걸쳐 이어졌던 호남지역의 가악 취미를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호남 지역에서 강호가사는 장흥과 담양에서 출현하였다. 이중 장흥 지역에 세거하였던 장흥 위씨, 인천 이씨 집안에서 가문결속을 위한 일련의 가사를 창작 및 향유하였고, 장흥 지역의 가사 향유 문화는 주변 고을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존재 위백규로 대표되는 장흥지역의 문인들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곤궁하여 궁경가색에 나서야 할 정도로 몰락했으며, 이로부터 가문의 질서가 해체될 위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지역 문인들은 가문 결속에 관심을 가졌으며 문학장 또한 가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상계의 <초당곡>은 17~18세기 강호가사까지 유지되어 왔던 보편적 이상향에 대한 사고방식과 이념적 지향을 모두 탈각

한 채, 작중 화자의 은일 행위가 갖는 개인적인 차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작품으로, 19세기 강호가사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초당곡>이 가문 내 소통되었음을 상기할 때, 그리고 이후 <초당춘수곡>으로 수용되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작가의 처사적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하여, 가문 내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정신적 방어선을 제공하고, 향촌의 몰락한 양반이 아닌 문인으로서 자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한편, 담양 지역의 남석하는 향촌의 정치적 소외에도 출사를 염원하였던 인물로, 이러한 염원이 문학 창작의 동인이 되었던 인물이다. 남석하의 교유 양상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그가 자신의 교유의 거점으로 재래의 면양정을 활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담양의 대표적인 정자인 면양정의 풍류를 본받아 일향(一鄕)을 대표하는 문화귀족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초당춘수곡>은 남석하가 만년에 자신의 초당에서 은일하는 감회를 노래한 작품으로, 은일 지향과 출사 지향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부조화스럽게 혼재한다. 이러한 원인은 남석하의 가사 창작 방식이 지나치게 차용, 전고 나열 등에 의지하여 이루어져 개인적 발화와 잘 어우러지지 못한 탓으로 보이며, 이는 19세기 가사가 다변화하며 독서물, 가창물 등으로 통속화되었던 시가사적 정황과 무관하지 않다. 즉 남석하의 <초당춘수곡>은 사대부 강호가사로는 계보 상 거의 마지막 작품으로, 기존 강호가사의 미의식의 상당부분이 탈각된 채 19세기 시가문학의 전반적 경향인 세속 지향, 통속성 등을 흡수하고 있었던 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조선 중·후기 강호가사의 시가사적 의의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선 중·후기 강호가사의 시가사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중기 강호가사는 지역 문학장을 기반으로 전대의 강호가사를 성공적으로 계승 및 변전하여 향촌 문인들의 노래로 공고히 자리를 잡았다. 조선 전기의 강호가사가 사대부의 보편적 미의식과 이념 지향을 담아냄으로써 후대 강호가사의 토대가 되었다면, 조선 중기에는 전기에 형성된 여러 전범들을 계승하는 한편, 향촌 사회의 새로운 경향을 흡수하여 향촌 문인들의 집단의식을 담아내었다. 조선 중기 강호가사

는 작가를 둘러싼 향촌 내 학맥, 정치, 사회 현상 등 현실 세계의 면면을 포섭하면서, 향촌 문인들의 자의식을 대변하는 시가 장르로 자리할 수 있었다.

둘째, 조선 중기 강호가사는 당대 사대부 가사문학의 외연을 넓히는 데에 일조하였다. 조선 중기 강호가사는 전대 작품의 전범적 면모를 받아들이고 해당 지역 문인들의 집단의식을 반영하면서도, 그 행간에 개체적 삶의 모습과 작가 개인의 의지 등을 담아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내면을 포착하기 시작한 작중 시선은 다양한 문학적 소재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기행가사나 유배가사에서는 강호가사의 관습적 어법을 활용하여 서경을 표출하면서 그 행간에 시적 화자의 정서를 배치하였다. 이외에도 사대부 가사에 종종 나타나는 우환 의식, 탄로, 세속적 욕망 등 개인의 내면과 일상적 경험 세계 또한 강호가사가 만들어 왔던 ‘빈이무원’, ‘안분지족’ 어법에 기초하여 서술된 경향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강호가사는 견고한 관습성의 차원에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였던 운동성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강호가사가 변하지 않는 지속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 형식의 유지에만 관심을 두는 소극적인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定體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³⁹⁾고 정리한 선행 연구의 통찰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준다. 강호가사가 다른 유형의 가사나 다른 갈래의 문학 형태에 끼쳤던 영향력은 이 같은 지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조선 후기 강호가사는 본래 강호가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상적 세계상을 상당 부분 탈각하였지만, 현실 대응의 수단이자 향촌 문인들의 자기표현 양식으로서 시가 사적 의의를 갖는다. 이는 그간 강호가사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으로, 전대의 작품들과 표현이나 미의식에서 차이가 나지 않아 그저 관습적 표현의 답습으로 정리되곤 하였던 연구사의 관점은 보완되어야 한다. 당대 더욱 미시화되고 있었던 지역 문학장 안에서 이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으로 보아, 이들의 강호가사 창작과 향유는 나름의 절실한 문학적 실천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작품들이 일견 미적 탄력성 내지 신선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들이 놓인 구체적인 시대상에 맞게 호출되었다는 것은 해당 장르가 여전히 사회적 효용가치가 있었음을 증거한다. 따라서 조선

39) 윤덕진(1988), 앞의 논문, 102면.

후기의 강호가사는 재래의 문학의 답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쇠잔해가던 향촌 문인들의 정신적 명분을 문학적으로 구현한, 절실한 자기표현의 갈래였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조선 후기 강호가사는 그 이념적 자리를 교훈, 오륜 가사 등에 넘겨주고 남은 부분은 기행가사와 같은 인접 유형에, 그리고 조선 후기 가창 문화의 일부로 시조, 가창가사, 잡가 등에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문을 중심으로 한 문학장 내에서 가사가 활발히 향유되었던 영향으로, 일부 규방가사에서 강호가사의 미의식과 표현을 계승하여, 양반가 여성들의 유산(遊山) 문학에 쓰이기도 하였다는 점⁴⁰⁾등을 통해서 이후 문학사 곳곳에 강호가사의 자취가 용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金得研, 『葛峯先生遺稿』

김언기 외, 『국역 용산세고』, 한국국학진흥원, 2011.

김상준,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중층근대와 동아시아 유교문명』, 아카넷, 2011.

김성우, 「16~17세기 사족층의 분화와 중층적 사회 연망의 작동 구조」, 『한국사연구』 178, 한국사연구회, 2017.

김인걸, 「조선후기 재지사족의 거향관(居鄉觀) 변화」, 『역사와 현실』 11, 한국역사연구회, 1994.

김종석, 「갈봉 김득연의 학문과 사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30집,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1.

김진선, 「갈봉 김득연의 시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김창원, 『고전시가의 지역성과 심상지리 : 조선시대 서울 및 근기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사, 2018.

김흥규, 『근대의 특권화를 넘어서』, 창비, 2013.

남재주, 『조선 후기 영남 예학 연구』, 도서출판 3, 2019.

40) 최은숙, 「청량산 기행가사에 나타난 유산(遊山)체험의 양상과 의미」, 『영남학』 6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 너머북스, 2013.
- 미야지마 히로시, 『양반』, 너머북스, 2014.
- 박수진,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문화지리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박종천, 「조선시대 예안 광산김씨의 친족활동 -계회와 성회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30, 한국국학진흥원, 2016.
-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 설석규, 「유일재 김언기의 학풍과 학맥」, 『퇴계학과 유교문화』 30집,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1.
- , 「퇴계학과의 분화와 병호시비(II)-廬江書院 置廢 顛末」, 『퇴계학과 유교문화』 45,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9.
- 신미경, 『프랑스 문학사회학』, 동문선, 2003.
- 윤덕진, 「江湖歌辭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윤지아, 「조선 중·후기 지역 문학장의 변모 양상과 江湖歌辭의 의미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이민수, 『旬五志』, 乙酉文化社, 1971.
- 이상원, 「16세기말~17세기초 사회 동향과 김득연의 시조」, 『어문논집』 31, 민족어문학회, 1992.
- 임형택, 「16세기 光·羅州 지역의 사림층과 송순의 시세계」,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 비평사, 2002.
- 정익섭, 『(改稿) 湖南歌壇研究』, 민문고, 1989.
- 최은숙, 「청량산 기행가사에 나타난 유산(遊山)체험의 양상과 의미」, 『영남학』 6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1993.
- 파트리스 보네위츠, 『부르디외 사회학 입문』, 동문선, 2000.
- 피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上』, 새물결, 2005.
- 하운섭, 「'행위자의 귀환'과 송암 시가의 재해석」, 『민족문화연구』 71, 민족문화연구원, 2016.
- 현택수, 「문학 생산의 장」, 김인환 외, 『문학의 새로운 이해: 문학의 문턱을 넘어서』, 문학과 지성사, 1996.
- 후지야 카와시마, 「안동의 대가세족: 문화귀족의 정립을 중심으로」, 『안동학』 1, 한국국학진흥원, 2002.

토론문

박 수 진
한양대학교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발표자는 조선 중, 후기 지역 문학장에서 창작 및 향유된 강호가사에 대해 그 맥락을 검토하여 작품이 의미하는 지향성에 대해 논의한 것입니다. 발표자는 작가와 작품의 구체적 현실에 주목하고자 ‘문학장’이라는 개념어를 전면화하고 그간의 경제, 정치적 차원에서의 작가와 작품을 조명했던 선행 논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문학장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지역 문학장에서 창작, 향유된 강호가사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논의라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발표문을 읽어가면서 들었던 몇 가지 의문점을 논의하면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왜 강호가사인가?라는 의문입니다. 강호가사는 조선시대 시가의 전반을 관통하는 가사 유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후반에 들어서는 그 향유 양상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그 명맥을 꾸준히 이어왔다고 보기 어려운 부류라고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논의에서는 지역의 문학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문학적 특성으로는 다양한 장르로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강호가사를 기반으로 본 논의를 펼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2. 문학장의 전면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자는 문학장을 논의의 개념적 도구로 전면화한 이유와 효용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의 출처 여부나 경제적 처지를 중심으로 작품을 독해하였던 기존의 단선적 반영론을 극복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p4)라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의에서 언급하고자 하

는 문학장의 전면화가 기존 단선적 반영론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지역 문학장 논의에 따른 의문입니다. 2장은 “조선 중기: 지역 문학장의 부상과 강호가사의 외연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에는 “거향 윤리의 형성과 지역 문학장의 부상”이고, 2.2에는 “조선 중기 강호가사의 의미 지향”이라는 제목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논의하는 문학장의 개념은 “친족 관계, 학연, 정계에서의 인연 등 수많은 연망이 혼입되어 있었고 이러한 연줄은 종종 서로 구분이 되거나 배타적이지 않고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학장을 바탕으로 향촌 사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갔으며 문화귀족으로서의 삶과 내적 방향 등을 문학을 통해 토로하였다(p6)”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가사 문학으로는 강호가사보다는 향촌 사족들이 창작, 향유한 작품들이 이 논의를 더 잘 논의할 수 있을 듯합니다.

4. 강조하고자 하는 논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목을 보면 “조선 중, 후기 지역 문학장의 변모 양상과 강호가사의 의미 지향”인데, 목차 2번과 3번은 조선 중기와 후기라는 시대적 분류 체계로 지역 문학장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지역 문학장으로, 지역적 특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번과 3번 역시 조선 중, 후기로 나누는 것보다는 지역적 특성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5. 층위 문제입니다. 제목에서 2.2 조선 중기 강호가사의 의미 지향에서는 영남, 호남, 충청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본 반면, 3.2 조선 후기 강호가사의 의미 지향에서는 영남 안동과 영남 상주, 호남으로 나누어 그 특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문학장의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면, 2.2와 3.2의 층위를 맞게 해야 하는데 3.2에 충청에 대한 논의가 빠진 이유는 무엇이고, 조선 후기 강호가사를 논할 때 영남을 세분화하여 논의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심노승의 ‘情’의 의미와 문학적 구현 양상 연구

민희주
동국대학교

1. 논의의 시각
2. 심노승의 ‘情’의 의미와 작시법
 - 1) ‘情’, 자율성의 장치
 - 2) ‘心勝眼, 眼勝境’의 작시법과 의의
3. ‘情’의 문학적 구현 양상과 의미
 - 1) 주제, 실존의 형상화
 - 2) 세계, 일상의 역사화
4. 마무리

1. 논의의 시각

조선 후기는 개인 지향의 문학이 성립되었다고 논의되어왔다.¹⁾ 개인의 발견 혹은 자아의 발견 등의 개인화와 관련된 논의는 조선 후기 문학의 특징임은 분명하다. 근래에 들어 개인화 경향을 확인하고 나아가 개인화가 이뤄진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²⁾ 본고에서는 개인화의 한 방식으로 ‘情’이라는 언표에 주목하고자 한다.

‘詩’가 ‘情’을 담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 인식으로, 이때 ‘情’에 관한 논의는 시에서 주된 정조와 정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감정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자신의 글쓰기 특징으로 ‘情’을 문면화한 문인들에게서 이를 감정이나 정

1)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의 구도」,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43쪽, “전통과 규범으로부터의 탈피는 어떤 지향점을 향해 가기 위한 전단계이다. 18세기 시인들은 개성과 다양화의 추구 및 진실한 자기 표현과 사실적 묘사를 지향하고 있다.”

2) 박경남, 「18세기 文學觀의 변화와 ‘개인’과 ‘개체’의 발견」,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109-141쪽.

서 그리고 담론의 차원에서는 그 의미를 한정할 수 없는 지점들이 발견된다. ‘자기’라는 개별성을 확립할 수 있는 차이가 생성되면서, 자신의 삶을 보편적 윤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조선 후기 ‘情’은 문예론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방식으로까지 연결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문인 심노승[沈魯崇, 1762-1837]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의 시문집인 『孝田散稿』를 대상으로 하여 ‘情’과 관련된 텍스트들을 훑어본 후 ‘情’의 의미를 도출하고 시 짓기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情’의 생성 조건을 고려하여 ‘주체’와 ‘외부 세계’를 중심으로 그 구현양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심노승의 시문학의 특징을 살피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면서 조선 후기 개인화의 방법으로서 ‘情’이라는 언표를 재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의 試論이기도 하다.

2. 심노승의 ‘情’의 의미와 작시법

1) ‘情’, 자율성의 장치

‘情’은 그 용어 자체가 넓은 의미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시선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심노승은 ‘情’을 자신의 문학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했고, 그의 ‘情’은 “인간사의 여러 가지에서 부딪치며 느끼는 개인의 여러 진실된 感情”³⁾이라고 규명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고려하면서도 심노승이 ‘情’을 이야기함에 함께 언급되고 있는 항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일찍이 시는 情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정으로 느끼는 바는 비록 슬픔의 정과 기쁨의 정이라는 다름이 있으나 요즘 사람들은 급박하고 탄식하며 비통하고 날카로운 그런 말만을 좋아하니 이는 참으로 말세의 상서롭지 못한 일이요, 옛날의 이른바 시라는 것이 아니다. 까닭에 나는 나에게건 남에게건 시를 말할 때 늘 中正和平의 도로써 권면하였다.⁴⁾

3) 김영진, 「孝田 沈魯崇 文學 研究 - 散文을 中心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6쪽.

4) 심노승(김영진 역), 「시는 중정화평의 법도를 가져야[西行詩敍]」,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02, 183쪽. “余嘗以爲詩出於情, 情之所感, 雖有哀樂之殊, 而但今人好爲急迫愁嘆之辭·慳礙雕斲

심노승은 '시는 정에서 나온다[詩出於情]'고 말한다. 이 언명과도 같은 말은 그의 시를 이해하는 주요한 코드이다. '情'은 주체가 외부 세계[境]과 접촉함으로써 생성된다.⁵⁾ 주체에게 생성된 '情'은 그것이 느껴움을 일으키는 바에 따라서 슬픔과 기쁨이라는 차이를 생성시킨다. 주체와 외부 세계가 만날 때 이미 '슬픔'이나 '기쁨' 등으로 해석된 '情'이 주체에게 생성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情'이 생성되고 그것이 느껴움을 일으키는 단계 즉, 주체가 자신에게 생성된 '情'을 감각 할 때 '情'은 아직 의미 생성 이전의 단계일 뿐이다. '情'을 감각 한 후에 주체의 언어화 과정을 통해서 '情'은 각각의 정서나 감정으로 구체화 된다. 이때, 자신을 감각 하는 '情'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언어로 적실하게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심노승의 '心'이 기준이 된다. '情'과 '情'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는 심노승의 태도는 중요한데 이들이 그의 문학과 삶에서 다른 항들과 연결되어 언표화되기 때문이다.

심노승은 '情'과 '마음'을 구별해서 인식하고 있고 각각 다른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情'은 주체가 외부 세계를 직접 마주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그때 그곳에서의 감각이다. 이러한 '情'은 주체가 마주하는 외부 세계에 따라서 달라지나 주체가 그때 그곳에서 실재한다는 점에서 '眞'과 함께 언표화 된다. '心'은 '情'을 언어화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작용한다. 심노승이 당대 문학을 비판하는 시선 중의 하나는 답습하는 수사인데 '心'은 이때 '心力'으로 시문학에서 '수사'와 함께 언표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평소 情病이 있었다. 정이 지나쳐 병이 되니 스스로 걱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걱정도 정을 이길 수는 없었다. 결국 정이 종횡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벗들과 모여 술자리를 베풀며 밤새 마시기도 하고, 산천을 두루 유람하며 길에서 떠돌다가 안개와 이슬을 맞고 瘴水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性靈을 해치고 血氣를 피폐하게 하였으니, 飢寒이 들고 貧窮함이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한들, 이와 같이 살았으니 털이 어찌 하

之言, 此固衰世不祥之事, 非古所謂詩. 故所自爲者及夫告諸人, 未嘗不以中正和平之道相勉.”(沈魯崇, 『孝田散稿』 3卷 6冊, 「西行詩叙」, 919쪽.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孝田散稿』 총 38책은 유일의 원고본으로 2014년 출판사 학자원에서 『孝田散稿』 총 13권으로 영인하여 발행하였다. 이하 인용 시 권수를 제외한 책수와 쪽수로 해당 서지사항을 밝히고 작자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5) “詩情與境與法耳. 情生於境, 境勘於法. 此卷軸情有餘, 而法無不足, 境於其間, 隨幻自在. 詩至此盛矣哉.”(『孝田散稿』 25冊, 「與金景先」, 5800쪽)

양게 새지 않을 수 있겠는가?⁶⁾

심노승은 情病이 있다고 한다. ‘情’이 지나쳐서 ‘病’이 된다는 것이다. 스스로도 지나친 ‘情’을 걱정하지만 걱정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다. 그에게 ‘情’은 억제하거나 뽑아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병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노승이 ‘情’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情’이 중횡하는 대로 기치하는 것이다. ‘情’으로 생긴 병은 五勞나 七傷처럼 신체의 장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고 더욱이 천하의 ‘情’만이 자신의 병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비록 ‘情’으로 병을 안다고 해도 약을 써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밝힌다. 이에 심노승은 근본을 돌이켜 구해야 한다면서 ‘情’이 중횡하는대로 놓아두면 병이 저절로 낫게 된다고 한다.⁷⁾ 심노승은 당대의 보편 윤리에 따라 ‘정’을 규율하지 않는다.

심노승은 자율성을 지닌 ‘情’을 감각 한 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석된 주체를 생성하기 보다는 ‘정’을 온전히 감각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신체적 참여를 동반하여 그때의 ‘情’을 실천하는 주체를 생성해 나간다. 세계와 접촉으로 주체에 생성된 ‘情’이 극한까지 치달으면 ‘情’은 주체로 하여금 밤새도록 술을 마시게 한다거나 산천을 유람하며 길에서 떠돌면서 안개와 이슬을 맞아 결국엔 병에 걸리는 등 주체의 삶에서 신체적 참여를 동반하는 실천들로 구체화 되는 것이다. 심노승의 ‘情’은 글쓰기장 뿐만 아니라 삶에서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기에 문제적이다.

심노승의 부친 심낙수[沈樂洙, 1739-1799]는 노론 시파의 핵심 인물이었다.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 대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자 벽과가 정권을 주도하게 되면서 죽은 심낙수의 관직은 추락 되고, 심노승은 연좌되어 기장현으로 유배를 간다. 심노승의 유배로 형제는 이별하게 되면서 당시 정황에 따른 심정을 아우 심노암[沈魯

6) “夙有情病. 情過而病崇, 未嘗不自憂, 而憂不勝情, 遂至於縱情, 朋會置酒, 或爲窮夜飲, 山川歷覽, 道路羈遊, 觸霧露犯瘴水. 凡此皆賊害性靈耗弊血氣, 而飢寒貧窮不與焉, 如是而髮安得不白乎?”(『孝田散稿』 7冊, 「白髮記」, 1155쪽)

7) “夢山居士夙有情病, 情之所過, 仍而爲病, 如針着磁, 始不自抑; 如絮粘泥, 終難自拔. 此其所以情而至於病者也. 雖然謂居士之病, 如五勞七傷, 崇於肢體臟腑, 則是淺之爲知, 非區區醫技之可治. 惟天下之情者, 能知居士之病. 雖情而知病, 能爲藥而治之者, 亦鮮矣. 是以環顧天下, 無可以治居士之病者, 無已則反求其本, 縱情而病自已, 如瘧疾服熱藥, 理斷如此.”(『孝田散稿』 7冊, 「瀛洲惡詞跋」, 1086-1087쪽)

巖, 1766-1811]과 주고 받는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별하는 정에 대해서는 옛 성인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七情 중에서 哀에 가깝겠으나 이는 서글픔이지 哀는 아니고, 愛에 가깝겠으나 그리움이지 愛는 아니다. 만약 情이 발하여 節에 맞는 工이 있다면 어찌 이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겠는가?” 이것은 泰詹의 말이다. 태침은 어찌 깊게 탐구하지 못하였는가? 말이 이리도 거칠단 말인가? 七情 가운데 거스르는 것은 怒와 哀와 惡이다. 우리들의 지금의 情은 이 세 가지를 포함하니 옥하여 머리카락이 위로 곧추서는 듯하고, 근심하여 창자는 마디마디로 끊어지려 하며 분개하여 주먹으로 다 부숴버리고자 한다. 이것이 아홉 번이나 뒤틀리는 것이 얇고 부드러운 것 속에서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바늘이 쭈셔대는 듯이 하루에도 천백 번 변하니 어찌 단지 서글픔과 그리움에 그칠 뿐이겠는가? 소자침이 말하기를 “환난과 이별에 처하여서도 슬퍼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다.”고 하였고, 속담에 “생이별이 사이별보다 힘들다”고 하였으니 내가 또 무엇을 쓰겠는가!⁸⁾

심노암은 칠정을 기준으로 심노승과의 이별을 설명하면서 哀에는 가깝겠지만 서글픔이지 哀는 아니고, 愛에 가깝겠지만 그리움이지 愛는 아니라고 한다. 성인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이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 사이의 이별의 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칠정의 범주를 미묘하게 비껴있다. 또한 ‘정’이 절도에 맞게 발한다면 이별의 정에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서 당시의 보편적 윤리에 따라 형제간의 정을 이야기하며 규율한다. 그러나 심노승은 심노암의 태도를 깊이 연구하지 못한 거친 시선의 말이라고 비판한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경험이 소거되었기 때문이다.

심노승은 형제간의 이별하는 정을 ‘지금의 정[今日之情]’이라고 표현한다. ‘지금의 정’이라는 수사는 그때의 시간성과 세계와의 마주침이라는 특수한 사건이 있음을 내포한다. 심노승은 ‘지금의 정’을 칠정의 범주에서 이야기한다면 怒 · 哀 · 惡가 모두

8) “生人戀別之情，古聖人不道也。七情之中，近乎哀而悵也非哀也；近乎愛而戀也非愛也。使有發而中節之工，豈於此不能按心。”此泰詹語也，泰詹豈其未深究歟？何言之粗也？七情之中，所拂逆者，怒與哀與惡也。吾輩今日之情，包此三者，勃然而髮欲上指；疚然而腸欲寸銷；懣然而拳欲片碎。九回軟薄中，如輪之轉，如針之刺，一日而千百變，豈止所謂悵與戀而已也？子瞻曰：“在患難離別，不憾憾，非人也。”俗諺曰：“生離難於死別，吾又何述？”(沈魯崇, 『南遷日錄』 2, 1801. 06.13)

포함된 ‘거스르는 정’이라고 분류하면서도 이 중에 어느 것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살아 있는 사람들이 이별하는 정은 고전적에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칠정’의 범위를 비껴있던 심노암의 시선과는 달리 심노승은 ‘지금의 정’을 칠정의 범주에서 분류하면서도 한쪽으로 수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하나의 정만으로는 지금의 정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 한계 속에서 당시 정을 구분 짓는 보편적 질서로는 자신의 경험을 균일하게 수렴할 수 없는 틈이 생기게 된다. 이 틈에서 심노승은 ‘정’을 기존의 구분대로 ‘감정’의 차원으로만 소진하지 않는다.

심노승의 ‘지금의 정’은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된 배경과 그 경험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외부 사건과 맞닥뜨린 주체에겐 ‘지금의 정’이 생성되고, ‘지금의 정’은 그 속성에 따라 주체의 내부를 종횡한다. ‘지금의 정’은 아홉 번이나 뒤틀리는 것이 얇고 부드러운 것 속에서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바늘로 쭈셔대듯 하루에도 천백 번 변하니, 단지 감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의 정’을 감각한 주체는 ‘분노하여 머리카락이 위로 향하려 하고’, ‘근심하여 창자가 마디마디 다 녹으려 하며’, ‘분개하여 주먹으로 다 부숴버리게’ 한다면서 정을 언어화하면서도 이를 주체의 실천으로 구체화한다. ‘정’은 주체로 하여금 자신을 감각하게 하여 그 감각 그대로를 주체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영역에까지 ‘자율성’이라는 층위에서 일관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1792년 아내가 죽자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등 아내 잃은 정을 담은 시문을 지어 『침상집(枕上集)』과 『미안기(眉眼記)』로 엮는다. 심노암은 「침상집서(枕上集序)」를 쓰면서 죽은 사람은 섭섭함이 없고 『시경(詩經)』에서도 부부 사이의 살아서의 일만을 이야기했지 사별의 슬픔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심노승의 『침상집』은 성정의 바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평한다. 때문에 『침상집』을 줄이고 생략해야 한다고 말한다.⁹⁾ 심노암의 충고에도 심노승은 자신의 ‘정’을 금지하거나 다스리지 않는다. 다만 ‘아내를 잃은 정’이 종횡하는 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는 아내가 병들었을 때에는 자신은 정에 약한 것이 아녀자와 같으면서 아내 곁에서 머뭇거렸고, 아내가 죽기 며칠 전에 둘째 딸 ‘아청’이 죽자 아청이를 가슴에 묻고 손수 엄하겠다는 아내를 사람들의 이견 속에서도 울며 허락을 한다.¹⁰⁾ 어미가 죽은 딸아이를 묻는 법도는 예법에서 고찰

9) 沈魯巖, 『弟田遺稿』 3, 「枕上集序」.

할 수 없을뿐더러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진 것이 그때의 보편적 인식이었다. 그러나 심노승은 아내의 요청을 허락한다. 심노승은 '정'이 자신을 감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情'은 주체와 외부 세계의 마주침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인식의 영역에서 해석되기 전에 주체로 하여금 이를 온전히 감각하게 한다. '情'이 주는 자율성 그대로를 감각하며 사는 주체의 삶은 당대의 보편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심노승은 이를 규율하지 않는다. 그는 '情'이 주는 감각 그대로를 글쓰기장에서 드러내고 또한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면서 자신의 주체성을 스스로 구축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情'은 주체가 당대의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글쓰기와 삶을 완성해 나가게 하지 않고 주체가 자기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 자율성의 '장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 '心勝眼, 眼勝境'의 작시법과 의의

심노승은 외부 세계와 만나면 즉시 시를 쓴다. 외부 세계와 주체의 만남으로 주체에게 정은 생성되고, 그때라는 시간성과 그곳에서 외부 세계와 마주침이라는 실제 경험의 체험성을 지닌 이 감각은 주체를 중화하면서 느껴움을 일으키며 시짓기를 촉발한다. '정'은 당대의 보편 윤리에 따라 규율되지 않는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정'을 장치로 한 시짓기는 매우 분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데 그의 시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다.

나의 외삼촌 一夢居士가 내 문집의 서문을 쓰며 “新淸平緩”고 하였고, 아우 태침은 나의 『서유권』의 서문에서 “艷治輕盈”고 하였다. 그 말들이 같지는 않으나 모두 나의 시를 아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시는 내 스스로가 알고 있으니力は 미치지 못하지만 뜻은 한 것 부지런하고, 意는 남음이 있으나 두루 가득하지는 못하다. 강개하여 여러 번 눈물을 흘릴 지경에 이르렀어도 마음 속은 일찍이 평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분하여 호되게 꾸짖는 데에 이르렀지만 눈 앞에서 일찍이 노여워할 만한 적은 없었다. 나그네와 같이 汗漫하니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일이고, 아녀자처럼 유약하니 끄달려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이 진실로

10) 김영진, 「아내 영전에[望尊祭亡室文]」, 앞의 책, 32~36쪽 참고.

내 시가 좌우로 기울어진 것이고 앞뒤로 모순이 되는 것으로 끝내 도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¹¹⁾

1783년 가을 진사시에서 낙방한 심노승은 부친 심낙수가 강동현감으로 있는 관서 지방을 여행하면서 지은 시들을 『西遊帖』으로 엮는다. 심노승의 외삼촌인 이규상[李圭象, 1727-1799]과 심노암이 서문을 썼는데 각각 “청신하고 평완하다[新淸平緩]”, “염야하고 경영하다[艷冶輕盈]”고 『서유첩』의 시들을 평가했다. 같은 시를 보고도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심노승은 이들은 자신의 시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시는 ‘힘[力]은 미치지 못하지만 뜻[志]은 한 갓 부지런하고, 뜻[意]은 남음이 있지만 한 곳으로 치우쳐 있다’면서, 모순적인 자신의 시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강개한데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 남을 호되게 꾸짖을 정도로 분한데 어찌 눈앞에 노여워할 만한 일이 없을 수 있는가? 강개함은 복받쳐 원통하고 슬픔 감정이다. 이러한 ‘情’은 심노승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다. 그러나 ‘心’ 즉, 그의 마음은 평온하다. 분비함은 분하고 원통한 감정이다. 이러한 ‘情’은 주체로 하여금 호되게 꾸짖는 행동을 하게 하지만 목전에서 노여워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심노승은 말하고 있다. 분비하는 ‘情’을 감각한 주체는 다른 이를 호되게 꾸짖는 실천적 모습으로 구체화되지만 이러한 행동 속에서도 주체는 목전에서 노여워할 것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외부 세계 혹은 타자로부터 촉발되어 주체에 생긴 정을 주체는 그 진동대로 온전히 감각 하면서도 그 ‘心’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심노승은 ‘情’과 ‘心’을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심노승은 ‘情’의 자율성 그대로를 감각 하면서도 이것을 언어화하거나 실천으로 구체화할 때에는 ‘心’이 작용한다. ‘心’이 ‘情’을 규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율의 의미는 ‘금지’가 아니다. ‘心’은 ‘情’이 갖는 감각 그대로 주체를 종횡하는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당시 보편적인 규율에 의해 이를 분류하거나 금지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심노승이 그때 그곳에서 ‘情’이 주는 감각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있는

11) “吾舅一夢居士，叙吾集曰：“新淸平緩”，吾弟泰詹，叙吾『西遊卷』曰：“艷冶輕盈”。其言不同，而皆非知吾詩也。吾詩吾自知之，力不及而志徒勤；意有餘而扁未充。慷慨幾於涕泣，胸中未嘗有不平；憤排至於叱罵，眼前未嘗有可怒。汗漫如羈旅，思念者何事；懦弱如婦女，牽連者何故。此固吾詩之左右欹倚，前後矛盾，終莫造乎道者也。”(『孝田散稿』3, 「詩集自序」, 875쪽)

그대로의 자신다운 삶이라는 신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心'은 '情'을 장치로 한 문학과 이를 삶의 영역에까지 실천하는 주체를 어떻게 구축해 내야하는가와 관련된 '생산'의 문제이지 금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심노승은 '心'과 '情'을 분리해서 바라 보면서 각각의 의미를 자기화하여 '情'은 자율성의 장치로 '心'은 자기 규율의 장치로 자기와의 관계 맺기를 한다. 이러한 구도는 시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먼저 마음으로 하여금 눈을 이겨야 하지, 눈으로 하여금 마음을 이기게 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는 마음으로 하여금 境을 이겨야하지 境으로 하여금 마음을 이기게 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뒤에야 비로소 眞知를 얻을 수 있다.¹²⁾

(나) 산행에 이미 뜻은 정해졌으니 우선시 할 것은 산을 품제함에 그 바름을 얻는 것이다. 그 방법은 먼저 마음으로 하여금 눈을 이기고, 다음으로 눈으로 하여금 境을 이기는 데에 있다. 나의 저울을 스스로 정함에 있어서 외부에 빼앗김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이미 바름을 얻게 될 것이다.¹³⁾

(다) 나는 일찍이 우리 나라 사람 가운데 情詞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는 오직 선정에 든 승려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눈은 능히 相을 이기고 마음은 능히 境을 잇을 수 있는 후에 상의 참됨을 볼 수 있고 경의 오묘함을 얻을 수 있다. 그 이기는 방법은 진실로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있는 데에 있다.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잇게 된다. 情을 잇는 데는 선정에 든 승려만한 이가 없다. 그러니 승려가 情詞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이다.¹⁴⁾

(가)는 1783년 서북 지방을 여행하면서 쓴 「西遊小記」의 일부이고, (나)는 1818년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쓴 「海嶽小記叙」의 일부이며, (다)는 1791년 평안도 여행을 할 때 지은 「香樓謔詞叙」의 일부이다. (가)에서는 외부 세계[境]를 주체가 보는 방법에

12) “先使心勝眼，不使眼勝心；次使心勝境，不使境勝心，然後始得眞知。”(『孝田散稿』 6冊, 「西遊小記」, 852쪽)

13) “山行既定意，先之者爲山品題得其正。其術在於先使心勝眼，次使眼勝境。在我之衡錘自定，不爲外至之所奪，則不患不得其正，既得正矣。”(『孝田散稿』 25冊, 「海嶽小記叙」, 4183-4184쪽)

14) 김영진, 「엄정시는 승려가 잘 지을 수 있다[香樓謔詞叙]」, 앞의 책, 191쪽.(人孰無情，情有動靜，靜固可以動人，動則自動而已。此固東人之，不能爲情詞也。余嘗謂東人而求爲情詞，惟定僧，可也。眼能勝相，心能忘境，然後可以見相之眞，得境之妙。其所以勝之之術，固在於不動而靜，靜極則忘。忘情無如定僧。斯可以爲情詞也。(『孝田散稿』 6冊, 「香樓謔詞叙」, 928-929쪽))

관해서 이야기하고 (나)에서는 이를 ‘心勝眼, 眼勝境’이라는 시 짓기 기술[術]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다)에서 ‘이김[勝]’을 실천하는 방법과 ‘心勝眼, 眼勝境’의 방법으로 시 짓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시 짓기는 외부 세계[境]와 주체의 감각 기관[眼]의 만남으로 시작된다. 눈이 境을 이긴다는 것은 눈이 포착한 외부 세계를 잇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잇음은 相 자체를 잇음이 아니다. 대상이 주체와 만나는 순간 그 상을 언어로 인식하게 하는 ‘기표’를 잇으라는 것이다. 주체는 대상 그 자체를 마주하는 것이지 대상의 기표와 마주해서는 안된다. 이는 대상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관념적인 형상화이기 때문이다. ‘眼勝境’의 과정에서 주체의 ‘情’은 생성된다. 이때의 ‘情’은 주체가 대상과 마주하면서 생성된 명명하기 이전의 감각들로 그때 그곳에서의 대상과의 마주침을 온전히 주체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다. 주체는 이 감각을 고요히 끝까지 밀고 나가면 ‘眞相’을 보게되는 것이다.

마음이 눈을 이긴다는 것은 마음이 눈을 잇는다는 것이다. 눈은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기관이다. 주체에 생성된 ‘情’을 ‘心’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다. 잇는다는 것은 애써 잊어버림이 아니다. 수영하는 사람은 자신이 물속에 있다는 구분을 하지 않아야만 깊은 물에서 노닐 수 있는 것처럼 ‘情’이 생성된 주체는 ‘情’이 주는 감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¹⁵⁾ 주체는 자신에게 생성된 ‘情’을 그 진동 그대로 끝까지 감각 하되 잊어버리고 ‘心’은 이 경지에서 떠오르는 ‘眞相’을 알아차리고 언어화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空안의 相은 드러나면서 있는 그대로의 외부 세계는 구현되고 구현된 외부 세계는 그 妙를 얻을 수 있음이다.

심노승은 시짓기에 있어서 마음을 외부 세계에 빼앗기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마음은 자기만의 규율이 되는 저울추인데 마음이 외부 세계에 빼앗겨 버리면 자기의 중심이 없어져버려 외부 세계의 부림을 받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의 부림을 받으면 자신이 온몸으로 마주한 외부 세계의 날것 그대로 실제하는 모습은 소거되고 관습적으로 연결되는 수사를 답습해서 쓰기 때문에 가짜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문인들은 금강산 혈성루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봉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15) “游水者, 不忘水無以入深;言情者, 不忘情無以造妙. 鄙人嘗曰:“東人惟戒僧, 可以爲情詞.””(『孝田散稿』 35冊, 『與金景先』, 5799쪽)

일률적으로 '일만 이천 봉우리 옥색과 같다'라는 수사를 쓴다. 혹은 금강산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위와 같은 수사를 가져오기도 한다.¹⁶⁾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외부 세계를 자신만의 언어로 나타내지 못하고 관습적으로 쓰는 수사들을 의심도 없이 위와 같이 가져다 쓰게 되는 것이다. 심노승은 관습적 수사를 비판하고 외부 대상을 어떤 언어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활기(活氣)'와 '진의(眞意)'를 지닌 자신만의 글짓기를 추구하는데 그 방법이 '心勝眼, 眼勝境'인 것이다.

3. '情'의 문학적 구현 양상과 의미

'情'은 주체와 외부 세계의 만남으로 생성된다. '情'이 생성되는 곳은 '주체'이고 이를 일으키는 계기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다. 심노승에게 '외부 세계'는 자신의 삶이 던지고 있는 일상 세계이다. 그는 자신의 시는 '情'의 말이 아님이 없다고 했다. 자신의 시는 '情'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情'을 장치로 한 시는 '情'의 생성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 '주체'와 '일상 세계'를 글쓰기 장으로 끌어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체'와 '일상'을 중심으로 '情'의 구현 양상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情'을 장치로 한 심노승의 시문학의 일면을 구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주체, 실존의 형상화

1792년 심노승은 아내와 사별한다. 아내가 죽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잠은 작은 번뇌를 이길 수 있지만 큰 번뇌에는 처음부터 잠을 잘 수조차 없음을 경험한다. 한 달이 지날 즈음 심노승은 “시문을 지으면 바야흐로 그 마음이 손과 함께 움직여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읊조릴 것이다. 시문 짓는 일과 잠드는 것이 서로 도모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문 짓기를 많이 하면 잠 또한 많아질 것이고, 마침내 잠이 시문 짓는 것보다 많아져 시문을 지을 시간도 없게 될 것”¹⁷⁾임을 깨닫고 밤낮으로 베개맡에서 시문 짓는 일을 실천한다. 아내 잃은 정을 토해낸 그는 중국에는 수심을 잊은 채 잠들 수 있었다. 아내와 사별한 때는 1792년이고 「침상집서」는

16) 『孝田散稿』 26冊, 「海嶽小記」, 05.03, 4285~4286쪽 참고.

17) 김영진, 「베개맡에서 지은 글」, 앞의 책, 29쪽.

1794년에 완성되니 2년 남짓한 시간을 그는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삶을 산 것이다. 자신을 수심에 젖게 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죽지 않는 것일 뿐인데 이미 아내는 죽었으니 이제부터 자신의 삶은 수심이 함께하는 삶일 뿐이라고 말하며,¹⁸⁾ 아내와 사별을 겪으면서 생성된 ‘情’이 중흥하는 삶을 살아간다.

其二

雨淋浪雨淋浪	비가 주룩주룩, 비가 주룩주룩
雨聲一滴百愁生	한 방울 빗소리에 백 가지 수심 피어나는데
今宵不下雙瞳淚	오늘 밤엔 두 눈에 눈물도 흐르지 않으니
明日其如兩鬢莖	내일 양 귀밑머리 어떡할는지.

其五

雨淋浪雨淋浪	비가 주룩주룩, 비가 주룩주룩
南簷北瓦夜同聲	남쪽 처마와 북쪽 기와에서도 밤새 같은 소리 내니
泉生目裡盈盈落	눈 속에서 나온 샘물 그렇그렇 떨어지고
輪轉腸中漉漉鳴	배 속에서 구르는 바퀴 그르렁그르렁 울리네.

(중략)

其八

雨淋浪雨淋浪	비가 주룩주룩, 비가 주룩주룩
此宵此雨難爲情	이 밤 이 비에 정을 걸잡기 어려운데
君歸地下那知苦	그대 지하로 돌아갔으니 어찌 고통을 알겠는가
我在人間獨抱惻	인간 세상에서 나 홀로 근심 품고 있는 거겠지. ¹⁹⁾

아내가 죽고 5개월이 지난 1792년 9월 2일 비 내리는 가을밤이다. 삼경이 가깝도록 잠 못들고 있는데 적막한 밤 빗소리만 주룩주룩 들린다. 이와 같은 세계를 맞닥뜨린 주체에겐 정이 생기고, 정을 감각한 심노승은 악부체에 붙여 언어화하며 뜻을 남

18) “我生自是與愁并, 君死何曾愁更生, 使我不愁君不死, 忍愁贏得忍人名.”(『孝田散稿』 2冊, 「愁詩」其二, 174쪽)

19) 『孝田散稿』 2冊, 「雨淋浪詞」, 172쪽.

긴다. 아내 잃은 삶 속에서 빗소리에 의해 촉발된 오늘의 정은 한 방울 빗소리에도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주체를 진동한다. 심노승에게 마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규율 장치이다. '情'은 심노승의 '마음'을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신체를 종횡한다. 이를 감각 한 주체는 오늘의 '情'을 '수심[愁]'이라는 감정으로 구체화한다. 한 방울 빗소리에도 온갖 수심이 피어나는데 심노승은 갖가지 수심을 분간하여 언어화하지 않는다. 제 6수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수심은 가을꽃과 같아서 이름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²⁰⁾ 수심을 분별하는 것은 언어로 형상화하는 과정이다. 심노승은 '情'을 감각 한 후 '心'을 거쳐서 언어화한다. 언어화 될 때, 그는 급박하고 초췌(憔悴)한 수사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했다. 한 방울 빗방울에 백 가지 수심이 생긴다면 주룩주룩 내리는 빗방울들에 생기는 수심을 언어화하는 강도가 얼마나 난삽할지 짐작할만하다. 심노승은 이 '情'을 언어화 하지 않는다. 다만 내일 양 귀밑머리는 확인하지 않아도 하얗게 썩 것임을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정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주체의 모습을 보일 뿐이다.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온 공간은 빗소리도 가득하다. 남쪽으로 가면 남쪽 처마에서 북쪽으로 가면 북쪽 기와에서도 온통 주룩주룩 빗소리를 낼 뿐이다. 빗방울이 처마와 기와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소리의 감각은 주체의 신체적 반응을 추동한다. 눈에서는 그제야 눈물이 나와서 그렇그렇 떨어지고, 배 속에서는 바퀴가 구르는 그르렁 그르렁 소리 울린다. 주체는 온 몸으로 울고 있는 것이다.

'情'은 그때 그곳에서 생성되는 순간성을 갖고 있으면서 주체의 직접 언어가 주는 담박함과 달리 1792년 9월 2일 밤 주체의 경험은 너무나도 애절하고 비통하다. 심노승은 아내를 잃은 정을 해석하여 언어화한 기표로서의 '情'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곳에서 생성된 날것 그대로로서의 경험적 '情'을 감각 한다. 단지 아내 잃은 정이 종횡하는 대로 감각할 뿐이고 주체는 온몸으로 이를 겪어내면서 아내 잃은 삶을 살아가며 그때 당시의 실존적 주체를 형성해 간다. 이처럼 '情'을 장치로 하는 시문학은 해석된 주체가 아니라 그때 그곳에서의 삶에서 실천으로 구체화 된 주체를 형성한다.

심노승의 '情'은 당대의 보편적인 윤리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재단되는 것이 아니

20) “雨淋浪雨淋浪，背人孤燭爲誰明，夢如春草那禁亂，愁似秋花不辨名。”(앞의 책, 앞의 글, 171쪽)

라 ‘情’이 생성되는 시간성과 장소성이 주는 낯것 그대로의 감각을 그것이 갖는 자율성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심노승은 당대 이데올로기와 국가 지식에 따라서 예측된 정형화 된 주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과 삶의 영역에서 ‘情’을 온전히 실천하는 주체를 생성해 낸다. 이러한 주체는 시간에 따라서 맞닥뜨린 외부 세계를 바탕으로 그때 그곳에서의 변형된 주체를 생산해낸다. 순간의 시점에서 본다면 각각 다른 주체들의 모습이지만 삶과 죽음 사이의 시간의 축으로 본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심노승만의 실존적 삶이 완성되는 것이다.

‘情’이라는 장치가 심노승의 문학과 삶의 영역에서 시발점이 되어 이를 실천으로까지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은 ‘情’은 거짓이 없다는 그의 인식과 더불어 주체 형성의 문제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구축하는 자기 규율의 장치인 ‘心’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글쓰기를 할 것인가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심노승은 당대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관계 맺기의 방식들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화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전대와는 다른 개인들이 산출된다.

2) 세계, 일사의 역사화

일상은 주체가 살아가는 현실의 영역이다. 시문학은 심미적 활동을 수반하는 예술적 영역이다. 일상을 시화한다면 작가의 시선에 의해 굴절이 일어난다. 때문에 주체의 시의식은 중요한 지점을 차지한다. 심노승은 ‘情’을 감각하고 이를 ‘心’을 통해서 언어화하는 ‘心勝眼, 眼勝境’의 작시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심노승은 외부 세계를 인식의 영역에서 해석하여 관념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담고 있는 현실에서의 공간의 경험을 온전히 감각 한 후 이를 ‘心’을 기준으로 언어화하는데 이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부 세계는 주체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포착된 소재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마주치는 우연성의 세계로 현재를 현재로서 파악하려는 맥락에 있기 때문이다.

其二

澗道衰榆淡月斜 개울 길 마른 느릅나무에 희미한 달 빗겨있고
峽村風雪夜來多 산골 마을엔 밤 되자 눈보라 세차네

微微遠聞紡車響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물레 소리
 松下燈明四五家 솔 아래 너댓집 등 밝아 오는구나.

其三

盆罌盛火列牕間 열창가에 화로불 타오르는데
 臥念京城更覺寒 누워서 서울 떠올리니 새삼스레 추워지네
 怪底終宵猶吠雪 괴상해라, 밤새 눈에 샅샅개 짓어대더만
 朝看虎跡大如盤 아침 되니 쟁반만 한 호랑이 발자국 보이네.

其五

謁陵輦路在門前 능에 참배하는 행차길 문 앞에 있어서
 恩減吾邨捕蟹錢 은혜 입어 우리 마을 捕蟹錢 감면되었지
 唐民蛤蜊寧須說 당나라 백성 蛤蜊 진상 감면 말할 필요도 없이
 只道當時刺史賢 당시 자사 현명했을 뿐이라 말하지.

其六

煨栗蒸芋匠坐處 구운 밤, 찐 토란 빙 둘러앉아서
 此中村話亦堪聞 이 안에서 시골 이야기 또한 들을 만하네
 一盃更被隣翁勸 한 잔 다시 받고 이웃 노인에게 권하니
 燈下請書納糴文 등불 아래에서 환곡 갚았다는 글 써달라 청하네

(중략)

其十一

長呼商客到門前 길게 외치는 장사치 문 앞에 와서
 一束乾魚價十錢 한 켤미 건어 10전이라네
 窮歲鄉邨隨所有 흉년에 시골에 무엇이 있겠소
 無論田粟與山綿 밭작물이든 목화솜이든 다 쳐주리라.²¹⁾

21) 『孝田散稿』 1冊, 「雨床亭書事」, 91-93쪽.

젊은 시절 심노승은 과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지낸다. 과주에 있는 집에는 ‘雨床亭’이라고 편액한 정자가 있는데 위의 시는 1787년 겨울 심노승이 우상정에서 지내면서 그곳 생활을 읊은 것이다. 제 2수에서는 자신의 마을을 먼 시선에서 이야기했다면 제 3수에서는 시선을 가까이해서 자신의 집을 이야기한다. 산골짜기 길 느릅나무엔 희미한 달이 빗겨있고 시선을 더 멀리해 마을을 바라보니 밤 되어 눈보라가 많이도 내리친다. 먼 곳에서 아득하게 물레 도는 소리 들리고 너댓집 등불 밝히며 밤을 준비한다. 자신의 집에도 열창에 화로불 타오르고 있다. 화로불은 환하게 타오르고 있는데 자신은 서울 생각하니 한기가 밀려오는 듯하다. 밤새 내리는 눈에 삽살개가 짖어대서 괴이하다 생각하며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 쟁반만 한 호랑이 발자국이 보인다. 자신이 살고있는 과주 마을에 눈 많이 내리던 날의 한 일상을 장면화 다.

1787년 경기도의 농사는 좋지 않았다. 이에 정조는 환곡을 감해 달라는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 1741-1798]의 장계를 윤택하면서 “지난번 행행(幸行)하는 길에 백성의 고통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상공(常貢)인 해가(蟹價)를 모두 면제해주라”고 허락한 일이 있었다.²²⁾ 과주의 특산물 중의 하나가 게(蟹)인데 과주에서는 이를 공물로 받쳤고 후에는 공물가로 공납을 했다. 다섯 번째 수에서 말한 포해전(捕蟹錢)의 감면은 정조의 위의 일을 의미하는 듯하다. 여섯 번째 수에서는 저녁 밤 이웃 사람들과 둘러앉아서 구운 밤과 찢 토란과 함께 술 한 잔 하며 시골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일상을 이야기한다.

심노승은 자신이 있는 곳의 순간의 흐름 속에서 함께 한다. 그곳에서 일상과의 마주침 속에서 ‘情’을 생성하고 이를 감각하며 ‘심’을 거쳐 언어화한다. ‘情’이라는 장치는 그곳에서의 경험의 직접성과 당시 상황의 현재성을 주체로 하여금 감각하게 한다. 따라서 일상의 읊은 시들은 주체의 정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일상을 의도적으로 갖고 배치하기 보다는 주체의 감각 기관인 눈이나 귀를 통해서 우연이 마주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눈보라가 많이 치던 어느 겨울날 호랑이가 내려와 집에서 기르는 삽살개가 밤새도록 짖어대던 일, 과주 마을 그것도 연로(輦路)가 문 앞에 있는 곳에 살기 때문에 겪은 捕蟹錢 감면 사건, 토산물인 밤, 한문을 몰라서 글을 쓸 수 없는 일반 백성들의 당시

22) 『日省錄』, 정조 11년 정미[1787], 09월 28일조.

생활상, 말린 생선 한 꿩미에 10전, 1787년 흉년든 파주 마을의 사정 등은 주체가 있는 곳의 현실 속에서 겪었던 일들로 '雅'를 추구하는 시문학에서는 소재가 되기 힘든 일상의 것들이다. 그러나 심노승의 시문학에 있어서 이러한 일상은 파주에서 살아 가는 실존적 인간을 구성하는 가능 조건들로 존재한다.

官家不時責	관가에서는 불시에 책하니
一魚傾一村	물고기 한 마리에 온 마을이 다투네
或有少遲者	조금이라도 지체하는 사람 있으면
朱牘相躡跟	붉은 문서 서로 이어지네
(중략)	
最畏鞭在背	등에 채찍질 당하는 것 가장 두렵고
不待棍及臀	궁둥이에 곤장 맞고 싶지 않다네
卒乍魚不得	갑자기 물고기 잡지 못하면
畢竟錢爲援	결국 돈으로 구할 수밖에
一尾直千文	한 마리에 1,000문이니
典賣及鼎禪	술이나 잠방이까지 저당잡히네
日用雖不知	이것들이 살림살이인지 모르겠는가마는
歲計何太煩	일년의 계책 어찌 이리도 번거로운지 ²³⁾

1818년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57세 나이로 금강산 여행을 한다. 위는 4월 28일 간성군에서 고성군으로 넘어가면서 지은 시이다. 대진(大津)에 도착한 심노승에게 나루터 노인이 대궐문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를 물으며 세금 때문에 살기 힘든 나루터 백성의 원통함을 호소하기 시작한다. 심노승은 노인의 이야기를 시로 낱낱이 옮긴다.

관청에서는 나루터 백성들이 잡은 물고기를 시도 때도 없이 확인하니 양을 채우지 못한 백성들은 물고기 한 마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난다. 한 마을의 모든 사람의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관가에서는 조금이라도 늦게 내면 득달같이 독촉장을 보내온다. 독촉장을 보내는 대도 공물을 바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형벌을 가한다. 나루터 노인은 궁둥이에도 곤장 맞기 싫은데 등에 채찍질 당하는 건 너무나도 두려운

23) 『孝田散稿』 25冊, 「大津帖紀言」, 4324쪽.

일이라며 호소한다. 공물을 바치지 못하면 결국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한 마리당 1000문이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나루터 백성들은 ‘술’과 ‘잠망이’까지 저당 잡힌다.

과중한 공납과 불합리한 관가의 확인이 나루터 백성들의 삶을 죽음보다도 못한 삶으로 몰아가는 출발점이다. 관가는 물고기 한 마리를 차지하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을 다투게 하고, 그래도 물고기를 바치지 못하면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바치지 않으면 백성들의 등에 채찍질을 하고, 그래도 바치지 않으면 1000문이라는 돈을 주고 서라도 바치게 한다. 관가가 백성들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나루터 노인은 이러한 사정이 조정에 알려지기를 희망해본다.

주체는 자신의 감각 기관인 ‘귀’를 통해서 ‘외부 세계’인 ‘나루터 백성들의 삶’과 마주한다. 이 이야기로 주체의 ‘정’은 생성되고 이 ‘정’은 주체를 종횡하며 주체를 감각하게 한다. ‘정’은 주체로 하여금 그때 그곳에서의 일상에 참여시키며 백성들의 실제 생활에 마음 끊어질 듯 슬퍼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송두리째 시로 옮기는 그때의 주체를 생성시킨다. 이처럼 일상은 실존적 주체를 구축하는 조건들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심노승은 시문학에서 그때 그곳에서의 주체의 실존을 형상화한다. 이러한 주체들의 구축을 통해서 심노승은 다른 이들과는 구분되는 자신만의 주체를 형성해 나간다. 이때의 주체 형성은 해석화 된 혹은 고원한 사유의 대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삶을 살아가는 일상 세계를 그 가능 조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일상은 개인의 주체화 과정에 따라 개인의 역사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심노승은 1801년부터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장현에서 유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곳에서 마주하는 일상과 이로 인해 촉발되는 ‘정’을 감각하면서 다른 어디도 아닌 기장현에서의 유배인으로서 주체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기장현의 일상 생활에서는 “機張지역의 풍토·풍속, 이전 유배객들의 일화, 일반 서민들의 삶과 故事” 등과 접촉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일상은 1801-1806년의 시간 동안 기장현에의 유배인 심노승의 실존적 삶을 구축하게하면서 주체의 형성과 함께 일상을 그 지역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4. 마무리

심노승의 '정'은 주체가 외부 세계와 마주치면서 주체에게 생성되는 것이다. '정'은 생성 되고 느껴움을 일으킨 후 언어화가 된다는 심노승의 언술을 통해서 본고에서는 '정'의 언어화 단계 이전과 '정'의 언어화 단계 이후를 구분하여 '정'을 언표화해서 살펴보았다. '정'은 인식의 영역에서 해석되기 전에 주체를 감각하게 하는 의미화 이전의 진동들이며 그때 그곳에서 마주치는 실제 경험의 체험성을 지닌 감각들이다. 심노승은 이러한 '정'을 당대 보편 윤리로 규제하지 않고 그 에너지 그대로 주체 내부를 종횡하게 한다. '정'은 그 감각 그대로의 자율성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정'은 주체로 하여금 그때 그곳에서의 날것 그대로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장치'의 기능을 한다.

'정'이 언어화가 될 때에는 '심'과 함께 언표화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정'을 감각한 주체는 '심'을 통해서 '정'을 언어화하고 실천으로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서 심노승에게 '정'은 자율성의 장치로 '심'은 자기 규율의 장치로 자기와의 관계 맺기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구도는 '심승안, 안승경'의 작시법에도 동일하게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정'이 '주체'와 '외부 세계'를 통해서 생성되는 것임을 주목하여 '주체'와 '세계'가 그의 한시 문학에서 어떻게 형상화가 되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정'은 주체가 어떤 글을 지을 것이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심노승은 '정'이 지니는 감각대로 글쓰기를 했으며 그 감각대로 삶을 살아갔다. 이것이 심노승에게는 거짓 없는 문장이고 거짓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맺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글을 지을 것인가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인 '심'이 있어서 가능했던 구조라 할 수 있다.

심노승의 '심승안, 안승경'의 작시법은 그의 기행사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추후 연구로 이 부분을 보완하여 심노승의 한시의 구체적인 면모를 예각화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토론문

김 보 성
원광대학교

본 발표문은 제목 그대로 심노승이 말한 ‘情’의 성격과 그 ‘정’이 글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폈습니다. 쉽지 않은 심노승의 글을 선택하여 해당 작품을 꼼꼼히 읽고 분석한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논리 전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3장에서 2절 ‘세계, 俗의 역사화’ 부분이 통째로 생략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후 보완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현재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의문 혹은 제안을 공유할까 합니다.

1. ‘情’의 정의

발표문에 인용된 詩詞, 序跋, 記, 書나 『南遷日錄』 부분은 모두 심노승의 ‘정’에 관한 개념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정’은 개인의 여러 진실된 ‘감정’이라고 서두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살펴보니, 심노승의 자서전 격인 『自著實紀』에도 ‘정’이 여러 차례 언급되는데 여기에서의 ‘정’은 常情과 情慾으로 나뉩니다.

<‘상정’으로 쓰인 예> 남의 부귀를 부러워하고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적이 없었고, 자신의 곤궁함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심정이 절절한 적이 없었다. 이 말이 상정은 아닌 듯하나 평생을 돌아보면 그랬다. 富貴而艷慕之心, 未嘗篤至, 阨窮而怨嗟之意, 未嘗深切. 此言似若非情, 平生夙有自驗.

<‘정욕’으로 쓰인 예> 평생 동안 병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없었다. 소싯적에 글짓기를 좋아하는 것, 벼슬하려는 계획, 정욕에 사로잡힌 것 세 가지 가운데 정욕이 가장 심하였다. 늙고 난 뒤에는 모든 것에 담박하여 욕망이 사라졌다. 그런데 유독 글짓기

욕구는 그만두지 못했다. 다만 세상 물정을 이해하여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드디어 욕구가 사라졌다. 平生無嗜癖. 少時, 文字之好進取之計情慾之累三者, 情慾有甚, 既老皆泊然退聽, 獨文字夙念不能輒已. 而識且進, 知其必不可得, 則意遂倦.

제가 보기에 2장 1절, '정, 자율성의 장치'에서 두 번째에 나오는 인용문의 '정'은 ("평소 情病이 있었다."로 시작하는 인용문) '감정'이 아닌 '정욕'에 가까운 듯한데 혹시 이견이 있으신지요.

2. '詩出於情'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

대저 오만 사물의 이치가 大抵物之理
 모두 불평함 때문에 우는 건데 鳴皆因不平
 나의 꿈이 정히 이와 같은지라 我夢政如是
 나의 시가 정에서 나온 거로다 我詩出於情

사가 서거정이 신사년(1461, 세조 7) 정월 20일 밤 꿈에 “平生意有在, 百計隨所之”라는 一聯의 시를 얻고 지은 10수 중 제1수입니다. 여기에서의 '정'은 발표문에서 말하는 '감정'과 다름없다고 여겨집니다.

나아가 “조선 전기 지배적인 문학론이었던 性情論 혹은 天理論의 대척점에 서서 '教化論'의 테두리를 벗어남과 동시에 '情의 긍정' 및 '個性의 발견'으로 나아가 閭巷人의 문학 활동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며 19세기에 이르러 '性靈論'으로 올라갔던,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詩論”(정길수(2006), 「천기론'의 문제」)인 天機論이 심노승의 '시는 정에서 나왔다'는 시론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하는 심노승의 시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2장 2절에 나오는 '境'의 의미

심노승의 遊記 세 편을 예로 들어 '心勝眼, 眼勝境이라는 시 짓기 기술'을 도출해낸 부분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1번 질문과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아무래도 여기에서 '경'의 의미를 더 자세히 짚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外境, 혹은 法境(意在 이겨야 할

대상)이나 色境(眼이 이겨야 할 대상) 혹은 기타 무엇으로 정의해야 할까요.

* 六境 : 色·聲·香·味·觸·法. 육근(眼·耳·鼻·舌·身·意)을 오염시킨다는 의미에서 六賊 혹은 六塵이라고도 함. 참고로 심노승은 불교·도교에도 조예가 깊었던 인물.

4. 선행 연구의 탐색

장미경(2020), 「상처(喪妻)의 슬픔과 그리움의 변주 -심노승(沈魯崇)과 김춘수(金春洙)의 도망시(悼亡詩)를 대상으로-」

김광재(2018), 「유배시기 沈魯崇의 蘇東坡 지향과 『一日百省集(南遷日錄)』」

박유미(2018), 「沈魯崇 悼亡文에 나타난 죽음의 수용 양상과 그 意義」

한새해(2016), 「효전(孝田) 심노승(沈魯崇) 도망문(悼亡文)에 대한 일고(一考)」; (2018), 「심노승의 정치적 입장과 산문세계」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김수진(2015), 「『은파산고(恩坡散稿)』의 성립과 심노승(沈魯崇)」

유정열(2015), 「형제 관계 속에서 본 심노승(沈魯崇)의 문학 활동 - 청년기를 중심으로」

안대회(2015), 「18,19세기의 음식취향과 미각에 관한 기록 -심노승(沈魯崇)의 『효전산고(孝田散稿)』와 『남천일록(南遷日錄)』을 중심으로-」

정우봉(2014), 「심노승(沈魯崇)의 자전문학(自傳文學)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과 자아형상」; (2013), 「沈魯崇(심노승)의 『南遷日錄(남천일록)』에 나타난 내면고백과 소통의 글쓰기」

김영진(2013), 「유배인 심노승의 孤獨과 文筆로써의 消愁 -유배일기 『南遷日錄』을 중심으로-」; (1997),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 산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이상 심노승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제법 축적되었습디만, 본 발표문에서는 한 학자의 성과를 제외하고는 언급이 배제된 상태입니다. 본 발표문이 기존 성과와 차별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요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단공안』을 통해 본 여성범죄서사의 양상과 성격

홍진영
동국대학교

1. 들어가며
2. 조선후기 여성 범죄의 유형과 양상
3. 『신단공안』에 나타나는 여성범죄서사의 성격
4. 결론

1. 들어가며

범죄와 그에 대한 해결이 관관의 판결로 이어지는 서사를 보여주는 『신단공안(神斷公案)』은 1906년 「황성신문(皇城新聞)」을 통해 연재된 한문현토체 소설이다. 제목부터 관관의 정당한 판결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이 작품의 흥미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단공안』에 서사화된 사건들을 범죄서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건 해결 이전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단공안』이 보여주는 범죄사건은 총 7편의 이야기 가운데 설화를 바탕으로 한 4화와 7화를 제외한 5편이 공통적으로 남녀 간의 성적 욕망이 발단이 되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욕망이 한쪽의 일방적인 것으로 분출되면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한쪽은 그로인한 결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범죄 사건의 기본구조로 드러난다. 전통적으로 성적욕망의 일방적 분출을 보여주는 존재들은 남성들이었다. 이 점은 『신단공안』에서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는 전통적인 피해양상과 함께 새로운 가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시대적 추이와 함께 『신단공안』이 가진 과도기적 특징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신단공안』의 범죄서사들을 여성을 중심으로 두고 읽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

한 작업을 위해 『신단공안』의 범죄서사들을 여성범죄서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을 사건의 중심으로 두고 보려는 이유 자체가 여성들이 보여주는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양면성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양상 두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여성범죄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피해는 가장 약한 존재에게 미친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조선시대는 물론 『신단공안』이 등장한 근대계몽기에도 여성은 약자의 위치였다. 따라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대한 사례는 이전 시기 서사물을 통해서도 이미 익숙하지만 가해자인 여성의 모습에 대해서는 낯선 것이 사실이다. 여성이 성적 약탈과 관련된 피해자로 나타날 때 결과는 대개 목숨을 잃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여기에는 여성의 정절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신단공안』의 피해자 서사에서 다르지 않다. 여성에게 있어 이런 억압적 상황에 대한 분출을 『신단공안』의 가해자 서사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점은 조선후기부터 이 시기까지 이어지는 실제 여성범죄의 양상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점에서 『신단공안』은 출현 시기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단공안』이 당시의 현실적 사건을 다루는 서사임에도 현실의 뒤틀림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힘들다.

『신단공안』의 범죄사건을 여성에 집중해서 보았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인 여성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범죄서사로 보는 측면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시선의 기저에는 여성이 피해자와 가해자로 달라지는 양상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이는 기존 사회에 대한 반성적 시선과 변화의 지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본고는 『신단공안』에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는 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점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신단공안』이 출현한 배경에서 여성의 문제와 여성이 처한 현실이 어떠했는지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신단공안』연구에서 여성 범죄라는 부분이 주제화된 적은 없었지만 여성 문제라는 점을 중요하게 짚거나 그것을 선정적인 측면과 연결시키는 언급들은 있었다.¹⁾ 범죄서사의 상업화 측면에서 『신단공안』을 살펴보고 있는 논의²⁾에서 남녀의 불

1) 정환국, 「송사소설의 전통과 『신단공안』」, 『한문학보』23, 우리한문학회, 2010; 박소현, 「과도기의 형식과 근대성-근대 계몽기 신문연재소설 『신단공안』과 형식의 계보학」, 『중국문학』63,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를을 주제로 하여 위의 5편을 다루고 있지만 여성범죄의 측면으로 조명하지는 않았다. 그간 『신단공안』 연구는 이 5편이 아니라 오히려 ‘봉이 김선달’과 ‘피쟁이 하인’ 설화를 토대로 한 4화와 7화의 근대적 성격을 논의한 연구들³⁾과 송사소설의 전통에서 『신단공안』의 성격을 고찰⁴⁾하거나 근대 신문에서 『신단공안』이 가졌던 전통적 맥락과 근대적 맥락을 통해 한국적 근대성의 양상을 찾고자 한 연구⁵⁾ 등과 이외에도 한문현토체의 문체와 평비 등에 주목⁶⁾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

본고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은 먼저 『신단공안』의 여성범죄서사가 어떠한 맥락에서 나타난 것인지 밝히기 위해 조선 후기부터 근대 계몽기까지 실제 여성범죄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유형화를 시도해 볼 것이다. 이는 『신단공안』 서사의 여성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로 달라지는 양상에 어떤 사적 흐름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단공안』 5편의 이야기를 여성입장의 범죄서사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 성격을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신단공안』에 의도된 여성범죄서사로서의 측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선 후기 여성 범죄의 유형과 양상

조선 후기에서 『신단공안』이 등장하는 근대계몽기에 이르기까지 여성 범죄⁷⁾가 어

- 2) 김정숙, 「한문현토체 신문소설 『신단공안』으로 보는 범죄서사의 상업화」, 『일본학연구』50,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은 신문 발달에 따라 범죄가 공론화되는 당대 상황과 원인에 자극적 묘사를 확대함으로써 서사를 지연시키는 상업소설적 면모와 통속적 내용에 대한 윤리적 비판을 통해 대중적 불안을 무마하고자 하는 통속물로서의 면모를 분석하고 있다.
- 3) 김찬기, 「근대계몽기 전 양식의 근대적 성격-『신단공안』의 제4화와 제7화를 중심으로」, 『상허학보』10, 상허학회, 2003; 하은하, 「피쟁이 하인 설화의 변형을 통해 본 트릭스터의 순기능과 역기능」, 『문학치료연구』3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정환국, 「애국계몽기 한문소설의 현실인식-『어복손전』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8, 민족문학사연구소, 1995; 신원기,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외쪽의 피의 대비적 고찰」, 『한국문학논총』79, 한국문학회, 2018; 정길수, 「지향 잃은 자유인의 초상-김봉론」, 『고소설연구』38, 한국고소설학회, 2014.
- 4) 정환국, 위의 논문.
- 5) 박소현, 위의 논문.
- 6) 반재유, 「황성신문 소재 서사문학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2017; 조상우, 「애국계몽기 한문산문의 의식지향 연구」, 고려대박사학위논문, 2002; 장예준, 「신단공안 평어양상과 가치 지향」, 『어문논총』70,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한영균, 「근대계몽기 국한혼용문의 유형·문체특성·사용양상」, 『구결연구』30, 구결학회, 2013.
- 7) 여성범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해범죄를 생각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여성범죄 역시 앞서 여성범죄서사의 경우처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두 양상을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은 『신단공안』 서사가 앞 시기 중국의 변안작을 넘어 당시 조선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 끌려 나온 것임을 보여줄 수 있다. 1900년대 초반인 근대계몽기는 아직 조선 후기의 자장 안에 있었고, 여성 범죄는 물론 여성이 처한 현실의 상황 역시 시대적 변화가 가시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 후기 여성 범죄 양상은 이후 시기 존재하는 여성 범죄 양상의 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형정(刑政)의 개선과 개혁의 영향으로 전문적인 형정서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등장한 『심리록(審理錄)』이나 『흙흙신서(欽欽新書)』, 『추조결옥록(秋曹決獄錄)』 등의 형정자료들은 조선 후기 여성 범죄의 양상이 유형화되어 잘 갖추어진 자료들로 이들의 사건 유형은 사실상 이후 시기까지 발생하는 사건 유형의 기본이 된다. 여기에서 필요한 작업은 이 형정 자료집들에 나오는 각개의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유형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존 연구 논의들을 활용하여 유형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위의 자료들이 주로 판례집이지만 본고에서는 판결이나 판례가 아닌 그 이전에 일어난 범죄사건의 양상에 초점을 두고자 함을 밝힌다.

『심리록』은 정조대에 발생한 범죄사건 중 사형에 해당하는 1112건에 대한 판례집이다. 이 중 여성 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인명범죄의 분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112건의 전체 사건 중 인명범죄는 1004건(90.3%)에 해당한다. 범죄자의 성별은 남성인 경우 965건, 여성인 경우는 39건이다. 이 가운데 성관계와 관련된 부분이 119건, 여성 및 추문에 관련된 부분이 46건이다.⁸⁾ 무엇보다 여기서 『심리록』을 통해 살펴볼 부분은 여성 범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유형의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는가이다. 우선 대표적인 유형은 간통, 강간(미수), 의심과 추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이 당시부터 이후 시기까지 계속 미혼남녀라고 해도 혼인하지 않은 남녀의 성관계는 모두 화간(和姦)이라 하여 간통에 포함된 범죄로 취급했다.

간통사건 가운데에는 ㉠처첩(妻妾)의 간통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었는데 이는 『심리록』의 간통사건 가운데 절반을 넘는 건수를 차지한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처첩의 간통에 대한 남편의 반응으로 자신의 처첩을 살해한 경우 ㉢처첩

8)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 연구』, 태학사, 2009, 150면.

의 간부(奸夫)를 살해한 경우 ㉔간통 남녀 둘 다를 살해한 경우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㉕가족 및 친인척 여성의 간통에 대해 반응한 남성들의 범행으로 이른바 명예살인 류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강간(미수)의 경우는 ㉖범인의 피해자 타살 ㉗피해자의 자살 ㉘피해자(측)의 범인 살해 등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 유형의 경우 타살이든 자살이든 피해자의 죽음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전체 강간(미수) 범죄의 절반이 넘는다.

다음으로 성문제와 관련된 의심과 추문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크게 ㉙처를 의심하여 처나 상대남자를 살해 ㉚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음해, 추문의 발생 유형으로 볼 수 있다.⁹⁾

『흙흙신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여성 범죄와 관련한 사건 양상은 「상형추의(祥刑追議)」에 실린 살인사건 144건 가운데 29건 정도인데 이는 대부분 여성의 성과 정절이라는 측면에서 야기된 사건들이다.¹⁰⁾ 특히 『흙흙신서』의 「상형추의」 부분은 『심리록』에서 뽑은 사건을 다룬 것이라 『심리록』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표현이 다를 뿐, 위의 『심리록』의 범죄유형 분류와 다르지 않다. 정약용(丁若鏞)은 『흙흙신서』내에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분류가 단순하지 않고 유형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으며 『심리록』에 비해 사건의 건수가 소략하므로 『심리록』의 유형화에는 『흙흙신서』의 유형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심리록』과 『흙흙신서』를 통해 18세기 여성범죄사건을 유형화할 수 있었고 『추조결옥록(秋曹決獄錄)』과 『검안(檢案)』을 통해서 19세기에서 근대계몽기까지의 사건 양상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추조결옥록』은 1822년부터 1893년 사이에 형조에서 처결한 옥안(獄案)을 등록한 책이다. 이 가운데 특히 자료의 충실한 기록 측면에서 19세기 중반(1852~1863)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성관련 범죄 사건의 경우 77건이 파악되기도 한다. 여성이 범죄행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12건이며 피해자인 경우는 65건이다. 이 시기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범죄건수가 477건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이

9) 이숙인, 「'음옥'에 비친 정조대의 성 인식-『심리록』을 중심으로」, 『규장각』39,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1의 분류를 토대로 정리하였고 다음을 참고함.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 태학사, 2009; 심재우, 「심리록과 조선시대 판례읽기」, 『장서각』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0) 김선경, 「조선 후기 여성의 성, 감시와 처벌」, 『역사연구』8, 역사학연구소, 2000, 59면.

범죄행위의 주체로 나타난 비율은 전체 범죄의 2.5%에 불과하다.¹¹⁾ 『추조결옥록』에 나타나는 여성 범죄 사건의 특징으로 ①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②가정 내의 불화가 폭력으로 이어진 경향이 많았다. 특히 ③여성이 아내로서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그 갈등은 남편의 폭력으로 표출되었고 여성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④여성이 음행(淫行)을 행한 경우 남편의 폭력으로 이어진 상황은 앞의 간통 유형으로 이미 익숙한 유형이며 이때에도 여전한 양상을 보여준다. ⑤남성들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거나 희생물이라는 점 역시 다르지 않은 유형이다. 이는 앞의 강간(미수) 유형과 같다. 이에 따라 자신의 결백을 자살로 인정받는 행태 역시 성리학적 윤리 테두리 안에서 더욱 강해져갔다. ⑥여성이 가해자인 양상은 ⑦남편에 대한 본부살해(本夫殺害) 유형이었는데, 이 유형은 모두 간부와 모의하여 남편을 살해한 경우였다. 또한 이 시기 범죄 유형의 특징으로 ⑧여성이 여성을 향해 일으킨 폭력이 있는데 대개 사소한 물건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고 서로 다투다가 ⑨아이가 희생되는 양상도 보여주었다.

『검안(檢案)』은 ‘검시문안(檢屍文案)’의 줄임말로 사망한 사람의 시체 검사 소견서인 시장(屍帳)을 포함하여 사건 관련자들을 심문한 일체의 조사 보고서를 말한다. 현재 전하는 『검안』 자료의 대부분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의 것으로 1895년 이후 1907년까지의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다. 『검안』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596종의 검안 자료는 사건별로 분류하여 531종으로 정리할 수 있어 사건의 내용을 유형별로 파악할 수 있다. 『검안』에서 보이는 범죄양상은 『추조결옥록』의 19세기 중반 분위기를 많이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의 분위기가 사적, 공적으로 폭력이 광범위하게 용인되고 있다는 점이 그러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양상은 여전했는데 강간과 겁간의 문제는 물론 간통에 의한 본부의 폭력과 그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본부 살해 역시 지속된 범죄양상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⑩혼인과 가정문제의 양상에서 ⑪돈을 받고 아내나 딸을 매매하는 문제도 나타났고 ⑫시집살이로 인해 여성이 자살, 타살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⑬여성의 재가와 보쌈으로 인한 범죄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과부들의 경우 겁간, 보쌈 등 사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

11) 유승희, 「19세기 여성관련 범죄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사회적 특성」, 145면. 이후 『추조결옥록』의 범죄 유형에 대한 양상 역시 이 논의를 통해 정리하였다.

재가를 권하였는데 재가를 하려면 ㉠과부전(寡婦錢)이 들어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고 ㉡보쌈을 당한 후 자살하는 여성들의 문제도 있었다.¹²⁾

위에서 살펴본 18,19세기 여성범죄 사건의 유형을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와 가해자인 경우로 나누어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8세기 형정서를 통해서는 특별히 유형화된 여성의 가해범죄는 드러나지 않는다. 간통, 강간(미수), 의심 및 추문의 경우 모두 여성이 피해자인 유형이었다. 간통의 경우는 남편이나 남자 친인척, 강간의 경우에는 범인, 피해자의 자살, 의심 및 추문의 경우도 남편이 가해자인 경우로 파악할 수 있다. 여성의 범죄 피해 양상에 있어서 가장 많은 가해자의 정체는 남편이었다.

19세기의 경우, 간통과 강간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양상은 여전했고 범행 원인에 아내와 며느리 역할이라고 하는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억압이 나타났다. 이러한 역할을 못했다는 이유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8세기와 달리 이 시기에 새롭게 나타난 여성의 피해 양상은 같은 여성끼리의 다툼에서 나타났다. 가정 내의 사소한 물건에 대한 싸움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소되지 못한 이러한 다툼은 급기야 아이들이 대신 분풀이로 희생되는 양상으로도 나타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폭력이 만연한 분위기가 원인이기도 할 것이고 여성들이 갖는 사회적 영역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간통으로 인해 남편의 손에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은 이 시기에 와서 본부살해라는 가해범죄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유일하게 유형화된 여성의 가해범죄이다. 특히 이 본부살해는 이후 근대계몽기에도 가장 큰 여성의 가해범죄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고¹³⁾ 이러한 상황은 더욱 증가하게 되어 결국 1930년대 전후로는 본부살해 사건을 ‘조혼이 낳은 조선 특유의 비극적 범죄’로 바라보는 인식이 별다른 이견 없이 사회 전반에 수용되었다.¹⁴⁾ 본부살해는 그 이면에 아내와 간부의 간통문제가 깔려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조혼

12) 김호, 「규장각 소장 ‘검안’의 기초적 검토」, 『조선시대사학보』4, 조선시대사학회, 1998의 연구를 토대로 정리하였고 다음을 참고함. 김호, 『100년 전 살인사건, 검안을 통해 본 조선의 일상사』, 휴머니스트, 2018.

13)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담론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89면.

14) 소영현, 「야만적 정열, 범죄의 과학-식민지기 조선 특유의 (여성)범죄라는 인종주의」, 『한국학연구』4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528면.

과 축첩제라는 구습의 혼인 제도로 인해 여성의 혼인이 강제혼이나 매매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

3. 『신단공안』에 나타나는 여성범죄서사의 성격

앞서 실제 여성 범죄 양상을 살펴 유형화하고자 한 이유는 『신단공안』의 서사가 현실 상황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해서였다. 조선 후기에서 근대계몽기까지 나타나는 여성 범죄 양상이 『신단공안』 서사들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신단공안』의 여성범죄서사가 의도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신단공안』 4화와 7화를 제외한 5편이 주 분석 대상인 가운데 제4화의 경우 삽입된 서사가 여성범죄서사를 보여주고 있어 이 부분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성범죄서사 측면에서 보면서 피해자 서사와 가해자 서사로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우선 『신단공안』 서사들 가운데 1,2,3화는 피해자 서사의 양상을 보여준다.

피해자 서사의 대표적 유형은 간통, 강간(미수)이다. 『신단공안』 1,2,3화는 모두 강간(미수)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강간(미수)의 경우 가해자인 범인은 외간 남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신단공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이들은 모두 승려의 신분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제1화 ‘美人竟拚一命 貞男誓不再娶(미인은 끝내 한 목숨 버려 정절을 지키고, 사내는 맹서한 후 장가들지 않다)’¹⁵⁾의 범죄양상은 하숙옥이라는 양갓집 여성이 동네 탁발승 오성에 의해 겁탈당할 위기를 맞고 그것을 거부하다 살해당하는 상황이다. 범행의 진실은 판관의 거짓 귀신소동에 속은 오성의 자백에 의해 밝혀진다.

“숙랑 소저! 제가 그때 욕망이 불길처럼 치솟아 유혹하였으나 당신은 따르지 않은데다가 남들이 나를 잡아갈까 두려운 나머지 한순간의 잘못으로 죽이고 말았소이다.”¹⁶⁾

범인은 자신이 살인을 한 행위보다 그녀의 정절이 지켜졌음을 먼저 진술하고 있다.

15) 이후 작품 인용은 한기형·정환국 역주, 『역주 신단공안』, 창비, 2007을 참조하였다.

16) 淑娘小姐아 我當時에 慾火上動호야 旣誘爾不從호고 又恐人捉我호야 致此一時誤殺호다(번역문 30)

하숙옥은 이미 죽음으로 정절을 지켰다. 이미 죽은 이에게까지 정절이 지켜졌는지의 여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숙옥과 몰래 사귀던 사이였다가 하숙옥의 아버지에 의해 범인으로 몰린 허한이 관관에 의해 무고함이 밝혀지며 했던 진술에서도 정절이 지켜졌는지는 중요하게 언급된다.

“(중략) 다만 숙옥이 흉악한 중에게 더럽힘을 당하지 않으려다가 죽은 것이 명백하니 이는 정절을 온전히 한 것이겠지요.(중략)”¹⁷⁾

죽어서도 지킨 정절은 하숙옥을 허한의 정실부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허한은 이후 부인을 두지는 않았지만 첩을 얻었다. 『신단공안』 서사 내에는 작품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다가 마지막에 평을 남기는 두 평자가 등장한다. 그 중 한 명인 계항괘사(桂巷稗史)는 마지막 평에서 열부정부(烈婦貞夫)로 도를 다했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에게는 존재의 회생까지 감행해야 하는 정절이라는 행위로 남성은 실질적인 손해도 보지 않고 명예까지 얻는다. 대개 정절을 지켜낸 여성들의 전형을 보여준 서사이다.

“어떤 부인이 산사에 와서 머물렀는데, 한 행각승이 겁간을 하려던 걸 받아들여주지 않자 그만 그에게 죽임을 당하였소. 그리고 그 머리는 지금 중암사 뒤편에 숨겨져 있고, 내 요구를 따라주면 그 머리를 그대에게 주어 관에 바치도록 하겠소. 허나 내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나 또한 그대를 죽여 두 머리를 앞산 여우나 새들한테 던져주어 먹게 할 테요.”¹⁸⁾

위는 『신단공안』 제3화 ‘慈母泣斷孝女頭 惡僧難逃明官手(어머니는 통곡하며 효녀의 머리를 자르고, 흉악한 중은 명관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다)’의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사체를 숨긴 정황에 대해 역시 스스로 말하는 장면이다. 이 이야기의 피해자인 김낭자는 젊은 과부로 평소 아주버님인 최창조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애초 목숨을 잃었을 때 최창조가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여겨져 최창조는 무고를 당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무고를 밝히려는 최창조의 아내와 딸의 노력으로 이야기가

17) 但此淑玉이 不肯爲惡僧의 所玷汚하야 一死明白에 克全貞節하얏슨즉(32)

18) 有一個婦人이 來到山寺러니 一行脚이 要奸不肯이러가 被他殺了하야 頭藏在中菴寺後하니 爾肯從我면 將此頭許爾交官이러니와 爾不從我하면 我亦殺爾成雙하야 投喫了前山狐雛하리라(100)

흘러가고 김남자가 정절을 지키고자 하다가 살해되었다는 사실조차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범인인 일청이 최창조의 아내까지 간음하고자 하던 중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절이 지켜졌음이 밝혀진 김남자는 정려문을 받게 된다. 평자인 계항 패사는 이야기의 마지막에 “김남자가 비록 열녀이기는 하나 중을 불러들여 불경을 위우게 했으니 이는 이미 화근을 품은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당시 여성에게 가능한 사회적 활동반경은 가족과 친족을 위시한 관계가 전부였음에도 김남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낯선 이를 불러들이는 행위를 통해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하고자 한 것이다. 여성의 대외적 관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정절의 상실을 담보로 불안과 공포를 통해 제약하고자 했던 지배적 언사라 할 수 있다.

강간(미수)의 범죄유형은 피해자의 타살, 피해자의 자살, 피해자 측의 범인 살해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정절을 지켰다는 명예도 얻고 범인을 특정하고 사건을 단순화시켜 정절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까지 얻고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범인에 의해 살해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신단공안』 1화와 3화는 이러한 효과를 잘 보여주는 유형의 서사이다. 피해자의 자살의 경우 정절도 잃고 명예도 얻지 못하여 목숨마저 부지할 수 없는 가장 안타까운 유형인데 얻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사건 자체만으로 서사화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와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모하는 유형인 피해자 측의 범인 살해는 전형성을 피하는 양상으로 인해 자주 서사화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학산한언』과 『청구야담』, 『동야회집』, 『청야담수』, 『괴수편』 등의 조선 후기 야담집과 1918년 연활자본으로 간행된 야담집 『동상기찬(東廂記纂)』 등에 전하는 「길정녀」 이야기가 있다. 길정녀가 남편과 잠시 떨어져 살던 즈음, 친척의 손에 의해 다른 남자의 첩으로 강제로 끌려갈 위기에 처하는데 이를 거부하다 방에 갇히게 된다.

‘홍한 도적들의 손에 헛되이 죽기보다는 차라리 도적들을 죽이고 나도 함께 죽는 것이 내 원통함을 푸는 것이 아닐까?’ (중략) 그녀는 방문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것을 보자 칼을 들고 뛰어나갔다. 나가다가 맞닥뜨린 만아들을 메다꽃으니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고꾸라졌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르며 필쩍필쩍 뛰다가 남편든 어른아이든 가리지 않고 마주치기만 하면 칼로 찍어댔다.¹⁹⁾

길정녀 역시 강제로 자신의 정절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사람을 해치고서라도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자 했다. 피바람을 각오한 폭력의 결과는 형벌이 아닌 상과 격려였다. 길정녀의 폭력은 자신의 정절을 훼손하려던 범인을 향한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어 가해행위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어차피 정절의 대가가 죽음이라면 명예마저 얻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는 정절을 훼손하려는 대상을 향해 먼저 폭력을 휘두르는 편이 피해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길정녀처럼 정당한 보복이 인정받은 경우를 김은애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의심 및 추문에 해당하는데, 김은애 사건은 특히 『심리록』에 나오는 실화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유형을 가장 대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추문을 통해 자신의 정절을 훼손한 당사자를 살해한 행위를 가해행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김은애 역시 추문을 통해 자신을 비방하고 정절을 훼손시킨 안노파를 살해한 일에 대해 무죄방면을 받게 된다.

“정녀(貞女)가 음란하다는 무함을 당한 것은 천하의 지극히 원통한 일이다. 은애의 정절로 한 번 죽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도리어 쉽지만 그러나 한갓 죽기만 하면 실정을 아는 이가 없을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러므로 칼을 쥐고 원수를 죽여 향당(鄉黨)으로 하여금 자신은 하자가 없고 저 노파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한 것이니...”²⁰⁾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임금 정조가 내린 비답이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정절을 잃었다는 평판이었다. 정절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강화될수록 여성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한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정절을 훼손하려는 정당하지 않은 세력에 대해 여성들 스스로 그들을 물리치라는 상황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길정녀나 김은애같은 이들은 여러 차례 서사화 되어 전할 만큼 소수였고 현실에서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평범하게 정절에 대한 요구를 지키기 위해 죽어갔다.

제2화 ‘老大郎君遊學 慈悲觀音托夢(낭군은 나이 들어 유학을 가고, 자비로운 관음

19) 백두용·저·김동욱 역, 『국역 동상기찬』, 보고사, 2004, 175면.

20) 上下批若曰，貞女被淫誣，天下之切冤，夫以銀愛之貞，判一死顧易爾，然恐徒死無人知也。故提刀殺仇，使鄉黨，曉然知己則無玷，彼固可副。-『청장관전서』 제20권,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577A_0160_010_0090_2000_004_XML

보살이 꿈에 계시하다)’의 서사는 강간(미수) 유형의 사건 발단을 보여주지만 사건의 결말은 여성이 정절도 목숨도 지키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성의 정절은 혼자 힘으로 지켜지고 있다. 이씨 부인은 남편 송씨의 지인이었던 간악한 승려의 속임에 의해 절에 붙들려 있던 상황에서 때마침 절을 찾아온 남편마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둘 다 갇히게 되는 처지가 된다. 그 와중에도 이씨 부인은 남편을 살리려고 계교를 써 남편에게 밥을 가져다주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말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죽지도 않고 있냐’이다. 이에 이씨의 대답이다.

“당신 또한 이 지경에 이르도록 죽지도 않고 어찌 남한테 죽지 않느냐고 꾸짖습니까? 그래도 나는 옛정을 생각하여 수시로 한줌 밥이라도 던져주며 조석에 놓인 당신 목숨을 부지시켜주고 있는데 당신은 감히 그 따위 미치고 잡된 소릴랑은 하지도 마세요.”²¹⁾

비록 이씨 부인이 주변을 속이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목숨과 정절을 지켜 줘야 할 남편의 무력함에 대한 진심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의 남편 송씨는 애초에 글도 읽지 못하던 자였는데 이씨 부인이 공부하도록 만들었던 인물이다. 송씨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서도 자신은 물론 부인의 목숨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부인의 기지로 인해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지켜만 보게 된다. 이씨 부인은 길정너나 김은애처럼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범인을 회유하고 구슬리는 방법을 잘 사용했다. 이씨 부인이 보인 범 죄를 벗어나려는 적극성은 길정너나 김은애가 감행한 용기에 못지않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자 이름을 밝히기를 심히 꺼려하여 ‘아무개의 딸’이든지 ‘아무개의 아내’라고만 하고 어렸을 때 불리던 ‘아무 여자’ ‘아무 아이’라는 칭호까지도 한꺼번에 말살해 버리고 부르지 않으니, 왜 그럴까? (중략) 비록 우뚝한 정렬의 지조를 행한 여자들이라 해도 대체로 그 이름을 들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이씨의 일을 어찌 해석해하지 않겠는가?²²⁾

21) 爾亦至今不死 何忍責人不死 我尚懷戀舊情 時時以一顆飯投與 連爾朝夕之命 爾無敢說狂說雜 58)

22) 我國은 女子諱名이 特甚 不曰某氏之女면 則曰某氏之妻라 至其幼時所稱某姬某童之號도 一切抹殺之不得稱은 何也오 (중략) 雖卓卓貞烈之操而概不得聞 吾於李氏에 又曷勝歎惜哉아

2화의 끝에 계항패사가 평한 부분이다. 『신단공안』은 중국 명청대 공안 소설과 판례집을 변안²³⁾한 것이기 때문에 『신단공안』으로 편집되면서 시대와 지명, 인명 모두 작가의 의도대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단공안』의 작가로 상정되는 평자가 저런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단공안』이 출현한 근대계몽기에 여성에 대한 사회의 화두는 교육과 계몽에 있었다. 평자가 서사 내에서 여성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음으로써 서사 뒤의 평을 통해 여성이 이름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 것은 여성의 교육과 계몽에 대해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당시 「황성신문」이 가지고 있던 계몽과 개화를 받아들이는 논조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뒷부분에서 정렬과 지조를 언급한 점을 보면 평자가 특별히 범죄의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은 이 이야기를 변안한 것은 범죄의 양상보다 더욱 중요한, 스스로 정절도 지키고 살아남은 여성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절에 대한 시험에서 승리한 이씨 부인 같은 여성들은 남성의 강요 이전에 그들 스스로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신단공안』 4,6화는 여성범죄서사 가운데 가해자서사를 보여준다. 앞서 유형화를 통해 살펴봤듯이 여성이 가해자로 나타나는 사건의 유형은 본부살해가 유일했다. 본부살해의 원인은 간통에서 비롯되지만 근원적인 배경은 조혼, 축첩, 매매혼, 강제혼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혼인제도에 있었다. 이러한 당대의 현실적인 배경이 『신단공안』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제4화 ‘仁鴻變瑞鳳 浪士勝明官(인홍은 닭을 봉황이라 속이고, 낭사는 명관관보다 뛰어났다)’는 붕이 김선달 설화를 차용해 김인홍의 행적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가 판관이 되어 해결한 사건에서 여성범죄서사를 읽을 수 있다. 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66-67)

23) 『신단공안』 원본의 상황은 제1, 2, 3화는 포공을 주인공으로 하는 『용도공안(龍圖公案)』의 「阿彌陀佛講和」, 「觀音菩薩托夢」, 그리고 「三寶殿」을 차례로 각색한 이야기이며, 제5, 6화는 남송대(1126-1279)에 편찬된 『당음비사(棠陰比事)』에 실린 소송사건 중 「子產知姦」과 「李傑買棺」을 각색한 이야기이다. 제5, 6화가 그 모티프를 빌려 온 『당음비사』는 만력(1573-1620) 연간 상업적 인쇄소 서방(書坊)에서 집중적으로 출간된 통속적인 공안 장르와 약간 거리를 둔 판례사 장르이다. 박소현, 「과도기의 형식과 근대성-근대 계몽기 신문연재소설 「신단공안」과 형식의 계보학」, 『중국문학』63,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130면.

조평남이라는 장사꾼이 장사를 하러 다녀와 보니 아내의 머리 없는 시신만 있어 관에 고했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몸이 아내의 몸이 아님을 알게 되고 마침 이웃 주문형의 아내가 상을 당했다하여 그 집에 가 관을 열어보니 주문형 아내의 머리만 들어있었다. 주문형을 잡아다 자백을 받아보니 방 벽속에서 조평남의 아내가 나왔고 주문형과 조평남의 아내는 간통한지 오래된 사이라 둘이 같이 살고 싶어 고민하다가 주문형이 자기 아내를 죽여 조평남의 아내가 죽은 것처럼 조작해 조평남이 쫓는 것을 피하고 도망가 같이 살려고 한 것이었다.

이 서사는 간통 당사자들로 인해 각각의 배우자들이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개 간통 당사자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는 여성의 본부 살해로 나타나는데 비해 여기서 살해당한 당사자는 간통한 남성의 아내가 되었다. 현실 범죄 사건의 유형이라면 주문형이 조평남을 죽이는 이야기가 되었겠지만 조평남은 아내의 외도를 전혀 몰랐고 집을 자주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죽음을 면했지만 주문형의 아내가 죽은 것은 조평남의 추포를 피하기 위해 기만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주문형과 조평남의 아내가 조평남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조평남이 살해되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조평남의 추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주문형 아내에 대한 살인사건이라는 결과보다 조평남 아내의 간통사건이 더 사건의 주제가 된다. 이 이야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김인홍의 서사 속에서 그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소재였던 점을 보아 『신단공안』의 작가는 의도적으로 사건양상을 바꾼 듯하다. 범행 양상은 조금 틀어졌으나 이렇게까지 한 것은 본부의 추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부의 추포를 피하려는 이유는 『신단공안』 6화의 서사에서 이어진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군. 만약 건아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간 그 집에서 필시 당신을 사방으로 찾아 나설 테니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순 없게 되지. 대신 한 번에 건아를 깨끗하게 제거해버리면 그의 식구들도 청상과부인 당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당신 편한 대로 내버려둘 테니 야반도주도 그때가 되어야 절묘하지 않겠어.”²⁴⁾

24) 可謂但知其一一이오 未知其二로다 若不殺死了健兒호고 便行逃走면 這廝家에서 必然四路搜索호리니 終是放心不下어니와 果能一手淨除了健兒면 他的家屬도 一個青孀을 不甚管意호야 任爾自便호리니 黑夜逃走도 此時가 爲妙라(266)

제6화 ‘踐私約頑童逞凶 借神語明官捉奸(못된 놈이 은밀한 약속을 지키느라 흥측한 일을 저지르고, 명판관은 산신의 말을 빌려 흥계를 적발하다)’의 주인공인 유취저와 장대경이 취저의 남편인 손건아를 죽이고 도망가려는 계책을 세우는 장면이다. 가난한 촌부이나 상당한 미모로 인해 매매혼이나 마찬가지로인 혼인을 하게 된 유취저는 결혼 전 만났던 장대경과의 간통을 이어오고 있었다. 유취저를 놓치지 싫었던 장대경이 결국 독자(獨子)를 죽이지는 말자는 유취저의 말에 반대해 유취저를 설득하여 기어코 손건아를 죽이게 되고 판관의 검시로 인해 이들의 범행은 발각된다. 4화의 주문형이나 6화의 장대경 이들이 손 쉬워 보이는 야반도주를 미뤄가며 굳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는 간통녀 본부의 추포 때문으로 나온다. 이에 당시 간통 행위에 대한 법률 적용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대명률』에는 “간통한 현장에서 아내와 그 상대남성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현장이 아닌 경우에도 ‘현장에서의 살해’로 해석되고 있다.²⁵⁾ 즉 간통한 아내와 그 간부를 죽이는 것이 본부에게는 죄가 아닌 것이다. 조선의 법 조항은 남성위주의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는 것에 우선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명률』에는 “만약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해 있는 경우에는 장 100형에 처하고 본 남편의 마음대로 방매(放賣)할 수 있도록 한다. 도망했다가 개가 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²⁶⁾는 조항도 있다. 간통한 아내의 처지와 목숨이 본부의 의지에 달려있고 위에서처럼 죽인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의 추포는 집요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야반도주는 그 자체도 목숨을 건 것이나 마찬가지로인 데 도망가서도 내내 마음 편히 살 수 없다면 차라리 본부를 죽이던가 본부가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고 여기도록 속이고 도망가는 편을 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 두 서사가 보여주는 본부살해 범죄서사의 문제는 아내의 상황에 있다. 현실에서 아내가 본부살해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모두 간부의 존재 때문이었다. 아내가 간통 상황에 빠진 원인은 남편과의 불화가 먼저였다. 남편과 불화를 겪는 여성들에게는 폭력이나 학대가 뒤따랐고 이를 견디다 못한 상황에 함께할 다른 존재가 있으므로 본부

25) 문현아, 「관결문 내용분석을 통한 조선후기 아내살해 사건의 재해석」, 『진단학보』113, 진단학회, 2011, 177면.

26) 문현아, 위의 논문, 179면.

살해를 감행한 것이다. 본부에게 잡히면 간통 상대까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는 것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신단공안』 4화의 조평남의 아내와 6화의 유취저의 경우는 본부 속이거나 본부 살해 이전에 있어야 할, 여성들이 남편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이 나타나지 않는다. 조평남의 아내는 남편과 금슬이 좋은 듯 속이는 여성이었고 유취저는 결혼 전에 이미 화간을 저지른 여성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본부에게 가하는 범죄는 이해의 여지조차 없다. 위 서사에서 여성들의 불행한 혼인 생활이 드러났다면 작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비판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범죄의 원인이 되는 현실을 배제한 채 흥미를 끄는 범죄 행위 자체만 가져다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4화 서사 속 주문형의 아내의 경우, 간통 사건에 희생되어 살해된 진정한 피해자였다. 간통 사건은 주로 남편이 간통한 아내를 죽이는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주문형의 경우처럼 남편이 자신이 간통의 주범이면서 아내를 죽이는 경우 역시 기혼자의 간통 상황 아래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 더구나 자신의 간통을 도리어 아내에게 씌워 죽이는 사건 역시 드문 일은 아니었다.

“저는 조정 신료의 딸로, 아무개의 집에 시집을 갔사옵니다.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은 음흉한 여자에게 빠져 저를 헐뜯고 때렸사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계집의 땀에 넘어가 제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여 한밤중에 칼로 찔러 죽였답니다. 제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영월암의 낭떠러지 골짜기 사이에 버렸습니다. 제 부모에게는 ‘음란한 일을 저지르고 도망갔다’고 속였사옵니다. 잘못 죽어 제 명을 못 산 것이 참으로 원통하옵니다. 게다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름까지 뒤집어썼으니 저승에서 영원히 이 원통함은 씻을 수 없사옵니다.”²⁷⁾

이는 『청구야담』의 「檢岩屍匹婦解冤」속 여자 귀신의 상황이다. 김 모 재상이 젊은 시절 영월암에서 공부하던 도중 만난 여귀가 김 재상의 앞날을 예언해 주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한다. 여귀의 예언대로 형조 참의가 된 김 모가 여인이 말한 곳

27) “吾乃朝官之女也，嫁于某人家。新婚未幾，家夫惑於淫婦，詈我毆我，末乃信其淫婦之讒，謂我有鴛奔之行，夜半以劍刺我，棄之于暎月庵絕壑之間，人無知者。給吾父母曰：‘淫奔而去云。’吾誤死於非命，固冤也。又蒙不潔之名，千古泉壤，此冤難洗。” 번역과 원문 모두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청구야담 세미나팀> 자료를 이용하였다.

에 가서 여인의 시신을 수습하고 남편을 잡아다 심문하여 자복을 받은 후 여인의 부모를 불러 시신을 매장하게 하며 여귀의 한을 풀어주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청구야담』이 외에도 『동야회집』, 『청야담수』, 『기문총화』 등 조선 후기 야담집에 실려 전한다. 뿐만 아니라 『동상기찬』과 같은 시기인 1918년 연활자본으로 간행된 『실사총담(實事叢潭)』에도 실려 있는데, 이 시기 야담집에서 범죄담이 그리 흔하지 않은 상황에 비추어 근대계몽기를 전후해서도 이야기될 수 있는 서사임을 알 수 있다. 여성 자신이 간통상황에 놓여있지 않아도 남편이 간통을 저지르는 경우, 여성은 남편에 의해 범죄대상이 될 수 있었다. 남편이 간통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절과 목숨이 위태해지는 상황이나 본부살해를 감행하는 여성들의 상황 모두 잘못된 혼인의 파탄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로 인한 범죄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19세기를 지나 근대계몽기 사회로 올수록 본부살해 사건이 계속해서 여성의 가해범죄의 유형 속에 놓여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 근거한 것이다. 구시대의 관습 가운데 시대적 변화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이 구습의 혼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신단공안』 제5화 ‘妖經客設齋成奸 能獄吏具棺招供(간악한 경객은 범회를 열어 간통하고, 판관은 관을 대기시키고 공초케 하다)’은 여성범죄서사의 가해자 서사로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보인다. 젊은 과부 윤씨는 죽은 남편을 위해 경을 읽어주는 승려 황경을 만났다가 애정행각에 빠져들게 되나 아들 계동이 방해하자 아들을 죽여 없애고자 한다. 이에 황경이 불효의 죄로 관아에 고발하자 하고 군수는 계동에게 불효의 실상을 묻지만 계동은 그저 자신의 불효를 인정한다. 그러나 친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죽여 달라고 고소한 것을 이상히 여긴 군수가 사람을 시켜 윤씨의 뒤를 밟아 황경의 정체를 알아낸다. 윤씨에게 아들의 사체를 가져갈 관을 가져오도록 한 뒤, 윤씨와 황경이 관을 가져오자 황경을 포박해 벌을 내리고 윤씨는 효자 아들로 인해 벌을 면한 덕에 반성하며 모자가 함께 풀려나게 되는 것이 이야기의 줄거리이다.

여성이 가해자로 주도하는 범죄 모의가 자신의 친자식에게 향하는 경우라는 측면에서 매우 독특하다. 친자살해 모티프가 이 시기 서사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장화홍련전』이나 『김씨열행록』 같은 신작구소설에서 친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가정 내의 문제에서 기인한 경우였다. 그러나 이 서사에서 윤씨가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아들 계동이 자신의 쾌락적 애정행각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며 부덕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윤씨라는 인물이 가진 성적 욕망은 기존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이는 『신단공안』의 또 한 명의 평자인 청천자(聽泉子)의 말에서도 나타난다.

‘사내의 탐욕은 그래도 말이 되지만, 아녀자의 탐욕은 얘기할 게 못된다고 한다. 내 시를 읽다가 여기에 이르러 일찍이 세 번이나 탄식을 하며 ‘여자의 탐욕이 이와 같다면 어찌 여자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윤씨를 보니 어찌 다만 탐욕이라고만 이르겠는가. 미친 것이며 난잡한 것이다. (중략) 계동이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찌 들창 밑에서 늙어 죽을 수 있으리오?’²⁸⁾

이 부분은 사실 아직 윤씨의 본격적인 애정행각이 나타나기 전이며 아들 계동의 무리한 방해 역시 등장하기 전인데 평자의 탄식이 매우 컸던지 앞으로의 서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성적욕망에 대한 평자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이렇게 튀는 윤씨의 애정행각을 어떻게 가라앉힐 것인지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자의 탄식이 무색하지 않게 윤씨가 보이는 애정행각의 묘사 또한 일반적이지 않다. 황경 주변의 어린 두 승려들과도 함께 어울리며 그러한 사실을 굳이 숨기려는 수고도 하지 않는다. 윤씨는 이런 과정을 통해 황경과 혼인을 하여 새로 가정을 꾸리려는 목적을 갖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욕망에 충실할 뿐이다. 윤씨의 이러한 입체적인 모습은 계동의 방해가 마치 악당의 행위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이다. 아들 계동 또한 어린 나이에 하는 행동이 범상치 않다. 어머니 윤씨의 수단을 다 파악하고 있으며 황경을 골탕 먹이는 방법들은 장난의 수준을 넘어선다. 그러나 감당 못하게 빠져 나가는 듯 하던 이 인물들의 역동성은 판관인 군수 이관을 만나며 급격히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준다. 계동은 어미의 잘못을 말하지 않은 채 억울한 죽음을 받아들일려고 하고 윤씨는 바로 직전까지 친아들을 죽여 달라 해 놓고 금세 반성한 뒤 남은 생을 아들만 잘 돌보며 살아갔다고 한다.

윤씨는 정절이나 모성 등, 당시 여인들에게 부여된 부덕을 전혀 행하지 않았고 자

28) 士之耽也는 猶可說也어니와 女之耽也는 不可說也라하야늘 余讀詩至此에 未嘗不三歎以爲女耽이如是하면 安可爲女리오하얏더니 今觀尹氏에 奚徒耽之是云이리오 狂也 亂也오 (중략) 非以癸童으로 爲子러면 安能老死於闔下也리오(204)

신의 욕망에만 충실했다. 여성에게서 이런 균열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편의 존재로 하여금 여성을 업악하거나 목숨까지 빼앗는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었다.²⁹⁾ 남편이 없던 윤씨에게는 그런 제동을 걸 존재가 없었는데 그 가부장적 역할을 아들 계동이 대신 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식으로서 효라고 하는 또 다른 가부장적 관념을 망각한 것이었고 관관이라는 규범적 존재 앞에서 계동은 자신이 망각한 효를 떠올리게 되었다. 아들이 자신의 역할로 돌아가자 윤씨에게도 더 이상의 일탈은 허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애초 윤씨의 일탈은 아들로 인한 것이 아닌 개인의 문제였지만 아들의 가부장적 개입으로 인해 관관이라는 사회적인 규범의 간섭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윤씨가 다시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범죄서사의 측면에서 가부장적 역할을 하려고 든 아들을 죽이고자 한 윤씨 나름의 본부살해 시도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서사로 파악할 수 있다.

4. 결론

『신단공안』의 서사들을 여성범죄서사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범죄 피해자 서사인 1,2,3화는 모두 강간(미수) 유형의 범죄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세 서사의 피해자 모두 강간 범죄의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1,3화의 피해자들인 하숙옥과 김낭자는 강간을 면하는 대신 목숨을 잃는 결과로써 자신들의 정절을 지켰다. 이들이 각각 그에 대해 받은 보상은 화간하던 남성의 죽은 정실부 인자리와 정려문을 통한 명예였다. 이들 서사는 미혼남녀의 만남이나 남편을 위한 불경 청탁 같은 여성 자신들의 의지로 행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욕망에 대해서도 범죄의 단초로 규정하며 허용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1,3화의 서사에서 가부장적 윤리 속에 정절 이데올로기를 수호하려는 의지와 여성에 대한 통제가 강해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2화의 범죄 피해자인 이씨 부인은 정절도 목숨도 지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김

29) 『추관지』 영조3년 사건기사 가운데 이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곡산(谷山)의 죄인 송지원은 그 아내 소화(笑花)가 본디 양녀(良女)로서 혼례를 치루고 16년 동안 살았는데, 소화가 승(僧)영희, 홍률 등과 간통하였기에 관비(官婢)로 정속시켰습니다. 조강지처의 정리를 잊지 못해 집으로 같이 가려고 하였으나 소화가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분통과 실망을 이기지 못하여 차고 있던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간통살해3) 민현아 위 논문 179면.

은애나 길정녀가 정절을 훼손하려는 자들에게 가한 폭력만큼이나 기능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범행을 모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씨 부인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구실로 여성의 계몽과 교육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여성에 대한 진보적 성향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라 이씨 부인처럼 자신의 정절과 목숨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 가부장적 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여성상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해자 서사로 살펴본 4,5,6화는 실제 여성범죄사건의 가해자 유형을 보여주는 본부살해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4화의 실제 희생자는 간통상대남성의 아내였지만 그 범죄는 본부의 추포를 막고자 여성 자신의 죽음을 속이려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법률에 의거한 본부 추포의 시도와 처분은 간통자들에게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본부살해는 필요악이었다. 6화의 간통자들이 본부살해를 시도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실제 본부살해에서 여성의 간통행위는 본부와와의 어긋난 결혼생활에서 기인한 것이었는데 『신단공안』서사는 그러한 현실의 부분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들 개인의 교활함과 간악함 등으로 본부살해 사건의 원인을 돌리고 있다.

5화의 경우 친자살해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과부의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 가부장적 가장 역할을 시도하며 자식으로서 효를 망각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과부 윤씨가 아들을 죽이려 한 시도는 간접적으로 본부살해의 양상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윤씨의 과감한 성적 욕망과 애정 행각들이 서술되고 있는데, 이런 윤씨의 모습은 평자에게 있어 감당하지 못할 시대의 변화를 대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시도 대신 여전한 가부장적 윤리를 통해 그러한 변화 역시 가라앉힐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미 경찰이 등장한 시대에 이전 시기에 윤리를 수호하던 관관이라는 존재가 범죄사건을 귀신같이 숨씨로 해결해 주기를 여전히 바라는 모습이 『신단공안』에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단공안』을 여성범죄서사의 측면에서 살펴본 바를 통해 『신단공안』 각각의 서사들이 당시의 대표적인 범죄양상을 담고 있으면서도 범죄서사으로써 현실의 썩진함을 드러내기 보다는 여성이 겪는 범죄현황을 보여주며 가부장적 질서를 계몽적으로 구현하

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범죄양상은 여성이 겪는 가혹한 현실에 대해 사회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신단공안』은 그러한 범죄유형을 현상만을 인용해 가부장적 질서를 수호하는 정절과 같은 가치들이 통속적이고 대중적인 성격으로 오히려 지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범죄서사가 피해자의 양상에서 가해자의 양상으로 바뀌는 지점에는 고통 받는 현실에 대한 여성들의 분출이 존재했다. 이는 현실 범죄양상을 함께 살핀 부분을 통해 구습의 혼인제도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더 이상 원치 않는 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시작된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신단공안』 서사들은 외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실제 범죄 유형을 인지하고 범죄 서사를 통해 다루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 가장 중시되는 원인은 빼놓은 채 사건의 외형만을 선정적인 방식으로 차용하는 모습을 통해 통속적인 서사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구시대적 관습과 사고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계몽적인 성격으로 드러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신단공안』은 여러 방면의 주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미 앞선 연구들이 그러한 시도를 보여주었고 본고에서는 그간 주제화되지 않았던 여성범죄서사라는 측면에서 실제 범죄사건의 유형화를 통해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신단공안』의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신단공안』 서사의 시작점을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시도였다. 이후 『신단공안』과 동시대인 근대계몽기의 신문이나 잡지 등의 자료들을 통해 당대의 범죄와 그에 관한 논의가 『신단공안』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시도 또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토론문

유 춘 동
강원대학교

오늘 발표는 홍진영 선생이 발표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단공안』을 대상으로, 그동안 주제화되지 않았던 여성범죄서사라는 측면에서, 실제 범죄 사건의 유형화를 통해 작품에 적용해보는 방식, 『신단공안』 서사의 시작점을 이 작품이 생성된 근대계몽기의 신문이나 잡지 등의 자료들을 통하여 당대의 범죄와 그에 관한 논의가 『신단공안』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신단공안』에 수재된 작품을 근대계몽기의 시각에서 분석하려는 시도, 근대계몽기에 산출된 대중매체 ‘신문-잡지’와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는 몇 차례 있었지만 오늘처럼 ‘여성범죄서사’라는 시각에서, 당대와의 관련성, 문학사적 맥락, 최근 이슈가 되는 ‘여성적 시각(?)’에서 이 작품을 탐색하려는 시도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발표나 토론을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는 ‘신진연구자 발표회’라는 특성상, 토론자의 질문이나 조언이 자칫 발표자의 충만한 사기를 꺾어놓는 것은 아닌지, 발표자 고민하는 방향과 영똥한 이야기를 하여 논문 작성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 토론 이외의 외적인 부분을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논문을 작성해주길 바라면서, 발표문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 평상시에 생각했던 몇가지를 질문해 보려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질문으로 초점화하려는 것은 (1) 시대 상황에 따른 문학적 대응, (2) 여성 범죄 서사의 성립 가능성의 타당성 여부 두 가지입니다. (1)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원식 선생님을 시작으로 『신단공안』에 수록된 작품을 ‘근대성’과 연관 지어 해석하려는 시도는 연원(淵源)이 비교적 깊습니다. 그것은 작품이 나온 시기, 매체를 고려한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표자가 언급을 했지만 『신단공안』의 국내 수용 및 향유 양상 역시, 근대계몽기 이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 작품의 수록된 것 자체가 이미 국내에 알려졌고, 원전(原典)의 작품의 영향력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신단공안』의 출현 자체에 너무 많은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신단공안』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포염라연의』도 등장한 매체는 다르지만 『신단공안』에 수록된 이야기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시대의 변화, 근대성의 시각으로의 접근을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논의와 주장이 단선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은 송사소설(訟事小說)의 전통에서, 그리고 근대계몽기 ‘탐정(探偵)’ 서사의 유행에서, 이 문제를 좀더 검토하고 자세히 접근해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합니다. ‘여성범죄서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사실 이야기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본다면 전대 야담(野談)이나 고소설에서도 유사한 화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신단공안』에 수록된 작품을 과연 전대에는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이야기,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 산출된 변안작(變案作), 신작(新作)이라고 볼 근거를 확보하는 것, 또는 기존 전통에서 변형된 것을 찾아내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볼 수 있는 진지한 논의의 기회를 주어 고맙습니다.

한국문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 본 규정은 한국문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문, 그리고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저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전통문화 및 현대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여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및 인류문화의 창달에 기여한다는 연구소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중 준수해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윤리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기능) 학술지 『한국문학연구』와 연구소 발간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와 판단, 그리고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 1)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문, 그리고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저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
- 3) 연구소장은 당연직 윤리위원이 되며, 나머지 5인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4)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5조(임기)

- 1) 당연직 구성인원의 임기는 각 직책의 임기를 따른다.
- 2) 선임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의 종료 때까지로 한다.

제3장 운영

제6조(대상) 본 위원회가 문제 삼는 연구 윤리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위·변조와 표절, 부당한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의 행위이다.

제7조(범위) 문제가 되는 행위는 다음 조항에 나열된 것으로 한정한다.

- 1) 위·변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 및 연구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연구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하여 왜곡하는 경우.
- 2) 표절: 원저자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용어, 분석 체계를 사용하거나 일부 변형해 활용한 경우.
- 3) 부당한 중복 게재: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수록하거나, 새로운 의견 없이 여러 편의 글을 합한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혹은 연구 과정 및 결과에 공헌한 바가 있는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체의 경우.
- 6) 기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세부 규정 및 동국대학교 연구 윤리 규정을 벗어나는 일체의 경우.

제8조(회의)

- 1)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 위반 심사 및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
- 2) 필요에 따라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서면 및 기타의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보호)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대한 보호는 다음의 조항을 따른다.

- 1)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나 문제제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간주하여, 향후 본 연구소의 학술 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2)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3) 피조사자에게는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심사와 집행

제10조(심사의 절차)

- 1)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 2)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판정을 확정짓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연구 윤리 위반 혐의를 알리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 4)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개최한다.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수결 원칙을 따르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5)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피조사자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조사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6) 위원회는 심의 결과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확정되면, 아래 제 11조의 학술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여 연구소장에 즉시 통보하며 소장은 즉각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학술 활동 제한의 종류) 연구 윤리 위반이 확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소의 학술 활동을 제한한다.

- 1) 해당자의 논문 투고 접수 거부(5년 이상. 기한은 윤리위에서 결정함).
- 2) 해당 논문 취소 및 연구소 홈페이지 원문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3) 해당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제5장 기타

제12조(기타)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된 제반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